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자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劉 天 祺

<한국어 초록>

한자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유천기

본고의 목적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음운 현상은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및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한자어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음운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 한자어의 일부 특징을 밝히는 것에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음운 현상을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되는 음운 현상,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과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으로 분류한다.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되는 음운 현상은 비음동화, 순행적 유음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역행적 유기음화. 위치동화와 후음탈락(1)이 있다. 한자어는 차용어로서의 특징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음절 구조 차이 때문에 일부 음운현상은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또한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평피열음화. 순행적 유기음화, 후음탈락(2)과 자음군 단순화는 한자어에서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에서 적용된다. 또한 한자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단어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는 고유어에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한자어는 차용어로서의 특징 때문에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도 고유어에서만 적용된다. 관형사형 '-을' 뒤에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는 한자어 의존명사가 없기 때문에 현실 발음에서 관형사형 '-을' 뒤의 경음화도 고유어에만 적용된다. 고유어에서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의 입력이 되는 연쇄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는 고유어에서 적용되지 않고 한자어에서 적용된다. 또한 아직 이유를 밝히지 못했지만 'ㄹ' 뒤의 경음화도 한자어에서만 적용된다.

제3장에서는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특수한 음운 현상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ㄹ' 뒤의 경음화 그리고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를 살펴보

았다. 사전 사료를 수집하고 표준 발음을 통해서 음운 현상의 적용 원리를 밝힌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최근에 진행한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와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의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 발음 자료를 정리하였다. 현실 발음을 통해서 음운 현상의 적용 원리를 검증하고 현실 발음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은 한자어의 형태 구조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2자어에서는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며 3자어에서는 치조비음화가 작용된다. 현실 발음에서 화자 간의 한문 지식의 차이나 단어의 특징 때문에 적용 원리와 다르게 다른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두 가지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발음이 공존되는 경우도 많다.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의 경우 표준 발음을 통해서 특정 한자 형태소가 특정 의미를 가지고 접미사적 요소로 사용될 때 경음으로 발음된다. ‘ㄹ’ 뒤의 경음화의 경우 모든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리 일부 한자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 따라서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은 단순히 음운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한자어의 형태 구조 및 화자의 한문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4장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본고가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한자어, 음운 현상, 치조비음화, 역행적 유음화,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 ‘ㄹ’ 뒤의 경음화

학번: 2016-22944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2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5
1.4. 논의의 구성 ····· 6

2.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의 비교 ····· 8
2.1.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되는 음운 현상 ····· 8
2.2.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 14
2.3.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 21
2.4. 소결 ····· 23

3.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 25
3.1.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 25
3.1.1. 표준 발음에 대한 분석 ····· 32
3.1.2. 현실 발음에 대한 분석 ····· 37
3.2.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 ····· 41
3.2.1. 표준 발음에 대한 분석 ····· 43
3.2.2. 현실 발음에 대한 분석 ····· 48
3.3. 'ㄹ' 뒤의 경음화 ····· 49
3.3.1. 표준 발음에 대한 분석 ····· 50
3.3.2. 현실 발음에 대한 분석 ····· 51
3.4. 소결 ····· 51

4. 결론 ····· 53
참고문헌 ····· 55
<부록> ····· 58
<中文摘要> ····· 98

1. 서론

1.1. 연구 목적

한국어 어휘는 크게 고유의 한국어 단어로 생각되는 고유어, 한자에서 유래된 말로 인식되는 한자어와 외국에서 유입된 외래어로 나뉜다.[1] 이 중 한자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형태론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음운론에서는 고유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비하면 한자어에 대한 음운론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한자어와 고유어는 음운 체계, 음운 현상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한자어와 고유어의 음운 체계, 음절 구조의 비교와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진행된 한자어에 대한 전반적인 음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음운 현상을 검토하여 한자어의 세부적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때 이러한 음운 현상에 대한 검토는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대한 검토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표준 발음에서 음운 현상 적용의 경향성이 보이며 현실 발음에서는 이러한 음운 현상이 상당한 특수성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한국어 화자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어떤 음운 현상이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되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주로 다룰 것이다.

---

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일관된 기준에 의한 분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주지연, 2018)도 있지만 이러한 구분은 한국어 화자에 직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노명희(1990), 송기중(1992) 등에서 제시하는 한자어의 정의를 받아들인다. 즉, 한자어는 그 기원과 관계없이 한자로 표기되며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되는 말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1) 가.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나. ‘ㄹ’ 뒤의 경음화
다.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는 모두 ‘ㄴ+ㄹ’ 연쇄에 적용되는데, 고유어에서 ‘ㄹ’로 시작하는 형태소의 수가 극히 적고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ㄹ’로 시작하는 형태소의 연쇄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유어에서는 이러한 ‘ㄴ+ㄹ’ 연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음운 현상은 모두 주로 한자어에서는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는 동일한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데, 본고에서는 이 선택 원리를 표준 발음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제 현실 발음에서는 그 적용 양상이 표준 발음보다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질 것이다.

‘ㄹ’ 뒤의 경음화는 고유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한자어에서만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다. 고유어에서 ‘ㄹ’와 ‘ㄷ, ㅅ, ㅈ’의 연쇄가 종종 보이지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한자어에서도 모든 ‘ㄹ’와 ‘ㄷ, ㅅ, ㅈ’의 연쇄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표준 발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는 일부 한자 형태소가 일반적으로 경음화되지 않는 환경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다. 이러한 한자 형태소가 경음으로 실현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같은 한자 형태소가 평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경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공존하는 한자 형태소도 존재하는데 각각의 실현 원리를 밝힐 필요가 있다.

1.2. 선행 연구

음운론 분야에서 한자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송기중(1992), 권인한(1997)과 김유범(2016)을 들 수 있다.

송기중(1992)는 한자어의 차용부터 한자어에 대한 음운론적 및 형태론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이후의 한자어 연구, 특히 음운론적 연구

의 기초가 되었다. 권인한(1997)에서는 한자어의 음운 체계와 음소배열제약을 정리하고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제시하였다. 김유범(2016)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한자어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한자어 자음 체계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	
	마찰음	평음		ㅅ			
		유기음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ㅊ		
		경음			ㅉ		
공명음	비음	-	ㅁ	ㄴ		ㅇ	
	유음	-					ㄹ

한국 한자음은 고대에 중국에서 유래된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인의 한자 발음을 한국어 음운 체계에 맞게 고친 것에서 비롯하였다. 그 후에 2천여 년간에 음운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한자음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한자어 음운 체계에는 16개 자음이 있다. 고유어 자음 체계와 비교하면 'ㅸ', 'ㅥ'과 'ㅉ'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중에 'ㅋ', 'ㄲ'과 'ㅆ'의 경우 한두 개 정도의 예밖에 찾을 수 없다. 한자어에서 'ㅋ'은 '쾌(快)'에만 존재한다. '쾌'와 결부되는 다른 한자도 존재하지만 '快'만 '정형적 한자어'[2]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송기중, 1992: 12). 'ㄲ'은 '끽(喫)'에만 존재하며 'ㅆ'은 '씨(氏)'와 '쌍(雙)'에만 존재한다. 이때 'ㄲ'은 음소 자격이 의심되며,[3] 'ㅆ'은 경음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4] 나머지 경음('ㅸ,

2) 어떤 어휘항을 구성하는 음절 형태소('한자어 형태소')가 다른 어휘항에도 등장하면 '정형적' 한자어라고 하며 그렇지 않고 오직 한 단어에만 사용된 한자(음)으로 구성된 어휘항은 '비정형적'이다(송기중, 1992: 9-10).

3) 송기중(1992: 12)에서 '끽(喫)'은 장년층 이상의 발화에서만 간혹 나오며 [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인한(1997:244)에서 '끽(喫)'은 젊은 세대의 발음에서 [끽]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끽(喫)'은 음소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진다고 한

ㄸ, ㅉ')이 부재하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자어 자음 체계에서 경음의 존재가 그리 자연스럽지 않은 을 알 수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단모음 체계는 별 차이가 없고 모두 10개의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5] 10개의 단모음들의 음운상의 특징도 대동소이하다.

[표2] 한자어 이중모음 체계

상향 이중 모음	y-계	ㅑ, ㅕ, ㅛ, ㅠ, ㅒ, ㅖ
	w-계	ㅘ, ㅝ, ㅙ, ㅞ
하향 이중 모음	y-계	ㅢ
	w-계	

고유어 이중 모음 체계와 비교해 보면 한자어 이중 모음 체계에서 'ㅐ'가 부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모음 체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자음 체계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한자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연결의 특수성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ㄷ'과 'ㅌ'에는 이중 모음이 후행할 수 없다. 또한 y-계 상향 이중 모음은 'ㄷ'과 'ㅌ'을 제외한 자음과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w-계 이중 모음은 초성이 없는 경우나 초성이 'ㄱ'이나 'ㅎ'일 때만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y-계 하향 이중 모음 'ㅢ'는 한자어 형태소에서 '의(義, 意 등)'와 '희(熙, 喜)'에만 존재한다.

음운 현상에 관해서 권인한(1997)과 김유범(2016)에서 정리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비음동화와 치조비음화, 유음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와 'ㄹ' 뒤의 경음화,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 유기음화, 'ㄴ' 첨가, 두음법칙을 제시하였다. 송기중(1992)에서는

다. 그런데 '끽(喫)'을 포함하는 단어들은 현재 젊은 세대 발화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을 보아 'ㄲ'이 음소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심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4) 송기중(1992: 12)에서 '씨(氏)'와 '쌍(雙)'은 비어두 위치에서 초성이 비자동, 비음운론적 변이에 의거하여 경음화되는 형태소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본다. '씨(氏)'와 '쌍(雙)'은 아주 높은 빈도로 의존형태소로 사용된다. 따라서 '씨(氏)'와 '쌍(雙)'은 대부분 경음화되는 위치에만 출현하기 때문에 경음으로 고착된 것으로 본다.

5) 여기서 10개의 모음이 구성하는 단모음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표준발음법에서 'ㅚ'와 'ㅟ'가 이중모음으로의 발음도 인정한다. 게다가 'ㅖ'와 '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을 감안해서 '8모음', '7모음' 체계라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음운 현상을 다루면서 경음화를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서 예외 없이 경음화되는 음운론적 경음화(제1류 경음화)와 경음화되는 음운론적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자음과 모음 뒤에서 경음화되는 제2류 경음화로 나누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한자어의 음운 체계와 한자어에서 발생하는 음운 현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한자어의 음운론적 특징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다.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한자어에 대한 이러한 형태론적인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 노명희(1998)은 한국어 문법과 한문 문법의 구분과 한문 문법을 아는 화자와 한자를 잘 모르는 화자의 구분을 주장하였다. 김창섭(1999, 2001)에서는 2자 한자어(2자어)와 3자 한자어(3자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2자어는 한문 문법에 의해서 형성된다. 한문에서는 한자 낱자가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경우가 극히 많지만 한국어에서는 수만 개의 한자 중에서 대략 100여 개만의 1자 한자가 단어라고 할 수 있다(송기중, 1992: 46). 한국어에서는 2자가 되어야 비로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2자어는 두 자로 표기되거나 두 한자 형태소로 된 단어의 뜻을 넘어서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 적격 형식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김창섭, 2001: 178). 2자어는 고유어 문법으로 더 이상 분석하지 못한다. 2자어와 달리 3자어는 한문식 문법과 고유어식 문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문법(김창섭, 1999: 2)에 따라서 형성된다. 2자어 앞이나 뒤에서 1자가 결합하여 3자어를 형성한다. 또한 3자가 아니지만 3자어류에 속하는 단어들이 있으며[시집(詩集), 면류(麵類) 등], 3자로 되어 있지만 3자어류에 속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상중하(上中下) 등].

이러한 기존의 한자어의 음운론적·형태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검토하여 한자어의 일부 특징을 밝히도록 한다.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고유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한자어에서만 적용되는 현상인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ㄹ’ 뒤의 경음화와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 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표준 발음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의 적용 양상에서 보이는 경향성을 확보한다. 그 다음으로 현실 발음 자료에서 보이는 특수성과 표준 발음 자료와 비교할 때 보이는 차이점을 제시하고 원인을 설명한다.

표준 발음 자료는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6] ‘자세히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또는 ‘ㄹ’ 뒤의 경음화의 경우는 음운론적 환경을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다. 특수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의 경우는 모든 예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통해서 대표적인 경음화되는 한자 형태소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현실 발음 자료는 주로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와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의 조사 결과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7]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도 참고하였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음운 현상들이 고유어와 한자어에서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고유어와 구별되는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특이한 음운 현상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ㄹ’ 뒤의 경음화,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 현상을 다룬다. 표준 발음 자료를 통해서 이들 음운 현상의 적용 원리를 탐색한 후에 현실 발음 자료를 통해

6)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7) 직접 현실 발음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최신의 현실 발음 조사인 만큼 피실험자수가 많고 그 연령대 역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조사하는 자료보다 훌륭한 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서 이를 증명한다. 또한 현실 발음에서 보이는 특이점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2.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의 비교

2.1.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모두 적용되는 음운 현상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모두 적용되는 음운 현상은 비음동화, 순행적 유음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와 역행적 유기음화를 들 수 있다. 비음동화, 순행적 유음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와 역행적 유기음화는 모두 음운 정보만[8] 관여하는 음운 현상이다. 음운 정보만 관여하는 음운 현상은 단순히 음운론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다. 또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위치동화와 후음탈락(1)도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다.

한국어에는 장애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비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수 없는 음절연결제약이 있다. 이때 자음 앞에서 나타나는 장애음은 음절 종성에서 평파열음화나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겪는다. 그 결과 형성된 'ㄱ, ㄷ, ㅂ'이 비음 앞에 놓이게 되면 후행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뀐다. 이러한 현상은 비음 동화라고 한다. 비음 동화가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막내[망-] 넉넉-하다[넝너카-] 눋-내[눈:-] 입-내[임-] 입-맛[임맏]
나. 국내(國內)[궁-] 읍내(邑內)[음-] 각막(角膜)[강-] 법무(法務)[범-]
다. 먹는[멍는] 얻는[언는] 법(法)만[범만] 떡만[떵만]
라. 제법 많다[제범만타] 곧 나온다[곤나온다]

(2)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비음동화는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비음동화의 적용 양상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한자어에서는 'ㄷ'이 종성에 오지 않기 때문에 'ㄷ'과 비음의 연결을 포함

8) 음운 현상에 관여하는 정보란 이형태(또는 음)의 교체에서 이형태(또는 음)가 실현되는 환경이다(김현, 2003: 226).

하는 단어가 없다.

(2가)는 비음동화가 고유어 단어 내에서 적용되는 예이며 (2나)는 비음동화가 한자어 단어 내에서 적용되는 예다. 또한 비음동화는 단어 내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2다). 한자어가 한국어 문법 체계에 차용된 후에 바로 용언 어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가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없다.

비음동화는 (2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어 사이에어도 일어난다. 비음동화는 하나의 음운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소리의 연쇄 사이에 음운구 경계가 놓여도 일어나는데 소리의 연쇄 사이에 억양구 경계가 놓이면 일어나지 않는다(신지영, 2011: 282).[9] 즉 휴지가 개입하지 않으면 비음 동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비음동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일어나며, 전체적인 적용 양상은 비슷하다.

유음화는 유음인 'ㄹ'에 인접한 'ㄴ'이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이진호, 2014: 215). 'ㄹ'과 'ㄴ'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3) 가. 놀놀-히[-롤-] 칼-날[-랄] 줄-넘기[-럼끼]
나. 길년(吉年)[길련] 실내(室內)[실래] 개별-난방(個別暖房)[개:-란-]
다. 닳는[달른] 뚫는[뚤른] 핥는[할른]

순행적 유음화는 'ㄹ'이 'ㄴ'에 선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가)와 (3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순행적 유음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되며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사이에 모두 적용된다. 순행적 유음화가 발생하는 또 다른 유형은 (3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ㄶ, ㄵ'과 자음군과 'ㄴ'의 연쇄의 경우다.[10] 따라서 순행적 유음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일

9) 분절음들이 만들어내는 단위를 운율 단위 혹은 음운 단위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가장 상위의 운율 단위는 발화이고 가장 하위의 음율 단위는 음절이다. 한국어의 발화는 하나 이상의 억양구로,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음운구로, 음운구는 하나 이상의 음운 단어로, 음운 단어는 하나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신지영, 2011: 230).

10)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유음화 대신 유음 탈락이 일어난다. 즉 'ㄹ'와 'ㄴ'이 사이에 다른 자음이 와야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순행적 유음화는 단어 사이나 합성어에서 적용할 때 내부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순행적 유음화는 'ㄹ'와 'ㄴ' 사이에 다른 요소가 와야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다(김완진, 1972). 이에 대해 이진호(2014: 173-174)에서 자음군 모두 발

어나는데 적용의 양상은 조금 다르다. 그런데 한자어에서는 자음군이 음절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순행적 유음화의 두 번째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음화는 일정한 환경에서 평음을 경음으로 바꾸는 현상이다.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평파열음인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경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경음화 현상 중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이진호, 2014: 177).

(4) 가. 각공이[-꽁-] 각시[-씨] 갑작스레[-짝쓰-] 곧장[-짱]
나. 각각01(各各)[-깍] 백반(白飯)[-빤] 갑자(甲子)[-짜]
다. 입고[입꼬] 닫다[닫따] 작지[작찌]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된다(4가, 나). 한자어에서 'ㄷ'이 음절 종성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자어에서 'ㄷ'와 평음의 결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4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도 일어난다.[11] 그런데 한자어가 한국어 문법 체계에 차용된 후에 바로 용언 어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평파열음으로 끝나는 한자어가 평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없다.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는 합성 명사에서의 경음화라고도 한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만들 때 후행하는 명사의 첫 자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이진호, 2014: 180)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두 요소 A와 B가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가지는 경우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주로 A가 B의 '시간, 장소, 용도, 기원이나 소유주'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질 때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구본관 외, 2015: 73-74). 사이시옷에 의한 경

음된 시기에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이후에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통시적으로 보면 순행적 유음화가 직접 동화였음을 주장하였다.

11) 앉고→안ㄷ고→[안꼬] 핥고→할ㄷ고→[할꼬] (배주채, 1996: 221-222에서 인용)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되는 자음이 음절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음군이 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음군 단순화와 경음화가 적용되는 순서는 문제가 된다. 배주채(1996)에서 제시하는 예를 통해서 경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면 경음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앉고→[안고]).

음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잘 일어난다.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 'ㅣ'나 반모음 'y'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그 사이에 'ㄴ'이 덧나는 현상이다. 이 형상은 상당히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지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이진호, 2014: 205).

[표3] 'ㄴ'첨가 현실 발음 조사 결과

밭일	바딜	반닐	바틸	기타
비율(%)	6.9	83.7	0.4	8.9
솔잎	소립	솔립		
비율(%)	1.4	98.6		
금융	그뮹	금늉	모두가능	
비율(%)	38.6	46.3	15	
담요	다묘	담뇨	기타	
비율(%)	2.6	93.8	3.6	
송별연	송벼련	송별련	기타	
비율(%)	43.3	55.8	0.9	
금요일	그묘일	금뇨일	금묘일	기타
비율(%)	71.2	26.6	0.6	1.6

[표3]는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에서 'ㄴ'첨가에 관한 조사 결과다. 'ㄴ'첨가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되는데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한자어에서는 'ㄴ'첨가가 적용되는 양상과 적용되지 않는 양상이 공존한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축약 현상인 유기음화는 유기음인 'ㅎ'과 장애음 중의 평음 'ㄱ, ㄷ, ㅂ, ㅈ'이 축약되어서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ㅎ'과 장애음의 선후 위치에 따라서 순행적 유기음화와 역행적 유기음화로 나눌 수 있다.

(5) 가. 넉넉-하다[넝너카-] 좁-히다[조피-] 맞-히다01[마치-]
나. 각하(閣下)[가하] 입하(立夏)[이파]
다. 밝히다[발키다] 넓히다[널피다]

역행적 유기음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되는데 적용 양상에 차이가 있다. 한자어와 비교하면 고유어에서 유기음화는 주로 어근과 접미

사의 결합에 적용된다.[12]

위치동화는 선행 음절의 종성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음운 현상이다(이진호, 2014: 192).

(6) 가. 옷감[옫깜]/[옥깜] 꽃길[꼳낄]/[꼭낄]
나. 감기[감:기]/[강기] 문법[문뻡]/[뭄뻡]
(《표준 발음법》 제21항)

(6)애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위치동화는 고유어(6가)와 한자어(6나)에서 모두 적용된다. 또한 위치동화는 일종의 수의적 음운 현상이다.

수의적 음운 현상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Lass(1984)에서 수의적 음운 현상의 개념은 규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Lass, 1984: 24).[13] 일맥상통하게 이진호(2014)에서는 수의적 음운 현상은 음운 현상이 적용 환경을 만족시키는 모두에 적용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견해는 수의적 음운 현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 방식이다.

엄태수(2014)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수의적 음운 현상을 정의해서 수의적 음운 현상의 범위를 좁혔다. 통시적 음운 현상은 수의적 음운 현상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방언, 사회언어학적인 요소의 영향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의성을 화자 내 현상으로 간주하여 동일 화자가 그 발음형을 수의적으로 실현시키는 경우만 수의적 음운 현상으로 인정한다(엄태수, 2014: 158-160).[14]

---

12) 역행적 유기음화의 경우 '닫-히다[다치-], 묻-히다01[무치-]'와 같은 예도 발견된다. 이러한 예들에서 우선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3) 엄태수(2014)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14) 엄태수(2014: 158-160)에서 수의적 음운 현상의 논의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귀납하였다.
가. 통시적 음운변화 현상은 수의적 현상이 아니다.
나. 다른 방언형은 수의적 현상이 아니다.
다. 사회언어학적 조건에 의한 어휘형도 수의적 현상이 아니다.
라. 정서적 의미 등 문법 범주를 제외한 조건에 의한 어휘형도 수의적 현상이 아니다.
마. 문체와 발화 속도 등 화자의 유표적 환경에서의 언어 사용 현상에 한 기술도 수의적 현상이 아니다

반면에 안병섭(2013)에서는 수의적 음운 현상은 규칙의 수의성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표면의 발음형의 선택이라는 주장을 했다. 수의성이 규칙의 필수성에 반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안병섭, 2013: 153-158). 본고에서는 안병섭(2013)의 관점을 받아들이며 넓은 범위에서 언어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의성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의적 음운 현상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치동화는 (7가)의 경우에 속한다.

(7) 가. 적용 여부에 의한 수의성
나. 선택적 적용에 의한 수의성
다. 동일 음운 현상의 다른 적용 결과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음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현실 발음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음 사이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 놓이는 'ㅎ'은 탈락한다('후음탈락(1)').

(8) 가. 괜히[괘니] 흔하다[흐나다]
나. 만화[마놔] 실학[시락] 다행[다앵]
(이진호 2014: 198에서 인용)

김성규·정승철(2005)에서는 후음탈락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ㅎ'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즉 유성음 사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성음화된다. 그런데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ㅎ'은 청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약해져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므로 결국 탈락하게 된다(김성규·정승철, 2005: 243).

이상으로 비음동화, 순행적 유음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와 역행적 유기음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된다. 또한 현실 발음에서 위치동화와 후음탈락(1)도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된다. 한자어가 차용어로서의 특징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 때문에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데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2.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2.1.에서 제시하는 음운 현상들과 달리 고유어 혹은 한자어에서만 적용되는 음운 현상도 많다. 이 절에서 우선 한자어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유어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다루기로 한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평파열음화, 순행적 유기음화, 후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는 고유어에서만 적용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자음 체계에 차이를 보인다. 한자어 자음 체계에서 'ㅃ, ㄸ, ㅉ'이 부재하며 'ㅋ, ㄲ, ㅆ'을 포함하는 형태소가 극히 적다. 또한 표기에 관해서 고유어에서 'ㅉ, ㄸ, ㅃ'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말음이 될 수 있는데 한자어에서 'ㄱ, ㅂ, ㅇ, ㄴ, ㄹ, ㅁ'만 받침이 될 수 있다.

한국어 음절구조제약에 따르면 음절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ㄱ, ㄷ, ㅂ, ㅇ, ㄴ, ㄹ, ㅁ' 7개다. 공명음은 모두 종성에 올 수 있지만 장애음 중에 'ㄱ, ㄷ, ㅂ' 이외에 자음들이 음절화 과정을 거쳐 음절말에 오면 음절구조제약에 어기게 되어 'ㅎ' 이외의 자음들은 평파열음 'ㄱ, ㄷ, ㅂ' 중의 하나로 변한다.[15] 평파열음화는 한국어의 종성에 올 수 없는 장애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이진호, 2014: 165).

(9) 부엌[부억] 닦다[닥따] 옷[옫] 있다[읻따] 갖다[갇따] 꽃[꼳] 겉다[걷따] 앞[압]

(9)와 같이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자음들이 자음 또는 휴지 앞에 처해 있을 때 평파열음화를 겪게 된다. 'ㅋ, ㄲ', 'ㅅ, ㅆ', 과 'ㅂ, ㅃ'은 각각 같은 조음 위치를 공유하는 'ㄱ, ㄷ, ㅂ'으로 변한다. 'ㅈ, ㅊ'과 같은 조음 위치인 평파열음이 없으며 'ㅈ, ㅊ'은 'ㄷ'로 바뀐다.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

15) 'ㅎ'의 평파열음화는 특수하다. 'ㅎ'으로 끝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어말에 'ㅎ'의 발음을 확인할 수 없다. 자음과 이어질 때 비음화(놓는[논는])나 경음화(놓소[노쏘]) 또는 순행적 유기음화(놓고[노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표준 발음법》 제9항에서도 받침 'ㅎ'을 제외하였다. 'ㅎ'과 자음이 연경되는 경우를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원인은 음절의 말자음이 불파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배주채, 1996: 121). 마찰음과 파찰음은 발음 과정에서 마찰이 동반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만 된다. 또한 경음과 유기음의 경우 평음, 경음과 유기음은 폐쇄가 해지되어야 서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방 과정을 생략하면 서로의 차이가 없어진다(신지영, 2011: 268).

평파열음화는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데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자어에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고유어와 비교할 때 'ㄷ'이 부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평파열음화의 입력이 되는 것은 음절말에 나타나는 'ㄱ, ㄷ, ㅂ'을 제외하는 장애음인데 한자어에서 음절말에 이러한 자음들이 표기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자어에서 음절의 말자음이 고유어와 같이 개방 과정을 생략한 채로 발음되지만 평파열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한다는 후음탈락 현상('후음탈락(2)')도 고유어에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후음탈락(2)는 예외 없이 일어난다(이진호, 2014: 198).[16] 후음탈락(2)의 적용 양상은 다음 (10)와 같이 고유어에서만 찾을 수 있다.

(10) 가. 놓아-주다[노---] 놓-이다[노--] 쌓-이다[싸--]
나. 좋+은[조은] 낳+아[나아]

음절화를 진행한 후에 음절말에 자음 두 개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절 종성에 자음 'ㄱ, ㄷ, ㅂ, ㅇ, ㄴ, ㄹ, ㅁ'만 올 수 있는 음절구조 제약을 어기게 된다. 따라서 두 자음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이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른다.

(11) 가. 닭[닥] 흙01[흑]
나. 밝+다[박따] 밝+고[발꼬]

16) 후음탈락(2)는 '용언 어간'과 '문법 형태소'라는 문법 정보가 관여하는 필수적 음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전 자료를 통해서 'ㅎ'과 모음의 연쇄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문법 형태소의 결합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후음탈락(2)는 문법 정보가 관여하는 음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1)은 자음군 'ㄺ'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예다. (11가)는 명사에 적용되는 예인데 항상 'ㄹ'이 탈락하게 된다. (11나)는 자음군 'ㄺ'을 가지는 용언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ㄹ' 대신에 'ㄱ'이 탈락하게 된다. 동일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지만 적용의 결과가 다르다. 자음군 단순화 또한 일종의 수의적 음운 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위에서 제시한 (7다)유형에 속한다.

현실 발음에서는 'ㄺ'뿐만 아니라 다른 자음군 역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양상이 단일하지 않다. 이에 관한 현실 발음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2012)

넓다	넓	널	넙	기타
비율(%)	2.2	80.7	16.9	0.2
밟고	밟	발	밥	기타
비율(%)	2.2	81.3	15.7	0.8
밟는다	밟는다	발른다	밤는다	기타
비율(%)	8.1	22.2	66.5	3.2
읊고	읇	을	읍	기타
비율(%)	11.7	57.1	27.4	3.8
읊는데	읇는다	을른다	음는다	기타
비율(%)	6.7	12.9	75.8	4.6
긁던	긁	글	극	기타
비율(%)	2.8	47.5	47.5	2.2
읽습니다	읽	일	익	기타
비율(%)	6.8	46.4	45.8	1.0
밝게	발	박/바		
비율(%)	94.6	5.4		
훑는	훌른	훈는	기타	
비율(%)	49.1	41.7	9.1	

[표5]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2016)

밟지	발찌	밥찌	기타	구분안됨
비율(%)	66.8	30.6	2.6	0.1
밟고	발꼬	밥꼬	기타	구분안됨
비율(%)	86.6	12.4	0.9	0.1
밟는다	발른다	밤는다	기타	구분안됨
비율(%)	28.1	66.6	5.0	0.3

읊지	을찌	읍찌	기타	구분안됨
비율(%)	38.1	54.7	6.8	0.4
읊고	을꼬	읍꼬	기타	구분안됨
비율(%)	52.0	42.8	4.6	0.6
읊는다	을른다	음는다	기타	구분안됨
비율(%)	16.6	79.0	4.1	0.4
긁지	글찌	극찌	기타	
비율(%)	53.8	45.9	0.2	
긁고	글꼬	극꼬	기타	
비율(%)	87.4	12.3	0.2	
긁는다	글른다	긍는다	구분안됨	
비율(%)	21.8	78.1	0.1	
맑지	말찌	막찌	기타	구분안됨
비율(%)	58.4	40.2	1.2	0.2
맑다	말따	막따	기타	구분안됨
비율(%)	64.2	34.6	1.0	0.2

[표4]와 [표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실 발음의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 양상은 매우 혼란스럽다. 자음군에 동일한 음운 현상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도 적용의 방향과 그에 따른 결과가 단어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단어인데도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매우 복잡한 모습이다(이진호, 2012: 286). 몇 가지 경향성을 정리하자면 우선 'ㄻ, ㅀ, ㄺ'은 장애음 앞에 오면 'ㄹ'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고 'ㄴ'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 앞에 오면 'ㄹ'이 탈락하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ㄺ'이 'ㄱ' 앞에 오면 'ㄱ'이 탈락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현실 발음에서 비율이 아주 높지 않지만 겹받침 'ㄻ, ㅀ[ㄻ], ㄺ' 중의 두 자음을 모두 발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음군이 한자어에서 받침이 될 수 없으므로 자음군 단순화는 한자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순행적 유기음화는 유기음인 'ㅎ'과 'ㅎ'에 후행하는 'ㄱ, ㄷ, ㅂ, ㅈ'이 만나면 유기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12) 가. 놓고-치기[노코--] 그렇지[-러치] 내쌓-기[내:싸키]
나. 많고[만코] 않던[안턴]

순행적 유기음화의 경우 'ㅎ'이 받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유어에서만 적용된다.

구개음화는 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이진호, 2014: 181). 구개음화에서의 구개음은 정확히 말하면 경구개음이다. 구개음화는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음에서 발음되는 'ㅣ'나 'y'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것이다. 또한 입력이 되는 자음에 따라서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17]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ㄷ-구개음화만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13) 가. 디혜>지혜(知慧) 텬하>천하(天下)
나. 굳이[구지] 같이[가치] 밑+이[미치] 밭+이랑[바치랑]
다. 밭-이랑[반니-] 끝-일[끈닐]

ㄷ-구개음화는 역사적으로 적용이 완료되어 버린 경우와 현재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이진호, 2012: 310). (13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부에서 'ㅣ, y' 앞에 놓였던 'ㄷ, ㅌ, ㄸ'은 ㄷ-구개음화가 적용되어 'ㅈ, ㅊ, ㅉ'으로 굳어져 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ㄷ-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13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ㄷ, ㄸ, ㅌ'과 'ㅣ, y'의 연쇄에 지금도 구개음화가 적용된다.(이진호, 2012: 310) 또한 (13나)와 (13다)를 비교해보면 고유어에서는 후행하는 요소가 문법 형태소여야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구개음화는 문법 정보가 관여하는 음운 현상이다.[18] 따라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구개음화는

17) ㄱ-구개음화(기름>지름, 키>치~챙이, 끼다>찌다)는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에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나며 ㅎ-구개음화(힘>심, 효자>소자)는 중앙어에서는 일부 단어에서 일어났고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18) 음운론적인 정보 외에 형태론적이거나 통사론적인 정보도 지니는 규칙을 형태음운규칙이라고도 부른다(이병근·최명옥, 1997: 95). 김현(2003)에서는 교체의 측면과 층위의 측면에서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을 구분하였다. 음 교체의 관점에서 규칙적인 교체와 규칙적이지 않은 교체가 있는데 규칙적인 교체는 음운규칙이다. 형태음운규칙은 규칙적인 교체와 규칙적이지 않은 교체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교체에 대한 서술이다(김현, 2003: 227-231). 또한 음운규칙은 음운 층위 내의 규칙이며 형태음운규칙은 층위나 제약과 무관하게 형태층위와 음운층위를 연결해 주는 층위 간 규칙이다(김현, 2003: 237).

고유어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어에서는 'ㄴ, ㅁ'으로 끝나는 용어 어간 뒤에 평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데, 이를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라고 한다.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의 적용 양상은 다음 (14)과 같다.

(14) 가. 신도(信徒)[신도] 감자[감자] 밤-송이[밤송이]
나. 안+과[안과] 감+도[감도]
다. 안+고[안꼬] 감+더라[감떠라]

(14가)는 단어 내부에서 비음과 평음의 연쇄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고유어와 한자어를 막론하고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4나)와 (14다)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14나)의 경우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14다)의 경우에서 용언과 어미의 결합에서 필수적으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4가)와 (14나)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음과 평음의 연쇄라는 환경은 경음화의 충분한 음성학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한국어 종성 위치에 오는 자음은 불파화를 겪는다. 종성 위치에서 나타나는 비음은 불파화의 영향으로 비음에 조음점 폐쇄가 일어나긴 하지만 [공명성] 자질이 실현되어야 하는 유성자음이기 때문에 종성에서 기류의 폐쇄를 경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음에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시킬 수 없다(변용우, 2016: 35). 따라서 '용언 어간'과 '어미' 같은 문법 정보가 경음화의 실현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자어는 고유어 체계에 차용된 후에 바로 용언 어간이 될 수 없으므로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의 경우 한자어에서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에서만 일어난다.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조사 자료를 통해 현실 발음의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유형(비율%) / 조사 항목	평음형	경음형	격음형	기타
안고(안-고)	안고(0.4%)	안꼬(99.6%)	-	-
신고(신-고)	신고(0.6%)	신꼬(98.8%)	-	(0.6%)
신겨(신기-어)	신겨(25%)	신껴(67.7%)	신켜(6.9%)	(0.4%)

[표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고', '신고'는 모두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평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으로 현실 발음에서도 거의 모두 경음화시킨다. 따라서 현실 발음에서도 용언 어간 뒤의 경음화가 잘 적용된다.

'신겨'의 경우가 특이하다. 《표준 발음법》에서 용언 어간 뒤의 경음화에 대한 설명 제24항에서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경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가 파생 접사이므로 '-기-'를 포함한 전체를 어간이라는 단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경음화에 관여하는 문법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 발음에서 경음화시키는 비율이 반을 넘는다. 이는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에서 보이는 비음과 평음의 연쇄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용언 어간'과 '어미'라는 문법 정보가 경음화의 실현을 허용하며 '어근'과 '접미사'같은 문법 정보가 경음화의 발생을 억제하지만 현실 발화에서 한국어 화자가 먼저 문법 정보를 판별하고 발음을 한다는 과정이 존재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는 '-을' 뒤에 오는 체언류의 초성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이진호, 2014: 179). '-을' 뒤에 오는 체언류를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5) 가. 갈 데[갈떼] 먹을 것[머글껃]
나. 만날 사람[만날싸람]~[만날#사람] 갈 식당[갈씩땅]~[갈#식땅]

(15가)와 같이 의존명사 구성에서는 의존명사의 관형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경음화가 일어난다. (15나)의 경우에 '-을' 뒤에 자립명사가 오기 때문에 경음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을' 뒤에 휴지

를 두고 끊어서 말할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표7]

떠날 동생	동		
	100		
줄 밥	밥	빱	기타
	85.3	14.5	0.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에서 '떠날 동생'과 '줄 밥'을 조사하였는데 두 항목에서 모두 앞도적인 비율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 발음에서 (15나)와 같은 경우에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는 고유어나 한자어 명사류 모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음화 현상은 '-을' 뒤에 고유어나 한자어가 이어질 때 모두 적용된다. 다만 한자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는 의존명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 발음에서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가 한자어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평파열음화, 순행적 유기음화, 후음탈락(2), 자음군단순화는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한자어에서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한자어에서의 구개음화는 이미 통시적 현상으로 재구조화된 것이기에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는 고유어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한자어의 차용어로서의 특징 때문에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도 고유어에만 적용된다. 관형사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의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는 한자어 의존명사가 없기 때문에 고유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2.3.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2.3.에서 고유어에 적용되지 않지만 한자어에 적용되는 음운 현상을 다루기로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고유어에 해당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역행적 유음화와 치

조비음화가 있다.

역행적 유음화는 'ㄹ'에 선행하는 'ㄴ'이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반면 치조비음화는 'ㄹ'을 제외하는 자음 뒤에서 'ㄹ'이 'ㄴ'로 변하는 현상이다(이진호, 2014: 169). 따라서 'ㄴ+ㄹ' 연쇄는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 환경이면서 동시에 치조비음화의 적용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치조비음화는 그 환경에 따라 'ㄴ'을 제외한 비음 뒤[19]와 'ㄷ'을 제외한 파열음 뒤로 나눌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결국 '파열음+유음'의 연쇄가 '비음+치조비음'의 연쇄가 되는 것과 같이 두 자음이 모두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순서가 문제가 된다. 이진호(2008)에서는 '독립(獨立)'류 한자어의 통시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ㄹ'이 먼저 비음화가 일어난 후에 선행하는 파열음이 비음 동화의 적용을 바는 순서로 결론을 내렸다.[20] 적용되는 순서는 다음 (16)와 같다.

(16) 막론[막논→망논] 협력[협녁→혐녁]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는 모두 고유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한자어에서만 일어난다. 왜냐하면 'ㄹ'로 시작하는 고유어 형태소의 수가 매우 적고 고유어에서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ㄹ'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어에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입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만약 고유어에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입력이 될 수 있는 'ㄴ+ㄹ' 연쇄가 존재한다면 이 두 음운 현상은 고유어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적용 환경이 모두 'ㄴ+ㄹ' 연쇄인데 이는 선택적 적용에 의한 수의적 음운 현상이다. 'ㄴ+ㄹ' 연쇄에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중 어떤 현상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원리에 대해

19) 여기서 'ㄴ'을 제외하는 이유는 'ㄴ'와 'ㄹ'의 연쇄에 'ㄹ'의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ㄴ'을 유음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유음화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20) 문헌에서 '독립'류 한자어가 [독닙]으로 발음되는 예의 수가 [동립]으로 발음되는 예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독닙]으로 발음되는 예의 대부분은 16세기부터 등장하며 [동립]으로 발음되는 예의 대부분은 '독립'류 한자어와 관련된 변화가 이미 완료된 19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동립]으로 발음되는 예들은 '독립'류 한자어의 음운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진호, 2008: 205-206). 따라서 '독립'을 [독닙]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고 'ㄹ'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본다.

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7) 갈등(葛藤)[-뜽] 일시01(一時)[-씨] 물질02(物質)[-찔]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ㄹ' 뒤의 경음화는 한자어에서 'ㄹ' 뒤에서 [+전설성] 자질 값을 가진 자음 'ㄷ, ㅅ, ㅈ'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 경음화 현상은 고유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18) 알뜰 벌써 일찍 말썽 불쌍 살짝
(엄태수, 2002: 204)

(18)과 같이 일부 단어들은 공시적으로 단일한 형태소 내부에서 경음화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17)과 (18)는 동일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자 한자어는 도입 초기부터 고유어 형태소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엄태수, 2002: 204).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3장에서 진행한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다시피 한국어 음운 현상 중 한자어에만 적용되는 음운 현상으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ㄹ' 뒤의 경음화가 있다.

2.4. 소결

제2장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모두 적용되는 음운 현상, 고유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을 각각 다루었다.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적용 범위	음운 현상
고유어와 한자어	비음동화
	순행적 유음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ㄴ’ 첨가
	역행적 유기음화
	위치동화
	후음탈락(1)
고유어	평파열음화
	순행적 유기음화
	후음탈락(2)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용언 어간 비음 뒤의 경음화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
한자어	역행적 유음화
	치조비음화
	‘ㄹ’ 뒤의 경음화

[표8]과 같이 고유어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ㄹ’ 뒤의 경음화,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가 있다. 또한 《표준 발음법》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 이러한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서 적용되는 양상 및 원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3.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3.1.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제2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고유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한자어에서만 나타나는 음운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이다. 치조비음화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ㄴ'로 변하는 음운 현상이다. 'ㄹ' 앞에 자음이 'ㄴ'일 때 다음과 같이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19) 생산량(生産量)[생산냥] 계산력(計算力)[계산녁]

역행적 유음화는 'ㄹ'에 선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즉 'ㄴ+ㄹ' 연쇄가 'ㄹ+ㄹ'로 변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 신라(新羅)[실라] 논리(論理)[놀리] 분류(分類)[불류] 원래(原來)[월래]

(19), (20)을 통해 'ㄴ' 뒤 'ㄹ'의 치조비음화(이하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 환경이 모두 한자어의 'ㄴ+ㄹ' 연쇄로 통일된 것을 알 수 있다. 'ㄴ+ㄹ' 사이에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원인은 보통 한국어에서 'ㄴ'와 'ㄹ'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음절연결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음운론적 제약은 귀납적인 내용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공명도 제약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있다. 공명도 제약이란 음절 경계를 사이에 둔 두 자음 중 선행 자음의 공명도가 후행하는 자음의 공명도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다. 공명도 위계에서 유음인 'ㄹ'이 비음인 'ㄴ'보다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에[21] 'ㄴ+ㄹ' 연쇄가 공명도 제약에 어기

21) Clements(1990: 292~298)에서 양분적 자질을 통해서 공명도의 위계를 제시하였다(김현 2011: 145에서 인용).

	장애음	비음	유음	활음	모음

게 된다.

김현(2011: 148)에서는 'ㄴ'의 미파 상태에서 'ㄹ'의 외파에 이르는 조음 과정은 정상 속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명도의 차이가 아니라 미파음과 탄설음의 [지속성] 차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환(2013: 65)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음소구조조건을 통해서 역행적 유음화와 'ㄹ'의 비음화를 설명하고 있다.

(21) ① 치조비음화

+son		+son		+son
−con		**+cont**		**+cont**
+nasal	→	**−nasal**		**−nasal**
−grave		−grave		−grave
0high		0high		0hjgh

② 역행적 유음화

+son		+son		+son
−con		**+cont**		**+cont**
+nasal	→	**−nasal**		**−nasal**
−grave		−grave		−grave
0high		0high		0hjgh

(21)을 보면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cont]와 [nasal] 값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ㄹ'을 제외하는 자음 즉 비음이 아닌 자음 뒤에서도 'ㄹ'이 모두 'ㄴ'으로 변하기 때문에 [nasal]에 의한 비음화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역행적 유음화의 경우 [−nasal]에 의한 동화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nasal]로 설명하려면

[성절성]	−	−	−	−	+
[모성]	−	−	−	+	+
[근접성]	−	−	+	+	+
[공명성]	−	+	+	+	+
공명음 위계	0	1	2	3	4

무리가 따르다. 따라서 [cont]의 동화로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영환: 2013: 66-68).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ㄴ+ㄹ' 연쇄에 치조비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원인은 'ㄴ'과 'ㄹ'의 조음 상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조음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비음 'ㄴ'와 유음 'ㄹ'는 서로 다른 통로로 기류를 방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성에 위치하는 'ㄴ'는 '폐쇄-지속-파열' 과정에서의 '파열' 단계를 생략하고 발음하는 반면에 탄설음인 'ㄹ'는 구강 개방 상태에서 설단이 치조에 매우 빨리 닿았다가 빼는 방식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조음 상의 모순 때문에 'ㄴ'와 'ㄹ'의 연쇄를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용이하게 발음하기 위해 치조비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손일권, 2015: 133-134).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 환경이 같으므로 《표준 발음법》에서도 같은 조항 아래서 이 두 가지 음운 현상을 다루고 있다.[22] 그런데 《표준 발음법》 제20항에서 치조비음화를 역행적 유음화의 예외로 제시만 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제시한 예를 통해서 치조비음화는 주로 3음절어에서 나타난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준 발음을 통해서 'ㄴ+ㄹ' 연쇄에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경향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ㄴ+ㄹ' 연쇄를 가지는 단어는 주로 2음절어와 3음절어로 나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2음절어의 'ㄴ+ㄹ' 연쇄를 모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어 [ㄹㄹ]로 발음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3음절어는 구조[23]에 따라, 'ㄴ+ㄹ'의 위치에 따라 다시 다

---

22)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2) 칼날[칼랄]물난리[물랄리]줄넘기[줄럼끼]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ㄾ', 'ㅀ'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닳는[달른] 뚫는[뚤른] 핥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딴녁] 공권력[공꿘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붠뇨]
구근류[구근뉴]

23) 3음절어에 대한 구조 분석은 표제어에서 표시되는 '-' 기호를 참고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르면 직접 구성 성분(IC) 분석의 결과는 '-'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구성 성분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단어이거나 접사일 경우 그 경계

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2) 가. ‘ㄴ+ㄹ’ 연쇄를 포함하는 2음절어 + 1음절어
권력-가(權力家)[궐력까] 관람-객(觀覽客)[괄람객]
나. 1음절어 +’ㄴ+ㄹ’ 연쇄를 포함하는 2음절어
골-연령(骨年齡)[고렬령] 불-편리(不便利)[불펼리]
다. ‘ㄴ’로 끝나는 2음절어 + ‘ㄹ’로 시작하는 1음절어
강연-료(講演料)[강:연뇨] 공권-력(公權力)[공꿘녁]
라. ‘ㄴ’로 끝나는 1음절어 + ‘ㄹ’로 시작하는 2음절어
마. ‘-’ 표시가 없는 3음절어
목건련(目犍連)[목껄련]

(22가)와 (22나)의 경우는 ‘ㄴ+ㄹ’ 연쇄가 2음절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음절어의 경우에 속하지 않고 2음절어의 경우로 보아 일관하게 모두 [ㄹㄹ]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ㄴ+ㄹ’ 연쇄를 가지는 3음절어는 (22다), (22라)와 (22마)뿐이다. (22다)는 ‘ㄴ’이 2음절 단어의 끝 음절의 종성에 위치하며 ‘ㄹ’이 1음절 접미사적 요소의 초성에 위치한다. 이 유형에 속해 있는 단어들은 [ㄹㄹ] 발음과 [ㄴㄴ] 발음이 모두 나타난다. (22라)는 ‘ㄴ’으로 끝나는 1음절 접두사적 요소와 ‘ㄹ’로 시작하는 2음절 단어의 결합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 ‘ㄹ’로 시작하는 단어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단모음 앞에서 ‘ㄴ’로 변하거나 이중모음 앞에서 ‘ㄴ’로 변한 후에 탈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22마)는 ‘-’ 표기가 없는 3음절어의 예이다. 이 유형에 속해 있는 단어는 모두 [ㄹㄹ]로 발음된다. 여기서 (22나) 유형에 중점을 두고 두 유형에 속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22다) 유형에 속하는 단어 354개를 수집하였고[24] (22마) 유형에 속하는 단어 7개를 수집하였다. (22다) 유형에 속하는 단어의 경우 [ㄹㄹ] 발음으로 나타는 단어가 47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단어는 [ㄴㄴ]으로 발음된다.

에 붙임표를 한다. 양쪽 모두 국어 문법 체계의 한 단위가 아닌 경우는 붙임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세 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가 동등한 지위를 가질 경우에 원칙적으로 붙침표를 하지 않는다.

24) [부록1] 참조.

정리하자면 표준 발음에서는 2음절어에 모두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 (22다)와 (22마) 유형에 속하는 3음절 단어들의 경우에 대부분은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 그런데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많은 예외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음절수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음절어에서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3음절어가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3음절어, 특히 (22다) 유형의 3음절어의 경우에 대해 많이 다루었다. 몇몇 주요 선행 연구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단어 경계에서 출발하는 관점이 있다(곽동기, 1992 등) 예를 들어 '음운론(音韻論)'같은 경우에 '음운'과 '론' 사이에 단어 경계가 존재한다.

(23) 맛있는#라면 → 맛있는 라면~맛있는 나면 *맛있늘 라면
가지고 있던#라이터 → 가지고 있던 라이터~가지고 있던 나이터 *가지고 있덜 라이터

(이진호, 1998: 101에서 인용)

(23)의 예는 'ㄴ'와 'ㄹ' 사이에 단어 경계가 있는 경우다. 격식체 발화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휴지를 개입하면 발음이 [ㄴㄹ]로 유지하며 일상적으로 빠른 발화에서 [ㄴㄴ]으로 들린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ㄹㄹ] 발음으로 변하지 않는다(이진호, 1998: 101). 이를 통해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 범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역행적 유음화는 단어 내에만 적용되지만 치조비음화는 단어 경계를 넘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운'과 '론' 사이에 단어 경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지 못하며 치조비음화가 적용되어 [음운논]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론'은 하나의 단어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에[25] '음운'과 '론' 사이에 단어 경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25) '로(路), 력(力), 론(論)' 등 한자는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는 일이 없다. '형태론, 의미론' 등 단어에서 보여주듯이 'ㄹ'이 'ㄴ'로 변하지 않는 것은 단어 경계가 빨리 사라져 버렸거나 단어의 재구조화가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로(路), 력(力), 론(論)' 등 한자가 단어가 아니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이진호,

든다.

형태론적 조건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려는 관점도 있다. 신지영(2011: 304-307)에서 'ㄴ+ㄹ' 연쇄는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기도 하고 치조비음화가 적용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ㄴ+ㄹ' 연쇄 사이에 두고 관찰되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조각이 모두 자립성을 갖지 못하면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다. 반대로 선행 요소 혹은 후행 요소 중에 한 쪽이라도 자립성이 있으면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

(24) 가. 대연-력(大衍曆)[대열력] 시헌-력(時憲曆)[시헐력]
나. 사분-력(四分曆)[사분녁] 자연-력(自然曆)[자연녁]

(24가)와 (24나)는 모두 2음절어와 '력(曆)[26]'의 결합이다. (24가)의 경우 '대연(大衍)'과 '시헌(時憲)'은 자립성이 없으므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21나)의 경우 '사분(四分)'과 '자연(自然)'은 자립성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3음절어에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처럼 신지영(2011)의 관점에 부합하는 예도 많이 존재하지만, 이에 반하는 예도 존재한다. 2음절어와 '로(爐)[27]'가 결합하는 예들 중에 유일하게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는 '신선-로(神仙爐)'인데 '신선(神仙)'은 자립성을 가지는 단어이다. 이런 단어가 예외라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진호(2014: 175-176)에서는 역행적 유음화에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며 'ㄴ+ㄹ' 연쇄에 역행적 유음화 대신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두 가지 음운 현상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리 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쉽게 분리가 가능한 단어들은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았다. 그런데 '분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다소 추상적이다.

1998: 105).

26) -력03(曆)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달력'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7) 로02 (爐) '노13'의 북한어.
노13(爐) 「명사」 「1」 증기 기관과 같은 가마에서 연료를 태우는 부분. 「2」 가공할 원료를 넣고 열을 가하여 녹이거나 굽거나 하는 시설. 용광로, 원자로, 전기로, 반사로(反射爐), 해탄로(骸炭爐) 따위가 있다. 「3」 불을 피우거나 숯불 따위를 담아 두어, 물건을 데우거나 방 안의 공기를 덥게 하는 데 쓰는 장치.

배주채(2013)에서는 단어의 조어 구조에서 출발하여 한문 문법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며 한국어 문법에 의해 형성되는 단어에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대관-령(大關嶺)[대괄령], 신선-로(神仙爐)[신설로]' 등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모든 한자어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단어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일부 단어에 변화가 생기고 일부 단어가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배주채(2013)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는 김창섭(2001)의 2자어(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며, 3자어(고유어 문법에 의해 형성)에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고 본다. 즉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 여부에 따라 역행적 유음화 혹은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시적인 관점에서 예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표준 발음에서 보이는 음운 현상의 적용 경향성에 잘 부합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음절어는 2자어일 수도 있고 3자어 일 수도 있으며 3음절어도 마찬가지다.[28]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적용이 음절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조어 구조에 의해서 역행적 유음화나 'ㄹ'의 비음화의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이진호(2014)의 '분리 가능성' 관점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분리 가능성' 관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29] 2자어는 한문 문법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으로 분석이 어렵다. 즉 분리 가능성이 낮다. 2자어의 구성 성분인 1자들은 문법 기능이 명세되지 않는

28) 용법에 따라 자(字)를 분류하자면, 2자어와 같은 기본인 구성에 쓰이는 일반인 자와 마치 접두사나 접미사처럼 한자어를 작용 영역으로 하여 쓰이는 특별한 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일반인 자'를 원사 (元辭)라고 한다. '특별한 자'는 '차사(次辭)'라고 부른다. 3자어류 단어를 차사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김창섭, 2013: 170).

29) 조어 구조에 의해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적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선행 연구에서 통시적으로 두 음운 현상을 논의하는 내용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역행적 유음화는 16세기부터 존재하고 'ㄹ'의 비음화는 주로 17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더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한문 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2자어들에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내려오는 단어들은 이전에 적용되었던 역행적 유음화의 모습만을 보게 된다(이진호, 1998: 113).

의미와 음형식의 결합체로서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김창섭, 2001: 181-182). 게다가 2자어의 구성 성분인 1자들 중에는 의미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포도(葡萄), 어차피(於此彼) 등]. 노명희(1990: 27-30)에서도 2자어에서의 1자들은 기능적 단위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30] 반대로 3자어들은 한국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하며 분리 가능성이 높다. 같은 한자이어도 2자어에서는 문법 기능을 나타낼 수 없지만 3자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

3.1.1. 표준 발음 자료에 대한 분석

'ㄴ+ㄹ' 연쇄를 포함하는 단어들의 표준 발음은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실제 한국어 화자들의 사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 발음을 통해 적어도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위에서 제시한 조어 구조와 연결되는 관점을 일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예외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궁구할 것이다.

2음절로 되어 있는 3자어의 수가 2자어에 비해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ㄴ+ㄹ' 연쇄를 가지는 경우는 '면류(麵類), 균류(菌類)'[31] 등밖에 없다. 게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2음절어에 모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에서 2음절어 중에 2자어와 3자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 반면 3음절어는 대부분 비음화가 적용되며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도 존재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는 것으로 현상에 대한 설명 방법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

(25) -련(蓮)

---

30) 한국어 화자를 한문 교육을 받은 한문 문법과 한국어 문법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화자와 한문 지식이 별로 없고 한국어 문법만 운용하는 화자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한문 지식을 파악하고 있는 한국어 화자들은 2자어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김창섭(2001: 182)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고유어 문법의 것과 한문 문법의 것을 구별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자어를 형성하는데 쓰이는 한문 문법 및 한자를 다 알아도 화자가 그 지식을 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31) 배주채(2013)의 관점에 따르면 '면류(麵類), 균류(菌類)'의 발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멸류], [귤류]'가 아니라 '[면뉴], [균뉴]'여야 한다.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무한-련(無限蓮), 서번-련(西蕃蓮)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Ø

(26) -류(柳)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삼춘-류(三春柳)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Ø

(25)와 (26)의 예에 모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두 가지 요소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우선 '-련(蓮)'과 '-류(柳)'의 의미에서 접사적 성격을 찾기 어렵다.[32] 그들의 의미는 2자어에서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이다.[33] 또한 '서번'은 단어가 아니므로 '서번련'을 3자어로 보기가 어렵다. '무한'과 '삼춘'은 독립적인 명사로 쓰이지만 '무한련, 삼촌류'는 모두 식물의 명칭이므로 고유명사로 굳어져 더 이상 분석되기 어렵다. 따라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27) -령(嶺)[34]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검산-령(劍山嶺), 대간-령(大間嶺), 대관-령(大關嶺), 마천-령(摩天嶺), 백간-령(白澗嶺), 부전-령(赴戰嶺), 이판-령(伊板嶺)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Ø

(28) -루(樓)[35]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강선-루(降仙樓), 광한-루(廣寒樓), 마천-루(摩天樓), 수문-루(水門樓)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Ø

(29) -릉(陵)

---

32) 모든 '1+2' 혹은 '2+1'로 부석이 가능한 한자어를 다 3자어 문법에 속하다고 할 수 없다. 그 1자 요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한 계열의 한자어들을 만들어 내야 이것을 3자어 문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김창섭, 1999: 12) 따라서 생산성이 매우 낮은 1자 요소 '-류(柳), -련(蓮)' 등으로 구성되는 '2+1' 구성의 단어를 3자어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 수 있다.

33) 3자어의 1자어 요소가 일률적으로 접사성 또는 준접사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3자어의 특징은 1자 요소의 접사성 또는 준접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 문법에 의한 분석에서 그 구성요소가 문법적으로 취급된다는 데 있다.

34) -령09(嶺) 「접사」 재나 산마루의 이름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35) -루06(樓) 「접사」 ((일부 고유 명사 뒤에 붙어))'다락집', '요릿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건원-릉(健元陵)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Ø

위의 예들 중에 '-령(嶺)'을 포함하는 단어들은 모두 지명이며 '건원-릉(健元陵)'과 '-루(樓)'를 포함하는 단어들은 '마천루(摩天樓)'를 제외하면 모두 고적의 이름이다. 지명과 고적 이름도 위에 식물 명칭과 같이 고유명사로 굳어지므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마천-루(摩天樓)'[36]는 3자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말뭉치 검색을 통해서 '마천(摩天)'은 독립적으로 안 쓰이며 지명 '마천-령(摩天嶺)'을 제외하면 '마천-루(摩天樓)'에서만 사용된다.[37] '마천-루(摩天樓)'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또한 '-랑(郞), -력(曆), -령(領), -룡(龍)'의 예들도 일맥상통하게 해석할 수 있다.

(30) -랑(郞)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궁문-랑(宮門郞), 복근-랑(服勤郞), 봉훈-랑(奉訓郞),비변-랑(備邊郞), 승훈-랑(承訓郞), 장춘-랑(長春郞), 전근-랑(展勤郞),조산-랑(朝散郞), 종순-랑(從順郞), 집순-랑(執順郞), 통선-랑(通善郞)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장원-랑(壯元郞)
(31) -력(曆)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대연-력(大衍曆), 시헌-력(時憲曆)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사분-력(四分曆), 자연-력(自然曆)
(32) -령(領)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금군-령(禁軍領), 상전-령(相傳領), 총괄-령(總管領/摠管領)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Ø

36) 명사」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 ≒마천각.
37)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말뭉치에서 '마천'을 검색하면 272건의 결과가 나온다. 사마천(司馬遷)과 지명 '마천' 등에 관한 결과를 제외하면 마천(摩天)의 결과는 4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는 '마천령'이며 나머지 32개는 모두 '마천루'이다.

(33) -룡(龍)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공손-룡(公孫龍), 과산-룡(過山龍)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우선-룡(右旋龍), 좌선-룡(左旋龍), 폭군-룡(暴君龍)

(34) -뢰(雷)[38]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진천-뢰(震天雷)[39]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전선-뢰(前線雷), 화산-뢰(火山雷)

'-랑(郞)'의 경우에 '궁문-랑(宮門郞), 복근-랑(服勤郞)' 등 역사상에 존재했던 벼슬이나 품계의 명칭, '대연-력(大衍曆), 시헌-력(時憲曆)'과 '-령(領)'의 예 중에 '금군-령(禁軍領), 총괄-령(總管領/摠管領)'과 같은 역사상에 쓰였던 역법의 이름, '-룡(龍)'의 예 중에 사람 이름인 '공손-룡(公孫龍)'과 식물 명칭인 '과산-룡(過山龍)'에는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다. 또한 '진천-뢰(震天雷)'의 경우 '하늘을 진동시키는 뇌'의 의미가 소멸되어 일종의 대포의 이름으로 굳어진다.

(35) -령(令)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종인-령(宗人令), 해관-령(奚官令)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동원-령(動員令), 두문-령(杜門令), 선언-령(宣言令), 처분-령(處分令), 퇴군-령(退軍令), 행군-령(行軍令), 회군-령(回軍令)

'-령(令)'의 예에서 고대의 벼슬 명칭인 '종인-령(宗人令), 해관-령(奚官令)'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며 2자어와 '무엇에 대한 명령 또는 법률'의 의미를 가지는 1자 접미적 요소 '-령(令)'가 결합하는 예에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

(36) -로(爐)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신선-로(神仙爐)

---

38) 뇌06(雷) 「명사」 『전기』 대기 가운데에서 구름과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 방전.

39) 「명사」 예전에 쓰던 대포의 하나. 하늘을 진동하는 소리를 낸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른다.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박산-로(博山爐), 분은-로(分銀爐),
소둔-로(燒鈍爐), 용선-로(鎔銑爐),
전환-로(轉換爐), 침탄-로(浸炭爐),
해탄-로(骸炭爐), 혼선-로(混銑爐),
회전-로(回轉爐)

'신선-로(神仙爐)'는 '신선의 노'라는 뜻이 아니며 '상 위에 놓고 음식을 끓이는 그릇'이라는 뜻이다. '신선-로(神仙爐)'의 '-로(爐)' '분은-로(分銀爐), 소둔-로(燒鈍爐)' 등의 '-로(爐)'[40]와 같은 의미로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신선-로(神仙爐)'는 고유어 문법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지만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37) -리(里)
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구만-리(九萬里), 천만-리(千萬里)
나.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Ø

거리의 단위 '-리(里)'는 의존명사이므로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구만-리(九萬里)'나 '천만-리(千萬里)'는 쉽게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의 '구만-리(九萬里)와 '천만-리(千萬里)' 원래의 의미인 실제 거리 구만 리와 천만 리를 넘어서 '아주 먼 거리'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는다.

(38)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 청산-리(靑山裏)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예: 절찬-리(絶讚裡)

'-리(裡)'와 '-리(裏)'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41] '절찬-리(絶讚裡)'와 '청산-리(靑山裏)'에 각각 다른 음운 현상이 적용된다. 말뭉치 검색을 통해서 '절찬-리(絶讚裡)'의 사용 빈도가 극히 낮고 '절찬(絶讚)'의 사용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립적인 명사로 많이 쓰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42] 따라서 자립성이 강하기 때문

40) 가공할 원료를 넣고 열을 가하여 녹이거나 굽거나 하는 시설.
41) -리19(裡/裏) 「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가운데' 또는 '속'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에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말뭉치에서 '푸른 산 속'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청산-리(靑山裏)'의 결과가 극히 적으며 모두 황진이의 작품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ㅣ야>에서 나타나는 경우만이다[43]. 따라서 '청산-리(靑山裏)' 문학 작품의 이름으로 굳어져 더 이상 문법 구조를 분석하지 않는다고 본다.

(22마) 유형의 '-' 표기가 없는 단어들은 3음절어이지만 3자어가 아니다. 따라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표준 발음에서도 이에 맞는 경향이 보인다.

[표9]

고산리	高山梨	ㄹㄹ	식물
목건련	目犍連	ㄹㄹ	불교
여민락	與民樂	ㄹㄹ	음악
여인락	與人樂	ㄹㄹ	
일천제	一闡提	ㄹㄹ	불교
전춘라	翦春羅	ㄹㄹ	식물
타전로	打箭爐	ㄹㄹ	지명

이상으로 표준 발음의 예들을 통해서 2자어에는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며 3자어에는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는 관점이 표준 발음에서 보이는 두 음운 현상의 적용의 경향성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이 되지만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예들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보통 한 덩어리의 단어로 굳어져서 더 이상 문법 구조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치조비음화 대신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3.1.2. 현실 발음 자료에 대한 분석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 현실 발음에서 'ㄴ+ㄹ' 연쇄의 발음이 표준 발음과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가 모두 적

42) 말뭉치에서 '절찬-리(絕讚裡)'의 검색 결과가 6건뿐이며 '절찬(絶讚)'의 결과 29건 중에 21건에서 '절찬(絶讚)'이 자립 명사로 쓰인다.

43) 말뭉치에서 '청산리'를 검색하면 '청산-리(靑山裏)'의 결과는 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청산리독립전쟁'으로 알려진 지명 '청산리(靑山里)'의 결과다. 이 또한 지명이므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다고 본다.

용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현실 발음의 예를 다음 [표10]과 같이 정리하여 보인다.

[표10]

	단어	현실 발음	출처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	공권-력(公權力)	공꿘녁~공꿜력	이진호(2014)
	상견-례(相見禮)	상견녜~상결례	김경아(2004); 고연도, 엄홍준(2017)
	선릉(宣陵)	선능	김지영(2011); 배주채(2016)
	음운-론(音韻論)	으문논~으물론	노명희(1997); 김유범(2016)
	공권-력(公權力)	공꿘녁~공꿜력	이진호(2014)
사전에 미등재되는 단어	단선로(單線路)	단선노~단설로	이진호(1998)
	이만리(二萬里)	이만니~이말리	이진호(1998)
	보문로(寶文路)	보문노~보물로	이진호(1998)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와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 'ㄴ+ㄹ' 연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ㄴ+ㄹ' 연쇄의 현실 발음을 다음 [표11]과 같이 정리한다.

[표11]

	조사 항목	ㄴㄴ(%)	ㄹㄹ(%)
2012	난로	2.4	94.6
	관례	13.1	83.2
	춘란	28.4	66.9
	선릉	61.4	28.9
	광한루	13.7	61.4
	공권력	55.1	35.0
	결단력	85.3	8.7
2016	한랭	48.5	50.4
	상견례	83.8	15.8
	공권력	84.0	15.0

우선 현실 발음이 표준 발음과 다른 단어들 중에 많이 언급되는 예는 '선릉(宣陵)'이다. 표준 발음은 [설릉]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이 [선능]으로 많이 발음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릉

(陵)'이 이어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 '태릉(泰陵)'도 [태능]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선릉(宣陵)'을 [선능]으로 발음되는 원인은 'ㄴ+ㄹ' 연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릉(陵)' 자체의 특수성 때문인 듯하다. '릉(陵)'이 자립성이 강하므로 기저형의 재구조화까지 일러서 '릉(陵)'이 항상 [능]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2음절어+1음절어'구조의 많은 단어에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가 모두 일어난다고 한다.[44]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세대 차이 때문에 발음을 달리 하는 것이다. 송기중(1992)에서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 [ㄴㄴ] 발음이 확고하다고 하였다.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현실 발음 조사 자료들에서도 연령층에 따른 발음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령층 간의 큰 차이가 안 보이는 항목('공권력')도 있고 젊은 세대에 [ㄹㄹ] 발음이 많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치조비음화가 많이 적용되는 항목('상견례')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ㄴ+ㄹ' 연쇄의 발음은 세대별로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2). 따라서 송기중(1992)와 최신 현실 발음 조사에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연령층 분포가 상반대로 보인다. 그런데 송기중(1992)에서 지칭하는 젊은 세대는 20년이 지난 최근에 현실 발음 조사에서의 높은 세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연령층 분포는 노년층이 치조비음화를 택하고 젊은 세대는 역행적 유음화를 택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변화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의 노년층 화자는 한문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이므로 한문 지식을 아는 화자다. 따라서 한자어를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하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ㄴㄴ] 발음이 더 많이 나타난다.[45]

---

44)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327)에서 조사 결과 'ㄴ+ㄹ' 연쇄의 발음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45) 김수영(2015)에서 '원룸, 팬레터' 등 외래어 10개와 '청산리, 신선로' 등 한자어 1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발음 조사 결과의 연령층 분포는 다음과 같다.

Realized form / Group	ll	nn	nl

둘째 조어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권력(公權力)’과 ‘단선로(單線路)’가 이러한 경우이다. ‘공권력(公權力)’은 ‘공권+력’으로 나눌 수 있고 ‘공+권력’으로도 나눌 수 있다. ‘단선로(單線路)’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단어이지만 마찬가지로 ‘단선+로’ 또는 ‘단+선로’로 나눌 수 있다. ‘공+권력’이나 ‘단+선로’로 구조 분석을 하면 ‘ㄴ+ㄹ’ 연쇄가 3자어가 아닌 2자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다. 반대로 ‘공권+력’ 또는 ‘단선+로’로 구조 분석을 하면 3자어에서 나타나는 ‘ㄴ+ㄹ’ 연쇄로 ‘ㄹ’의 비음화가 적용된다. 따라서 현실 발음에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단어들에는 [ㄴㄴ] 발음과 [ㄹㄹ] 발음이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예로 ‘일산량(日産量)(일산+량, 일+산량), 열전력(熱電力)(열전+력, 열+전력)’ 등을 더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분석이 모두 가능해도, 그 구성 성분 간의 자립성이나 사용 빈도 등의 차이가 존재하면 발음의 비율이 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보문로, 광한루’와 같은 경우, 지명 등 고유명사이기에 표준 발음의 경향성을 따르면 [ㄹㄹ]로 발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발음에서 [ㄴㄴ] 발음도 나타나는 원인은 고유어 문법에 따른 구조 분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문 지식이 있는 화자들은 그대로 고유어 문법에 따라서 구조 분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상으로 한자어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을 각각 확인하였다. ‘ㄴ+ㄹ’ 연쇄에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중에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화자의 ‘ㄴ+ㄹ’ 연쇄를 포함하는 단어의 조어 구조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고 본다. 2자어 즉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이 안 되는 단어에는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며, 3자어

Teenagers	45.3	22.1	32.6
Twenties	50.5	39.4	10.1
Fifties	28	47	25

김수영(2015)에시 제시한 조사 결과 역시 높은 연령층 화자는 [ㄴㄴ] 발음을 선호하고 젊은 연령층 화자는 [ㄹㄹ] 발음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한자어와 외래어를 비교하면 한자어를 읽을 때 [ㄹㄹ] 발음을 선호하는데 외래어를 읽을 때 [ㄴㄴ] 발음과 [ㄴㄹ] 발음을 더 선호한다.

즉 고유어 문법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한 단어에는 치조비음화가 적용된다. 현실 발음에서 [ㄴㄴ] 발음과 [ㄹㄹ] 발음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층에 따라 또는 한문 지식 수준에 따라 분석 능력이 다르고, 이로 인해 선택하는 음운현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 화자에 따라 고유어 문법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조어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39) 가. 看来(kàn lái) 灿烂(càn làn)
나. sunlight['sʌnlaɪt] inline[ínlàin]

마지막으로 'ㄴ+ㄹ' 연쇄에 음운 현상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ㄴㄹ] 발음은 한국어 음운론에서 적절한 형식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들에서 조선족 한국어 화자나 한국 중·고등학생 중에 'ㄴ+ㄹ' 연쇄를 그대로 [ㄴㄹ]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다(김수영, 2015). 이는 중국어와 영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35)에서 보이는 것처럼 'n+l'의 연쇄는 그대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화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ㄴ'과 'ㄹ'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래 한국어에서는 'ㄴ'과 'ㄹ'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았었지만, [ㄴㄹ] 발음 역시 이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와 같이 경쟁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3.2.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은 ①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② 용언 어간 뒤의 경음화. ③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 ④ '-을 '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 ⑤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비어두 위치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들은 규정되어 있는 경음화의 환경에서는 물론 다른 모든 자음과 모음 뒤에서도 경음화된다.[46] '과(科)'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0) 가. 내과01(內科)[내:꽈] 두과(痘科)[-꽈]
국어-과(國語科)[--꽈] 국화-과(菊花科)[구콰꽈]
나. 견과01(犬科)[-꽈] 공과01(工科)[-꽈]
단향-과(檀香科)[--꽈] 두견-과(杜鵑科)[--꽈]
다. 실과02(實科)[-꽈] 팔과(八科)[-꽈] 소철-과(蘇鐵科)[--꽈]

'과(科)'는 이러한 경음화가 일어나는 한자 형태소 중에 대표적인 예다. 위에 예를 보면 (36가)의 경우 경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아닌 모음 뒤에 '과(科)'가 [꽈]로 발음된다. (36나)는 '과(科)'가 비음 뒤에 경음으로 발음되는 예들이다. 용언 어간말이 아닌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일반적이지 않다. (36다)는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의 환경과 일치하지만 'ㄱ'은 'ㄹ' 뒤의 경음화의 입력이 될 수 없다.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의 경우 'ㄹ' 뒤에 'ㄷ, ㅅ, ㅈ'만이 경음화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36)의 예들이 속할 수 있는 경음화 현상은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현상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이강동 1976, 임홍빈, 1981[47]).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배제하고 송기중(1992) 및 안소진(2005)의 관점을 바탕으로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 원인은 위에 '과(科)'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어들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단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닌 경우가 많다. 사이시옷 현상은 합성어에서 일어나므로 이러한 현상은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특정한 한자 요소가 경음으로 실현이 되는 공통적이 음운론적 조건이나 한자어의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 또는 한자어의 구조를 밝히기 어렵고 규칙화하기 어렵다(안소진, 2005: 82). 이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러한 경음화는 선행 요소와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고 경음화되는 1자 요소 자체의 음운 변이 현상으로 관찰된다(송기중, 1992: 20).

---

46) 이는 송기중(1992:20)에서 제2류 경음화에 대한 정의이다. 제1류 경음화는 음운론적인 경음화이다. 한국어에서의 일반적인 음운 변화의 규칙에 따른다. 제2류 경음화는 형태소 단위의 경음화이다. 제1류 경음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자음과 모음 뒤에서 경음화가 되는 현상이다.

47) 여기서 경음화되는 특정 한자 형태소들은 [+t-epenth] 자질을 가지는 요소 또는 'ㅅ전치명사'라고 한다(이강훈, 1982 등).

3.2.1. 표준 발음 자료에 대한 분석

안소진(2005)에서 ‘가(價)’와 ‘가(家)’의 예를 들면서 서로를 비교하였다.

(41) 가. 고가09(高價)[-까], 정가05(定價)[정:까], 물가02(物價)[-까]
도매-가(都賣價)[--까], 공정-가(公定價)[--까], 낙찰-가(落札價)[--까]
나. 화가03(畫家)[화:-], 검가01(劍家)[검:-], 필가02(筆家)
역사-가(歷史家)[-싸-], 비평-가(批評家)[비:--],
미술-가(美術家)[미:--]

(41가)는 ‘값 가(價)’로 끝나는 단어들의 예이고 (41나)는 ‘집 가(家)’로 끝나는 단어들의 예이다. 동일한 ‘모음 뒤, 비음 뒤, ‘ㄹ’ 뒤’라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가(價)’만 경음으로 발음되고 ‘가(家)’는 그대로 평음으로 발음된다. 한국어에서 같은 음절이지만 대응하는 한자가 달라서 발음이 달라진다. 이러한 경음 실현 양상의 차이 때문에 ‘감정-가02(鑑定家)’와 ‘감정-가03(鑑定價)[--까]’와 같이 경음 실현 여부를 통해서 단어를 변별할 수 있게 된다(안소진, 2005: 76).

한자 형태소가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은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한자 형태소가 경음으로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또는 ‘ㄹ’ 뒤의 경음화와 같이 음운론적 환경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모든 한자 형태소의 경우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 때문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특히 송기중(1992)와 배주채(2013)에서 제시하는 예를 중심으로 비어두 위치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닌데도 경음으로 발음되는 한자어 형태소들 중에 사용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형태소를 정리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2]

가(價)	도매-가(都賣價)[--까], 현금-가(現金價)[현:-까], 낙찰-가(落札價)[--까]
과(科)	낙타-과(駱駝科)[--꽈], 수선화-과(水仙花科)[---꽈], 소철-과(蘇鐵科)[--꽈]
과(課)	인사-과(人事課)[--꽈], 작전-과(作戰課)[-쩐꽈],
권(權)	경영-권(經營權)[--꿘], 공민-권(公民權)[--꿘], 경찰-권(警察權)[경:-꿘]
권(券)	구매-권(購買券)[--꿘], 상품-권(商品券)[--꿘], 진찰-권(診察券)[진:-꿘]
권(圈)	가시-권(可視圈)[가:-꿘], 관광-권(觀光圈)[--꿘], 균질-권(均質圈)[--꿘]
성(性)	경제-성(經濟性)[--썽], 규범-성(規範性)[--썽], 동물-성(動物性)[동:-썽]
급(級)	간부-급(幹部級)[--끕], 경량-급(輕量級)[-냥끕],
법(法)	경매-법(競賣法)[경:-뻡], 가공-법01(加工法)[--뻡], 연설-법(演說法)[연:-뻡]
증(證)	검사-증(檢查證)[검:-쯩], 요원-증(要員證)[--쯩]
적(的)	시-적(詩的)[-쩍], 공-적01(公的)[-쩍], 질-적(質的)[-쩍]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서 [표12]에 제시된 대표적인 한자 형태소가 비어두 위치에서 출현하는 단어를 수집하고 발음을 정리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표준 발음은 원리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지만 발음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 형태소들은 경음화 조건에 만족하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경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외의 환경에서의 실현 양상은 형태소마다 여러 양상을 띤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크게 5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거의 예외 없이 모든 환경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는 한자 형태소: '가(價)'

(42) 가. 고가09(高價)[-까], 정가05(定價)[정:까], 물가02(物價)[-까]
토가02(討價)[토:까], 감가02(減價)[감:까], 결가01(決價)[-까]
나. 도매-가(都賣價)[--까], 공정-가(公定價)[--까],
낙찰-가(落札價)[--까]

(안소진, 2005: 73-76에서 인용)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價)’로 끝나는 2음절 한자어는 104개와 3음절 한자어 54개를 합쳐 총 158개가 있는데 이 중 ‘가(價)’가 평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고가04(估價)[고:-]’ 단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가(價)’는 비어두의 모든 환경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항상 경음으로 발음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價)’가 어두 위치에서 출현하면 그대로 평음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대조된다.

② 용법의 따라 달리 실현되는 한자 형태소: ‘과(課)’

(43) 가. 방과03(放課)[방:-] 일과05(日課) 부과05(賦課)[부:-]
나. 군수-과(軍需課)[--꽈] 인사-과(人事課)[--꽈]
작전-과(作戰課)[-쩐꽈]

(43가)와 (43나)의 경우 모두 경음화 시킬 수 있는 음운론적 환경이 아니지만 (43가)의 예들에서는 ‘과(課)’가 그대로 평음으로 발음되는 반면에 (43나)의 예들에서는 [꽈]로 발음된다. (43가)와 (43나)를 비교해보면 (43가)는 주로 2자어들이며 (43나)는 3자어들이다. 고유어 문법에서 2자어의 구성 요소인 1자들이 문법적 기능이 명세되지 않는데 3자어에서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43가)와 (43나)의 ‘과(課)’를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과(課)’가 [과] 또는 [꽈]로 발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課)’가 3자어에서 접미사적 요소로 나타날 때만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③ 의미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접미사적 요소로서의 한자 형태소: ‘과(科)’

(44) 가. 문과02(文科) 무과01(武科)[무:-] 사과04(四科)[사:-]
강경-과(講經科)[강:--]
나. 문과01(文科)[-꽈] 치과(齒科)[-꽈] 팔과(八科)[-꽈]
마전-과(馬錢科)[마:-꽈]

(43)의 ‘과(課)’의 예를 통해서 문법 기능이 다른 경우에 각각 평음과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과(科)’에 관한 (44가)와

(44나)에서 ‘과(科)’는 모두 접미사적 요소로 나타난다. 또한 ‘문과02(文科)’와 ‘문과01(文科)’의 경우 사용된 한자는 같지만 서로 발음이 다르다. ‘문과01(文科)’는 ‘인간과 사회 또는 문화에 관한 학문을 이르는 말’로 ‘이과(理科)’의 반대말이며 ‘문과02(文科)’는 ‘문관(文官)을 뽑는 과거(科擧)를 지칭하는 말’로 ‘무과(武科)’의 반대말이다. 따라서 (40가)의 예들에서 나오는 ‘과(科)’는 ‘과거(科擧)’의 뜻이며 (44가)의 단어들은 예전에 인재 선발 제도의 명칭이다. (44나)의 예들에서 나오는 ‘과(科)’는 학과나 전문 분야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에 따라 ‘과(科)’가 [과] 또는 [꽈]로 발음된다.[48] 따라서 초성에 평음을 가지는 모든 한자 형태소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경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소가 특정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될 때 경음화되는 것이다.

④ 3자어에서는 항상 경음이지만, 2자어에서는 경음과 평음이 공존하는 한자 형태소: ‘권(權)’

(45) 가. 병권02(秉權)[병:-] 임-권(任權)[임:-]
나. 균권(均權)[-꿘] 농권(弄權)[농:꿘]

일반적인 경음화 환경을 제외하고 ‘권(權)’으로 끝나는 단어 총 380개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에서 그대로 평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는 10개뿐이다. 평음으로 실현되는 단어 모두 2자어이며 3자어의 접미사적 요소로 나타나는 ‘권(權)’은 거의 예외 없이 경음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접미사적 요소인 ‘권(權)’의 경음화가 2자어로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價)’의 예들 중에도 ‘대가06(代價)[대:까], 결가01(決價)[-까]’같은 2자어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과(科)’로 끝나는 단어 중에도 ‘분과02(分科)[-꽈], 선과04(選科)[선:꽈]’와 같이 2자어인데 [꽈]로 발음

48) 표준 발음에서 ‘과거(科擧)’의 의미를 가지는 ‘과(科)’는 평음으로 발음된다. 현실 발음에서 ‘문과02(文科), 무과(武科),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 등의 ‘과’의 발음은 [꽈]가 우세라고 한다(배주채, 2013: 320). 따라서 현실 발음에서 비어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과(科)’는 항상 경음으로 발음된다. 대학에서 학과를 뜻하는 1음절어 ‘과(科)’를 [꽈]로 발음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과(科)’가 비어두에서 항상 [꽈]로 발음되는 데 이끌린 것이라고 한다.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한자 형태소는 3자어에서 특정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적 요소로 나타날 때 거의 예외 없이 경음으로 발음되나, 2자어에서는 보통 평음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음은 3자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는 특정 한자 형태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적 요소로 사용될 때 경음으로 발음된다. 안소진(2005)의 관점에 따르면 특정 한자 형태소가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경음화의 결과가 아니라 경음 정보가 원래부터 그 한자 형태소의 발음 정보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한자 형태소가 '경음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적 음운 현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의 편의상 그대로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한자 형태소들 중에는 나아가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도 있다.

(46) 가. '사실확인용 혹은 신분확인용 표지'의 뜻으로 쓰이는 '증':
인가증, 외출증 등
나. '인간과 사회 또는 문화에 관한 학문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 '과':
국어과, 전공과 등

(47) 가. 얼굴이 늙어보이셔도 쯩 없으시면 못 사십니다.(최윤지, 2008: 326)
나. 우리 꽈 동아리방이 달라졌어요.

'증(證), 과(科)'는 (42)의 의미를 가지고 접미사적 요소로 쓰일 때 항상 경음으로 발음된다. 요즘 현실 발화에서 이러한 접미사적 요소들의 경음화된 형식이 원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립성을 획득하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이들은 표기와는 달리 기저형이 /쯩/, /꽈/인 것으로 보인다.

(48) 골풀-과(--科)[--꽈] 곰-과(-科)[곰:꽈]

(48)의 예는 외래어나 고유어가 '과(科)'와 결합하는 예인데 이러한 예들에서도 '과(科)'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학과나 전문 분야의 의미

를 가지는 접미사적 요소로 쓰이는 '과(科)'의 기저형은 /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특수한 형태소: '적(的)'

'그러함 적(的)' 또한 선행 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경음화되지 않는 환경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는 대표적인 한자 형태소다. 그런데 '적(的)'은 위에서 제시하는 한자 형태소들과 차이가 보이며 특수하다. 우선 '적(的)'은 접미사로 인정된 만큼 위에 한자 형태소들과 비교할 때 어휘적인 의미가 매우 약하다. 또한 (49)와 같이 (49가)와 (49나)는 모두 3자어인데 '적(的)' 2음절어에서는 경음으로 실현되며 3음절어에서는 평음으로 실현된다.

(49) 가. 지-적(知的)[-쩍] 동-적(動的)[-쩍]
나. 가시-적(可視的)[가:--] 몽환-적(夢幻的)[몽:--]

김창섭(2003)에서는 2음절어에서 '적(的)'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적(知的)'같은 경우에 '적(的)'은 비단어와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차사로서 '적(的)'은 단어 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 요소의 단어화를 담당하는 접미사적인 형식 요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분절음이 아니라 경음화 유발 자질이 선택된다. '적(的)'의 두음 경음화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기 때문에 '적(的)'이 경음으로 실현된다. 이어서 '적(的)'의 경음화가 1자 비단어 어기 뒤에서 시작하여 모든 1자 어기 뒤로 확산되었다(김창섭, 2013:183).

3.2.2. 현실 발음 자료에 대한 분석

특정 한자 형태소가 현실 발음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 제시된 조사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표13]

고가(高價)	고가	고까
비율(%)	38.0	61.9
체중(體重)	체중	체쭝
비율(%)	92.8	7.1.
참고(參考)	참고	참꼬
비율(%)	52.0	48.0
효과(效果)	효과	효꽈
비율(%)	5.9	93.9
불법(不法)	불법	불뻡
비율(%)	5.4	94.4

[표13]과 같이 현실 발음에서는 경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그대로 발음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3자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2자어에서의 경우만 확인할 수 있다. '고가(高價)'와 '불법(不法)'의 경우는 '가(價)'와 '법(法)'은 경음 정보를 가지는 대표적인 한자 형태소라서 다른 단어들과 비교할 때 경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높다. 표준어에서도 두 단어의 경음 발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효과(效果)'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과(果)'는 접미사적 요소로 잘 안 쓰이고 명사 뒤에 붙어서 과일의 이름을 나타낼 때도 경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2자어 '효과(效果)'에서 아주 높은 비율로 경음으로 발음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세대 차이에 관하여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항목(체중 體重)도 존재하지만, 몇몇 한자 형태소의 경우 세대 간의 차이가 보인다. 전반적으로 노년층으로 올라갈수록 평음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3.3. 'ㄹ' 뒤의 경음화

한자어에서 'ㄹ' 뒤에 전설자음 'ㄷ, ㅅ, ㅈ'이 경음화되는 현상이다. 'ㄹ' 뒤에 'ㅂ, ㄱ' 은 경음화되지 않는다. 고유어에서는 'ㄹ'와 'ㄷ, ㅅ, ㅈ'의 연쇄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50) 칼-집 갈-닦다[갈:닥따] 갈-삿[-삳]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ㄹ' 뒤의 경음화 역시 모든 'ㄹ'과 'ㅈ, ㄷ, ㅅ'의 연쇄에 적용되는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만약에 일부 단어에만 적용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자어에서 모든 'ㄹ+ㅈ', 'ㄹ+ㄷ', 'ㄹ+ㅅ' 연쇄를 포함하는 표제어를 정리하였다.[49]

3.3.1. 표준 발음 자료에 대한 분석

표준 발음 자료를 보면 음운론적 환경을 만족하는 대부분의 단어에 'ㄹ' 뒤의 경음화가 적용된다. 특히 2자어에서는 거의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며 3자어에서는 거의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며 3음절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51) 가. 몰자-비(沒字碑)[-짜-] 열전-쌍(熱電雙)[-쩐-]
나. 몰-지각(沒知覺) 열-전류(熱電流)[-절-]

(51가, 나)의 예는 모두 'ㄹ+ㅈ' 연쇄를 가지는데 (51나)는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51가)와 (51나)를 비교해보면 'ㄹ+ㅈ' 연쇄가 나타나는 환경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51가)에서 'ㄹ+ㅈ' 연쇄가 2자어 내부에 나타난 경우다. 그런데 (51나)의 경우 'ㄹ'와 'ㅈ' 사이에 접두사적 요소와 어근적 요소의 경계가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3자어의 경우 경음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ㄹ+ㄷ', 'ㄹ+ㅅ'의 자료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보인다.[50]

---

49) [부록3] 참조.

50)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엄태수(2002)에서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는 고유어 단일형태소 내부의 경음화에 동화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고유어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예를 들어 '알뜰, 벌써, 일찍' 등에서 예외 없는 경음화를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음절 한자어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경음화가 일어난다. 이는 2음절 한자어가 도입의 초기부터 고유어 형태소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한다(엄태수, 2002).

‘ㄹ’ 뒤에 경음화는 이러한 형태 구조에 따른 경향성 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52) 가. 절절-하다02(切切--) 절절-하다04(截截--)
졸졸-요당(猝猝了當)[--료-] 달달-가무(達達歌舞) 돌돌03(咄咄)
나. 절절06(折節)[-쩔]

(52가)를 보면 ‘ㄹ’와 ‘ㅈ, ㄷ’의 연쇄는 2자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음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이렇게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에 ‘ㄹ’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절절-하다02(切切--)’와 ‘절절06(折節)[-쩔]’를 비교해보면 후자도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인데 ‘ㄹ’ 뒤의 경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같은 한자를 대응하는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형식에는 ‘ㄹ’ 뒤의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준 발음 자료에서 3자어의 ‘ㄹ’ 뒤 경음화는 주로 ‘ㄹ’로 끝나는 수사 ‘일, 칠, 팔’과 ‘ㅈ, ㄷ,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결합에서 나타난다.

(53) 가. 일-장검(一長劍)[-짱-] 일-대겁(一大劫)[-때-]
나. 칠-재자(七才子)[-째-] 칠-대복(七大福)[-때-]
다. 팔-장사(八壯士)[-짱-] 팔-대가(八大家)[-때-]

3.3.2. 현실 발음에 대한 분석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에서는 ‘갈등(葛藤)’이라는 항목을 통해 이 현상을 조사하였다. 이때 [갈뜽]이라는 발음을 택한 화자가 99.6%로 압도적으로 많은 화자들이 경음을 선택하였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는 ‘물질적(物質的)’의 경음화 현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0.4%의 기타 발음과 구분이 안 되는 0.2%를 제외하면 모두 [물찔]로 실현되었다.

3.4. 소결

제3장에서는 고유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한자어에서만 적용되는 음운 현상인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와 'ㄹ' 뒤의 경음화를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고찰하였다. 이러한 음운 현상의 적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는 해당 단어에 대한 형태 구조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ㄴ+ㄹ'를 포함하는 단어를 2자어로 보는지 또는 3자어로 보는지에 따라 음운 현상의 적용이 결정된다. 최근에 현실 발음에서 [ㄴㄴ], [ㄹㄹ] 그리고 [ㄴㄹ]은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다. 현실 발음에서 화자는 분석하기 어려운 2자어와, 계열 관계를 통해 구조 파악이 용이한 3자어의 발음을 습득하고 저장하며, 이후에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는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면 비슷한 발음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의 경우 사실 '경음화'라는 음운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경음 정보가 특정 의미를 가지고 접미사적 요소로 쓰이는 일부 한자 형태소의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화자에게는 한자어에서 의미와 형식상의 공통성을 보이면서 분석될 수 있는 단위가 한자어 형태소가 된다. 한자어 형태소 중에 한국어 화자가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요소는 자립적인 단위에 붙어서 접사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소이다(안소진, 2010). 따라서 항상 경음으로 실현되는 특정 의미를 가지는 특정 형태소가 접미사적 요소로서 생산적으로 한 계열의 단어들을 이루고 그 계열의 단어를 습득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어 화자가 규칙을 파악하게 된다. 단어 끝에서 출현하는 이러한 특정 한자 형태소를 경음으로 실현하는 경향이 보인다.

'ㄹ' 뒤의 경음화는 2자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난다. 2자어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한문 문법의 대상이다. 따라서 2자어에서의 경음화는 3자어에서의 경음화와 구별해야 한다. 2자어에서의 'ㄹ' 뒤의 경음화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저형의 변화가 생겼다고 본다.

따라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한자어의 음운 현상들은 음운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형태 분석과 화자가 한자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설명해야 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자료와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및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을 기반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들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서의 적용 양상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론적인 개념을 통해 음운 현상의 적용 원리와 현실 발음이 보이는 수의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자어와 고유어는 음운론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보인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한자어와 고유어의 음운 체계, 음절 구조 등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음운 현상의 적용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서 고유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와 'ㄹ' 뒤의 경음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 고유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모두 문법 정보가 관여하는 음운 현상이며 상당한 수의성이 보이는 현상들이었다. 역행적 유음화와 치조비음화는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음운 현상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표준 발음 자료를 통해서 역행적 유음화는 2자어에, 치조비음화는 3자어에 적용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보하였다. 현실 발음에서는 구조 분석이 어려운 단어에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한문 지식이 있는 화자는 치조비음화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한문 지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연령층에서 치조비음화의 적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특정 한자 형태소의 경음화는 특정 의미를 가지고 접미사적 요소로 쓰이는 한자 형태소가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현실 발음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한자 형태소들은 3자어의 접미사적 요소로 쓰일 때만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2자어의 요소일 때도 경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ㄹ’ 뒤의 경음화는 고유어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한자어 2자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된다. 3자어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는 양상과 일어나지 않는 양상이 공존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본고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고에서 공시적인 관점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다루었는데, 통시적인 음운 현상을 포함시킨다면, 한자어 음운 현상의 특징을 보다 풍부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 발음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수집하지 못한 것이다. 국립국어원 최근에 진행한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및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을 통해서 현실 발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해당 자료들에서 ‘ㄹ’ 뒤의 경음화에 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기존 논의에서 특이한다고 지적되었던 단어들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다 문제가 있었다.

참고문헌

[사전류]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web2.korean.go.kr)
연세한국어사전(https://ilis.yonsei.ac.kr/ysdic/)

[자료]

국립국어원(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2016)《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논저]

고도연·엄홍준(2017), 「음의 동화에 대한 실제 발음의 양적 연구-유음화와 'ㄹ'의 의 비음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9, pp.7-28.
곽동기(1992), 「운율단위에 의한 국어 음운현상의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권인한(1997), 「현대국어 한자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29, pp.243-260.
김경아(2004),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택적 교체에 대하여」, 인문논총, 12, pp.15-37.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pp.273-299 .
김유범(2016), 「현대국어 한자음의 음운론과 형태론」, 우리말연구, 제44집, pp.5-26.
김창섭(1999), 「국어 어휘 자료를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 · 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pp.177-195.
김창섭(2013), 「'-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 68, pp.167-188
김현(2003),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의 구분에 대하여」,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pp.225-246.
김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김현(2011), 「공명도 및 관련 음운 현상의 음성학적 접근」, 어문연구, 39, pp.139-164.
노명희(1990), 「漢字語의 語彙形態論的 特性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용우(2016), 「음운현상과 문법 정보의 관계」, 동악어문학 66, 동악어문학회, pp.9-65.
배주채(1998),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배주채(201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손일권(2015), 「설측음화와 비음화의 음운·음성학적 분석」, 현대문법연구, 85, pp. 131-151.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pp.1-85.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교양.
안병섭(2013), 「음운론적 수의성의 개념 정립을 위한 검토」, 동악어문학, 61, pp.145-176.
안소진(2005),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한 재론」, 국어학 45, pp.69-92.
엄태수(2002), 「한자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64, pp.195-208.
엄태수(2013), 「현대국어의 수의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국제어문 60, pp.155~184.

오정란(1993), 「국어 음운현상에서의 지배관계」, 음성음운형태론연구, 한국음운론학회, pp.91-104.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이강훈(1982), 「國語의 (複合) 名詞에서의 硬音化 現象」, 언어 제7권 제2호, pp.299-321.
이병근·최명옥(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이영환(2013), 「국어의 음소구조조건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호(2008), 「'독립(獨立)'류 한자어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pp.81-120.
이진호(2005), 「國語의 音韻論적 制約 體系」, 어문연구 제33권 제2호, pp.59-82.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이진호(2014), 『국어 음은론 강의』, 삼경문화사.
장소운(2017),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주지연(2018), 「국어 차용어의 분류에 대한 소고: 한자어의 지위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34, pp.277-303.
채서영(1999). 「음운변화에 나타난 한국어 어휘의 층위구조」,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7, pp.217-236.
Atayeva, Maya(2016), 「고유어와 한자어의 음절 구조 비교 연구 : 2음절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ass, Roger(1984), 「Phonology :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1]

－락(樂)

금전－락	金殿樂	ㄴㄴ	음악
만년－락	萬年樂	ㄴㄴ	

－란(亂)

가산－란	嘉山亂	ㄴㄴ	역사
임진－란	壬辰亂	ㄴㄴ	역사

－란(欄)

구인－란	求人欄	ㄴㄴ
통신－란	通信欄	ㄴㄴ

－란(卵)

휴면－란	休眠卵	ㄴㄴ	생물

－란(蘭)

백운－란	白雲蘭	ㄴㄴ	식물

－랑(郞)

궁문－랑	宮門郞	ㄹㄹ	역사
복근－랑	服勤郞	ㄹㄹ	역사
봉훈－랑	奉訓郞	ㄹㄹ	
비변－랑	備邊郞	ㄹㄹ	역사
승훈－랑	承訓郞	ㄹㄹ	역사
장원－랑	壯元郞	ㄴㄴ	역사
장춘－랑	長春郞	ㄹㄹ	인명
전근－랑	展勤郞	ㄹㄹ	역사
조산－랑	朝散郞	ㄹㄹ	역사
종순－랑	從順郞	ㄹㄹ	역사
집순－랑	執順郞	ㄹㄹ	역사
통선－랑	通善郞	ㄹㄹ	역사

－래(來)

수년－래	數年來	ㄹㄹ

－량(量)

개연－량	蓋然量	ㄴㄴ	수학
기준－량	基準量	ㄴㄴ	
대전－량	帶電量	ㄴㄴ	물리
발전－량	發電量	ㄴㄴ	
방언－량	方言量	ㄴㄴ	언어
불변－량	不變量	ㄴㄴ	수학
산견－량	産繭量	ㄴㄴ	농업
생산－량	生産量	ㄴㄴ	경제
수견－량	收繭量	ㄴㄴ	농업
염분－량	鹽分量	ㄴㄴ	화학
외연－량	外延量	ㄴㄴ	논리
일산－량	日産量	ㄴㄴ	
저탄－량	貯炭量	ㄴㄴ	
전견－량	全繭量	ㄴㄴ	농업
채탄－량	採炭量	ㄴㄴ	
축전－량	蓄電量	ㄴㄴ	물리
평균－량	平均量	ㄴㄴ	
표준－량	標準量	ㄴㄴ	
하전－량	荷電量	ㄴㄴ	물리
현존－량	現存量	ㄴㄴ	생물

－력(力)

견인－력	牽引力	ㄴㄴ	
결단－력	決斷力	ㄴㄴ	
계산－력	計算力	ㄴㄴ	
공군－력	空軍力	ㄴㄴ	군사
공권－력	公權力	ㄴㄴ	법률
공면－력	共面力	ㄴㄴ	수학
공신－력	公信力	ㄴㄴ	법률
교환－력	交換力	ㄴㄴ	물리
굴신－력	屈伸力	ㄴㄴ	운동
기판－력	旣判力	ㄴㄴ	법률
돌진－력	突進力	ㄴㄴ	
동원－력	動員力	ㄴㄴ	군사
등판－력	登坂力	ㄴㄴ	
박진－력	迫眞力	ㄴㄴ	
박진－력	迫進力	ㄴㄴ	
발권－력	發券力	ㄴㄴ	
발전－력	發展力	ㄴㄴ	

발전-력	發電力	ㄴㄴ	
방편-력	方便力	ㄴㄴ	불교
방한-력	防寒力	ㄴㄴ	
배근-력	背筋力	ㄴㄴ	운동
법선-력	法線力	ㄴㄴ	물리
보온-력	保溫力	ㄴㄴ	
보존-력	保存力	ㄴㄴ	물리
복원-력	復元力	ㄴㄴ	
본원-력	本願力	ㄴㄴ	불교
비판-력	批判力	ㄴㄴ	
살균-력	殺菌力	ㄴㄴ	
생산-력	生産力	ㄴㄴ	경제
서원-력	誓願力	ㄴㄴ	불교
선견-력	先見力	ㄴㄴ	
성분-력	成分力	ㄴㄴ	물리
순간-력	瞬間力	ㄴㄴ	물리
실천-력	實踐力	ㄴㄴ	
용단-력	勇斷力	ㄴㄴ	
운반-력	運搬力	ㄴㄴ	
인간-력	人間力	ㄴㄴ	
자본-력	資本力	ㄴㄴ	
자신-력	自信力	ㄴㄴ	
자연-력	自然力	ㄴㄴ	
잔존-력	殘存力	ㄴㄴ	
전단-력	剪斷力	ㄴㄴ	
정신-력	精神力	ㄴㄴ	
정진-력	精進力	ㄴㄴ	불교
주선-력	周旋力	ㄴㄴ	
지진-력	地震力	ㄴㄴ	지리
직관-력	直觀力	ㄴㄴ	
추진-력	推進力	ㄴㄴ	
치안-력	治安力	ㄴㄴ	
투신-력	投身力	ㄴㄴ	
판단-력	判斷力	ㄴㄴ	
표면-력	表面力	ㄴㄴ	물리
표현-력	表現力	ㄴㄴ	
항전-력	抗戰力	ㄴㄴ	
해군-력	海軍力	ㄴㄴ	해군
혁신-력	革新力	ㄴㄴ	

환원－력	還元力	ㄴㄴ	화학
회전－력	回轉力	ㄴㄴ	물리
흡인－력	吸引力	ㄴㄴ	

－력(曆)

대연－력	大衍曆	ㄹㄹ	역사
사분－력	四分曆	ㄴㄴ	역사
시헌－력	時憲曆	ㄹㄹ	역사
자연－력	自然曆	ㄴㄴ	

－력(礫)

화산－력	火山礫	ㄴㄴ	지리

－련(蓮)

무한－련	無限蓮	ㄹㄹ	식물
서번－련	西蕃蓮	ㄹㄹ	식물

－령(令)

동원－령	動員令	ㄴㄴ	군사
두문－령	杜門令	ㄴㄴ	
선언－령	宣言令	ㄴㄴ	역사
종인－령	宗人令	ㄹㄹ	역사
처분－령	處分令	ㄴㄴ	법률
퇴군－령	退軍令	ㄴㄴ	
해관－령	奚官令	ㄹㄹ	역사
행군－령	行軍令	ㄴㄴ	군사
회군－령	回軍令	ㄴㄴ	

－령(領)

금군－령	禁軍領	ㄹㄹ	역사
상전－령	相傳領	ㄹㄹ	
총관－령	總管領/摠管領	ㄹㄹ	역사

－령(嶺)

검산－령	劍山嶺	ㄹㄹ	지명
대간－령	大間嶺	ㄹㄹ	지명
대관－령	大關嶺	ㄹㄹ	지명

마천－령	摩天嶺	ㄹㄹ	지명
백간－령	白澗嶺	ㄹㄹ	지명
부전－령	赴戰嶺	ㄹㄹ	지명
이판－령	伊板嶺	ㄹㄹ	지명

－례(禮)

강신－례	降神禮	ㄴㄴ	민족
견신－례	堅信禮	ㄴㄴ	가톨릭
등현－례	登絃禮	ㄴㄴ	군사
면신－례	免新禮	ㄴㄴ	
묘현－례	廟見禮	ㄴㄴ	역사
문안－론	問安禮	ㄴㄴ	
분헌－례	分獻禮	ㄴㄴ	
상견－례	相見禮	ㄴㄴ	
상빈－례	上賓禮	ㄴㄴ	
성찬－례	聖餐禮	ㄴㄴ	기독교
세연－례	洗硯禮	ㄴㄴ	역사
아헌－례	亞獻禮	ㄴㄴ	역사
영신－례	迎神禮	ㄴㄴ	민속
작헌－례	酌獻禮	ㄴㄴ	역사
장원－례	壯元禮	ㄴㄴ	
전안－례	奠雁禮	ㄴㄴ	민속
접문－례	接吻禮	ㄴㄴ	
조현－록	朝見禮	ㄴㄴ	역사
종헌－례	終獻禮	ㄴㄴ	역사
지면－례	知面禮	ㄴㄴ	역사
초헌－례	初獻禮	ㄴㄴ	역사
포손－례	抱孫禮	ㄴㄴ	
할손－례	割損禮	ㄴㄴ	종교
해현－례	解見禮	ㄴㄴ	
현관－례	見官禮	ㄴㄴ	역사
회문－례	回門禮	ㄴㄴ	역사
회훈－례	回婚禮	ㄴㄴ	

－례(例)

재판－례	裁判例	ㄴㄴ	법률
처단－례	處斷例	ㄴㄴ	법률

－로(路)

간선－로	幹線路	ㄴㄴ	전기
강변－로	江邊路	ㄴㄴ	
개원－로	開元路	ㄴㄴ	역사
등산－로	登山路	ㄴㄴ	
방전－로	放電路	ㄴㄴ	물리
전선－로	電線路	ㄴㄴ	전기
전진－로	前進路	ㄴㄴ	
접근－로	接近路	ㄴㄴ	
직선－로	直線路	ㄴㄴ	
행군－로	行軍路	ㄴㄴ	
횡단－로	橫斷路	ㄴㄴ	

－로(爐)

박산－로	博山爐	ㄴㄴ	고적
분은－로	分銀爐	ㄴㄴ	공업
소둔－로	燒鈍爐	ㄴㄴ	공언
신선－로	神仙爐	ㄹㄹ	
용선－로	鎔銑爐	ㄴㄴ	공업
전환－로	轉換爐	ㄴㄴ	물리
침탄－로	浸炭爐	ㄴㄴ	공업
해탄－로	骸炭爐	ㄴㄴ	공업
혼선－로	混銑爐	ㄴㄴ	공업
회전－로	回轉爐	ㄴㄴ	공업

－로(露)

금분－로	金盆露	ㄹㄹ	

－루(虜)

수전－로	守錢虜	ㄹㄹ	

－록(錄)

견문－록	見聞錄	ㄴㄴ	
견신－록	敬信錄	ㄴㄴ	책명
고신－록	考信錄	ㄴㄴ	책명
공신－록	功臣錄	ㄴㄴ	책명
구인－록	求仁錄	ㄴㄴ	책명
궁원－록	窮源錄	ㄴㄴ	책명
규한－록	閨恨錄	ㄴㄴ	문학

동연-록 同硏錄 ㄴㄴ
명신-록 名臣錄 ㄴㄴ 책명
무원-록 無冤錄 ㄴㄴ 책명
발언-록 發言錄 ㄴㄴ
사변-록 思辨錄 ㄴㄴ 책명
선원-록 璿源錄 ㄴㄴ 책명
영문-록 榮問錄 ㄴㄴ 역사
임진-록 壬辰錄 ㄴㄴ 문학
조문-록 弔問錄 ㄴㄴ
조천-록 朝天錄 ㄴㄴ 문학
지원-록 至元錄 ㄴㄴ 책명
직원-록 職員錄 ㄴㄴ
진신-록 搢紳錄 ㄴㄴ 역사
학안-록 學顔錄 ㄴㄴ 책명
향산-록 香山錄 ㄴㄴ 문학
홍문-록 弘文錄 ㄴㄴ 역사
화문-록 花門錄 ㄴㄴ 문학
흥신-록 興信錄 ㄴㄴ 경제

-록(綠)

아연-록 亞鉛綠 ㄴㄴ 화학

-론(論)

강관-론 講官論 ㄴㄴ 책명
강신-론 降神論 ㄴㄴ 심리
개선-론 改善論 ㄴㄴ 철학
개연-론 蓋然論 ㄴㄴ 철학
공간-론 空間論 ㄴㄴ 심리
공산-론 公算論 ㄴㄴ 수학
공산-론 共産論 ㄴㄴ 사회
구문-론 構文論 ㄴㄴ 논리, 언어
구원-론 救援論 ㄴㄴ 기독교
구전-론 口錢論 ㄴㄴ 역사
궤변-론 詭辯論 ㄴㄴ 철학
균전-론 均田論 ㄴㄴ 역사
극단-론 極端論 ㄴㄴ
기신-론 起信論 ㄴㄴ 불교
낙관-론 樂觀論 ㄴㄴ
낙천-론 樂天論 ㄴㄴ

다신-론	多神論	ㄴㄴ	종교
다원-론	多元論	ㄴㄴ	철학
단원-론	單元論	ㄴㄴ	철학
독단-론	獨斷論	ㄴㄴ	철학
동권-론	同權論	ㄴㄴ	
명분-론	名分論	ㄴㄴ	
모순-론	矛盾論	ㄴㄴ	책명
무신-론	無神論	ㄴㄴ	철학
무인-론	無因論	ㄴㄴ	철학
문단-론	文壇論	ㄴㄴ	문학
민권-론	民權論	ㄴㄴ	정치
반전-론	反戰論	ㄴㄴ	
범신-론	汎神論	ㄴㄴ	철학
변신-론	辯神論	ㄴㄴ	철학
병인-론	病因論	ㄴㄴ	의학
보편-론	普遍論	ㄴㄴ	철학
부인-론	婦人論	ㄴㄴ	책명
불신-론	佛身論	ㄴㄴ	불교
비관-론	悲觀論	ㄴㄴ	
비전-론	非戰論	ㄴㄴ	
삼신-론	三神論	ㄴㄴ	기독교
상한-론	傷寒論	ㄴㄴ	책명
선천-론	先天論	ㄴㄴ	철학
세균-론	細菌論	ㄴㄴ	생물
속단-론	速斷論	ㄴㄴ	
순환-론	循環論	ㄴㄴ	논리
신인-론	神人論	ㄴㄴ	철학
실천-론	實踐論	ㄴㄴ	책명
어원-론	語源論	ㄴㄴ	언어
여전-론	閭田論	ㄴㄴ	역사
우연-론	偶然論	ㄴㄴ	철학
우인-론	偶因論	ㄴㄴ	철학
유신-론	有神論	ㄴㄴ	철학
음운-론	音韻論	ㄴㄴ	언어
이신-론	理神論	ㄴㄴ	철학
이원-론	二元論	ㄴㄴ	
인간-론	人間論	ㄴㄴ	문학
인순-론	因循論	ㄴㄴ	
인반-론	一般論	ㄴㄴ	

일신-론	一神論	ㄴㄴ	종교
일원-론	一元論	ㄴㄴ	철학
자본-론	資本論	ㄴㄴ	책명
자연-론	自然論	ㄴㄴ	철학
정신-론	精神論	ㄴㄴ	철학
정원-론	精原論	ㄴㄴ	생물
정한-론	征韓論	ㄴㄴ	역사
종원-론	種原論	ㄴㄴ	책명
주권-론	州權論	ㄴㄴ	정치
주전-론	主戰論	ㄴㄴ	
중관-론	中觀論	ㄴㄴ	불교
차원-론	次元論	ㄴㄴ	수학
천연-론	天演論	ㄴㄴ	책명
필연-론	必然論	ㄴㄴ	철학
학문-론	學問論	ㄴㄴ	
한전-론	限田論	ㄴㄴ	역사
후천-론	後天論	ㄴㄴ	철학

-료(料)

강연-료	講演料	ㄴㄴ	
계선-료	繫船料	ㄴㄴ	해양
공연-료	公演料	ㄴㄴ	
대전-료	對戰料	ㄴㄴ	
대관료	貸館料	ㄴㄴ	
도선-료	導船料	ㄴㄴ	해양
반신-료	返信料	ㄴㄴ	
보관-료	保管料	ㄴㄴ	
보존-료	保存料	ㄴㄴ	
상연-료	上演料	ㄴㄴ	연영
알선-료	斡旋料	ㄴㄴ	
용선-료	傭船料	ㄴㄴ	
우편-료	郵便料	ㄴㄴ	통신
전신-료	電信料	ㄴㄴ	
주선-료	周旋料	ㄴㄴ	
체선-료	滯船料	ㄴㄴ	법률
출연-료	出演料	ㄴㄴ	
할인-료	割引料	ㄴㄴ	경제
항만-료	港灣料	ㄴㄴ	
향신-료	香辛料	ㄴㄴ	

회신-료	回信料	ㄴㄴ	

-룡(龍)

공손-룡	公孫龍	ㄹㄹ	인명
과산-룡	過山龍	ㄹㄹ	식물
우선-룡	右旋龍	ㄴㄴ	민속
좌선-룡	左旋龍	ㄴㄴ	민속
폭군-룡	暴君龍	ㄴㄴ	동물

-루(樓)

강선-루	降仙樓	ㄹㄹ	고적
광한-루	廣寒樓	ㄹㄹ	고적
마천-루	摩天樓	ㄹㄹ	
수문-루	水門樓	ㄹㄹ	고적

-루(漏)

친근-루	親近漏	ㄹㄹ	불교

-루(瘻)

전근-루	轉筋瘻	ㄹㄹ	한의학

-류(流)

발산-류	發散流	ㄴㄴ	식물
순환-류	循環流	ㄴㄴ	지리
연안-류	沿岸流	ㄴㄴ	지리
이안-류	離岸流	ㄴㄴ	해양
증산-류	蒸散流	ㄴㄴ	식물
해안-류	海岸流	ㄴㄴ	해양
향안-류	向岸流	ㄴㄴ	해양

-류(類)

구근-류	球根類	ㄴㄴ	식물
동균-류	動菌類	ㄴㄴ	생물
두판-류	頭板類	ㄴㄴ	동물
모균-록	帽菌類	ㄴㄴ	식물
복균-류	腹菌類	ㄴㄴ	식물
삼근-류	三筋類	ㄴㄴ	동물
송진-류	松津類	ㄴㄴ	

점균-류 粘菌類 ㄴㄴ 식물
조균-류 藻菌類 ㄴㄴ 식물
진균-류 眞菌類 ㄴㄴ 식물
최근-류 最近類 ㄴㄴ 논리

-류(柳)

삼춘-류 三春柳 ㄹㄹ 식물

-륜(輪)

부단-륜 不斷輪 ㄹㄹ 불교
신변-륜 神變輪 ㄹㄹ 불교

-리(吏)

염근-리 廉謹吏 ㄹㄹ

-리(里)

구만-리 九萬里 ㄹㄹ
천만-리 千萬里 ㄹㄹ

-리(裡)

절찬-리 絶讚裡 ㄴㄴ

-리(裏)

청산-리 靑山裏 ㄹㄹ

-립(粒)

전분-립 澱粉粒 ㄹㄹ 화학
호분-립 糊粉粒 ㄴㄴ 식물

-림(林)

단순-림 單純林 ㄴㄴ
방연-림 防煙林 ㄴㄴ
보건-림 保健林 ㄴㄴ
보관-림 保管林 ㄴㄴ
보안-람 保安林 ㄴㄴ 농업
보존-림 保存林 ㄴㄴ 농업
부분-림 部分林 ㄴㄴ 법률

시원-림　始原林　ㄴㄴ
신탄-림　薪炭林　ㄴㄴ
자연-림　自然林　ㄴㄴ
제한-림　制限林　ㄴㄴ
천연-림　天然林　ㄴㄴ
해안-림　海岸林　ㄴㄴ　지리
호안-림　護岸林　ㄴㄴ

-릉(陵)

건원-릉　健元陵　ㄹㄹ　고적

-뢰(雷)

전선-뢰　前線雷　ㄴㄴ　지리
진천-뢰　震天雷　ㄹㄹ
화산-뢰　火山雷　ㄴㄴ　지리

[부록2]

[꽈]

가정－과(家政科)[－－꽈]	단향－과(檀香科)[－－꽈]
감람－과02(橄欖科)[감:남꽈]	대구－과(大口科)[－－꽈]
견과01(犬科)[－꽈]	대극－과(大戟科)[대:－꽈]
경과07(警科)[경:꽈]	동결－외과(凍結外科)[동:겨뢰꽈/동:겨뤠꽈]
경학－과(經學科)[－－꽈]	동과02(同科)[－꽈]
고등－과(高等科)[－－꽈]	두견－과(杜鵑科)[－－꽈]
고란초－과(皐蘭草科)[－－－꽈]	두과(痘科)[－꽈]
곡정초－과(穀精草科)[－쩡－꽈]	마전－과(馬錢科)[마:－꽈]
공과01(工科)[－꽈]	마편초－과(馬鞭草科)[마:－－꽈]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꽈]	맥－과(貘科)[－꽈]
광삼－과(光蔘科)[－－꽈]	면마－과(綿馬科)[－－꽈]
교과01(敎科)[교:과/교:꽈]	
구강－외과(口腔外科)[구:－외꽈/구:－웨꽈]	면충－과(綿蟲科)[－－꽈]
구충－과(鉤蟲科)[－－꽈]	목련－과(木蓮科)[몽년꽈]
국과(菊科)[－꽈]	문과01(文科)[－꽈]
국어－과(國語科)[－－꽈]	문어－과(文魚科)[－－꽈]
국화－과(菊花科)[구콰꽈]	방사선－과(放射線科)[방:－－꽈]
군함조－과(軍艦鳥科)[－－－꽈]	백과04(百科)[－꽈]
기능－학과(技能學科)[－－－꽈]	백합－과01(白蛤科)[배캅꽈]
기린－과(麒麟科)[－－꽈]	백합－과02(百合科)[배캅꽈]
낙우송－과(落羽松科)[－－－꽈]	별과01(別科)[－꽈]
낙타－과(駱駝科)[－－꽈]	별과03(鼈科)[－꽈]
난초－과(蘭草科)[－－꽈]	병과03(兵科)[－꽈]
내과01(內科)[내:꽈]	보습－과(補習科)[보:－꽈]
내용－교과(內容敎科)[내:－－과/내:－－꽈]	복과01(復科)[－꽈]
노인병－과(老人病科)[노:－뼝꽈]	본과(本科)[－꽈]
농과(農科)[－꽈]	봉선화－과(鳳仙花科)[봉:－－꽈]
뇌신경－외과(腦神經外科)[뇌－－외꽈/눼－－웨꽈]	부인－과(婦人科)[－－꽈]
	분과02(分科)[－꽈]
뇌－외과(腦外科)[뇌외꽈/눼웨꽈]	비뇨기－과(泌尿器科)[비:－－꽈]
능소화－과(凌霄花科)[－－－꽈]	사막꿩－과(沙漠－科)[－－－꽈]
사집－과(四集科)[사:－꽈]	신경－외과(神經外科)[－－외꽈/－－웨꽈]
사초－과(莎草科)[－－꽈]	실과02(實科)[－꽈]
사회－과(社會科)[－회꽈/－훼꽈]	실업－과(實業科)[－－꽈]
사회생활－과(社會生活科)[－회－－꽈/－훼	심장－외과(心臟外科)[－－외꽈/－－웨꽈]

－－꽈]	십자화－과(十字花科)[－짜－꽈]
삭과01(削科)[－꽈]	아과01(亞科)[아:꽈]
산과03(産科)[산:꽈]	아마－과(亞麻科)[－－꽈]
산부인－과(産婦人科)[산:－－꽈]	아비－과(阿比科)[－－꽈]
산형－과(繖形科)[산:－꽈]	안과02(眼科)[안:꽈]
삼백초－과(三白草科)[－－－꽈]	안이비인후－과(眼耳鼻咽喉科)[아:니－－－꽈]
상과02(商科)[－꽈]	
생강－과02(生薑科)[－－꽈]	암매－과(巖梅科)[－－꽈]
석류나뭇－과(石榴－－科)[성뉴－무꽈/성뉴－묻꽈]	앵무－과(鸚鵡科)[－－꽈]
	앵초－과(櫻草科)[－－꽈]
석류풀－과(石榴－科)[성뉴－꽈]	야자－과(椰子科)[야:－꽈]
석송－과(石松科)[－쏭꽈]	양귀비－과(楊貴妃科)[－－－꽈]
석이－과(石耳科)[－－꽈]	어로－과(漁撈科)[－－꽈]
석죽－과(石竹科)[－쭉꽈]	역과(譯科)[－꽈]
선과04(選科)[선:꽈]	연복초－과(連福草科)[－－－꽈]
선인장－과(仙人掌科)[－－－꽈]	연어－과(鰱魚科)[－－꽈]
선택－과(選擇科)[선:－꽈]	열두조충－과(裂頭條蟲科)[－뚜－－꽈]
설과(設科)[－꽈]	예과(豫科)[예:꽈]
성형－외과(成形外科)[－－외꽈/－－웨꽈]	예능－과(藝能科)[예:－꽈]
소아－과(小兒科)[소:－꽈]	외과01(外科)[외:꽈/웨:꽈]
소아－외과(小兒外科)[소:－외꽈/소:－웨꽈]	외래－과(外來科)[외:－꽈/웨:－꽈]
소철－과(蘇鐵科)[－－꽈]	용담－과(龍膽科)[－－꽈]
송이－과(松耳科)[－－꽈]	용설란－과(龍舌蘭科)[－－－꽈]
수련－과(睡蓮科)[－－꽈]	운작－과(雲雀科)[－－꽈]
수선화－과(水仙花科)[－－－꽈]	운향－과(芸香科)[－－꽈]
수의－과(隨意科)[－의꽈/－이꽈]	원지－과(遠志科)[원:－꽈]
승과02(僧科)[－꽈]	위성류－과(渭城柳科)[－－뉴꽈]
식과(式科)[－꽈]	육과01(六科)[－꽈]
신경－과(神經科)[－－꽈]	의과01(醫科)[－꽈]
신경－내과(神經內科)[－－－꽈]	의무－과(醫務科)[－－꽈]
의－예과(醫豫科)[－－꽈]	정형－외과(整形外科)[정:－외꽈/정:－웨꽈]
이과03(耳科)[이:꽈]	죄과01(罪科)[죄:꽈/줴:꽈]
이과05(理科)[이:꽈]	주목－과(朱木科)[－－꽈]
이비－과(耳鼻科)[이:－꽈]	죽합－과(竹蛤科)[주캅꽈]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이:－－－꽈]	중학－과(中學科)[－－꽈]
인동－과(忍冬科)[－－꽈]	지채－과(芝菜科)[－－꽈]
자연－과(自然科)[－－꽈]	직관－과(直觀科)[－꽌꽈]
자유－과(自由科)[－－꽈]	천남성－과(天南星科)[－－－꽈]

작약－과(芍藥科)[－－꽈]	정신－과(精神科)[－－꽈]
잡과02(雜科)[－꽈]	청어－과(靑魚科)[－－꽈]
장미－과02(薔薇科)[－－꽈]	촉수－과(觸鬚科)[－쑤꽈]
적과01(賊科)[－꽈]	치과(齒科)[－꽈]
전갈－과(全蠍科)[－－꽈]	칠성장어－과(七星長魚科)[－썽－－꽈]
전공－과(專攻科)[－－꽈]	칠엽수－과(七葉樹科)[－－쑤꽈]
전과01(全科)[－꽈]	탁과(擢科)[－꽈]
전과03(前科)[－꽈]	택사－과(澤瀉科)[－싸꽈]
전과05(專科)[－꽈]	특과(特科)[－꽈]
전과08(轉科)[전:꽈]	파초－과(芭蕉科)[－－꽈]
전문－과(專門科)[－－꽈]	팔과(八科)[－꽈]
전복－과(全鰒科)[－－꽈]	팔색조－과(八色鳥科)[－쌕쪼꽈]
전시－과(田柴科)[－－꽈]	포도－과(葡萄科)[－－꽈]

[과]

갑과(甲科)[－꽈]	기로－과(耆老科)[기:－－]
강경－과(講經科)[강:－－]	대과01(大科)[대:－]
강과02(講科)[강:－]	대비－과(大比科)[대:－－]
경과02(京科)	대－소과(大小科)[대:－－]
경과03(經科)	도과02(道科)[도:－]
경과05(輕科)	도기－과(到記科)[도:－－]
경과06(慶科)[경:－]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써－－－]
계－사과(戒四科)[계:－－/게:－－]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써－씬－]
고과06(高科)	동과03(同科)
괴과(魁科)[괴－/궤－]	등극－경과(登極慶科)[－－꼉－]
만과01(晩科)[만:－]	서총대－과(瑞葱臺科)[서:－－－]
만과03(萬科)[만:－]	선과05(禪科)
명경－과(明經科)	소과01(小科)[소:－]　식년－과(式年科)[싱－－]
필수－과(必須科)[－쑤꽈]	
풍접초－과(風蝶草科)[－－－꽈]	알성－과(謁聖科)[－썽－]
피부－과(皮膚科)[－－꽈]	엄과(嚴科)
학과01(學科)[－꽈]	오자－등과(五子登科)[오:－－－]
한련－과(旱蓮科)[할:－꽈]	율과(律科)
항문－과(肛門科)[－－꽈]	은사－과(恩賜科)
현량－과(賢良科)[혈－꽈]	을과(乙科)
현삼－과(玄蔘科)[－－꽈]	음양－과(陰陽科)
협죽도－과(夾竹桃科)[－쭉또꽈]	의과02(醫科)
화과02(畫科)[화:－]	이과02(吏科)[이:－]

회충－과(蛔蟲科)[회－꽈/훼－꽈]	
흉부－외과(胸部外科)[－－외꽈/－－웨꽈]	이과06(移科)
오미자－과(五味子科)[오:－－꽈]	자과01(自科)
흑삼릉－과(黑三稜科)[－쌈능꽈]	절과02(竊科)
명산－과(明算科)	정과02(正科)[정:－]
무과01(武科)[무:－]	제과01(制科)[제:－]
문과02(文科)	제술－과(製述科)[제:－－]
범과01(犯科)[범:－]	종친－과(宗親科)
병과01(丙科)[병:－]	중과01(重科)[중:－]
병과04(倂科)[병:－]	증광－과(增廣科)
부과01(付科)[부:－]	진사－과(進士科)[진:－－]
빈공－과(賓貢科)	최과(催科)[최－/췌－]
사과04(四科)[사:－]	충량－과(忠良科)[－냥－]
사교－과(四敎科)[사:－－]	칠과(七科)
사미－과(沙彌科)	태평－과(太平科)
삼과02(三科)	폐과02(廢科)[폐:－/폐:－]
생원－과(生員科)	형과(刑科)
생진－과(生進科)	황감－과(黃柑科)

과(課)

[꽈]

군수－과(軍需課)[－－꽈]	장악－과(掌樂課)[장:－꽈]
독과02(督課)[－꽈]	정보－과(情報課)[－－꽈]
분과03(分課)[－꽈]	총무－과(總務課)[총:－꽈]
인사－과(人事課)[－－꽈]	학과02(學課)[－꽈]　학무－과(學務課)[항－꽈]
작전－과(作戰課)[－쩐꽈]	학생－과(學生課)[－쌩꽈]

[과]

가과01(加課)	소과04(所課)[소:－]
간심－고과(看審考課)	순과(旬課)
결과01(缺課)	염과(鹽課)
고과01(考課)[고:－]	월과(月課)
고과02(告課)[고:－]	일과05(日課)
공과02(工課)	전과02(全課)
공과03(公課)	정과03(正課)[정:－]

공과05(功課)	조과01(早課)[조:-]
교과02(敎課)[교:-]	조과02(租課)
궐과(闕課)	조과05(朝課)
다과05(茶課)	조-만과(早晩課)[조:--]
만과02(晩課)[만:-]	주마-과(主馬課)
방과03(放課)[방:-]	중과03(重課)[중:-]
부과05(賦課)[부:-]	판과(辦課)
선군-월과(船軍月課)	하과(夏課)[하:-]

[부록3]

□□ㄹ - ㅈ□□

갈장(渴葬)[-짱]	결정02(結晶)[-쩡]	굴지01(屈支)[-찌]
갈전(葛戰)[-쩐]	결정-하다03(潔淨--)[-쩡--]	굴지02(屈指)[-찌]
갈전곡-봉(葛田谷峯)[-쩐-뿡]	결제01(決濟)[-쩨]	굴지득금(掘地得金)[-찌-끔]
갈조(褐藻)[-쪼]	결제02(結制)[-쩨]	굴진02(掘進)[-찐]
갈조-류(褐藻類)[-쪼-]	결제03(駃騠)[-쩨]	궐자01(厥者)[-짜]
갈조-소(褐藻素)[-쪼-]	결제04(閼制)[-쩨]	궐자02(闕字)[-짜]
갈증(渴症)[-쯩]	결주(缺柱)[-쭈]	궐전01(闕典)[-쩐]
갈진(竭盡)[-찐]	결지(決志)[-찌]	궐전02(闕錢)[-쩐]
갈질(葛絰)[-찔]	결진(結陣)[-찐]	궐-전유화(鱖煎油花)
걸작(傑作)[-짝]	결질01(缺帙)[-찔]	궐정(闕廷)[-쩡]
걸주(桀紂)[-쭈]	결질02(潔疾)[-찔]	궐제(闕祭)[-쩨]
걸주(桀紂)[-쭈]	결집(結集)[-찝]	궐종(厥終)[-쫑]
결자(缺字)[-짜]	골자(骨子)[-짜]	궐종서부(厥宗噬膚)[-쫑--]
결-자웅(決雌雄)	골재(骨材)[-째]	
결자해지(結者解之)[-짜--]	골절01(骨折)[-쩔]	궐중(闕中)[-쭝]
결작(結作)[-짝]	골제(骨制)[-쩨]	궐증(厥症)[-쯩]
결장01(決杖)[-짱]	골조01(骨彫)[-쪼]	궐지(蹶躓)[-찌]
결장02(缺場)[-짱]	골조02(骨組)[-쪼]	궐직(闕直)[-찍]
결장03(結腸)[-짱]	골종(骨腫)[-쫑]	귤정(橘井)[-쩡]
결재01(決裁)[-째]	골중(骨重)[-쭝]	귤-정과(橘正果)
결재02(潔齋)[-째]	골증(骨蒸)[-쯩]	귤주(橘酒)[-쭈]
결적(抉摘)[-쩍]	골지01(骨脂)[-찌]	귤중지락(橘中之樂)[-쭝--]
결전01(決戰)[-쩐]	골질02(骨質)[-찔]	길장02(吉仗)[-짱]
결전02(缺典)[-쩐]	굴장02(屈葬)[-짱]	길장03(吉藏)[-짱]
결전03(結錢)[-쩐]	굴전-성(屈電性)[-쩐썽]	길-재(吉再)[-째]
결절01(決折)[-쩔]	굴절01(屈折)[-쩔]	길점(吉占)[-쩜]
결절02(結節)[-쩔]	굴절02(屈節)[-쩔]	길제(吉祭)[-쩨]
결점(缺點)[-쩜]	굴-정지(窟停止)[굴:--]	길조01(吉弔)[-쪼]
결정01(決定)[-쩡]	굴족-강(掘足綱)[-쪽깡]	길조02(吉兆)[-쪼]
길조03(吉鳥)[-쪼]	굴종(屈從)[-쫑]	밀-제학(密提學)[-쩨-]
길주(吉州)[-쭈]	멸적(滅敵)[-쩍]	밀조01(密造)[-쪼]
길즉대흉(吉則大凶)[-쯕때-]	멸절(滅絕)[-쩔]	밀조02(密詔)[-쪼]
	멸제(滅諦)[-쩨]	밀조03(蜜棗)[-쪼]
	멸족(滅族)[-쪽]	

길지(吉地)[－찌]	멸종(滅種)[－쫑]	밀종(密宗)[－쫑]
길징(吉徵)[－찡]	멸죄(滅罪)[－쬐/－쮀]	밀주01(密奏)[－쭈]
날장(捺章)[－짱]	멸진(滅盡)[－찐]	밀주02(密酒)[－쭈]
날조(捏造)[－쪼]	몰자－비(沒字碑)[－짜－]	밀지02(密旨)[－찌]
눌재선생－집(訥齋先生集)[－째－－－]	몰정－하다(沒情－－)[－쩡－－]	밀직－부사(密直副使)[－찍뿌－]
눌지－왕(訥祗王)[－찌－]	몰－지각(沒知覺)	밀집(密集)[－찝]
달자01(達字)[－짜]	물－적(物的)[－쩍]	발자－창(發髭瘡)[－짜－]
달자02(達者)[－짜]	물자02(物資)[－짜]	발작02(發作)[－짝]
달자03(韃子)[－짜]	물－자체(物自體)	발장(撥長)[－짱]
달작(達作)[－짝]	물장고(物藏庫)[－짱－]	발적(發赤)[－쩍]
달재02(達才)[－째]	물재01(物材)[－째]	발전01(發展)[－쩐]
달제(獺祭)[－쩨]	물재02(物財)[－째]	발전02(發電)[－쩐]
달조(獺爪)[－쪼]	물종02(物終)[－쫑]	발절라(跋折羅)[－쩔－]
달존(達尊)[－쫀]	물종03(物種)[－쫑]	발절－충(髮切蟲)[－쩔－]
달증(疸症)[－쯩]	물주(物主)[－쭈]	발정01(發情)[－쩡]
돌장03(堗匠)[－짱]	물중(物中)[－쭝]	발정02(發程)[－쩡]
돌전(突戰)[－쩐]	물중지대(物重地大)[－쭝－－]	발제01(發題)[－쩨]
돌제02(突梯)[－쩨]		발제03(髮際)[－쩨]
돌제03(突堤)[－쩨]	물증(物證)[－쯩]	발조(發條)[－쪼]
돌진(突進)[－찐]	물질02(物質)[－찔]	발족02(發足)[－쪽]
말자01(末子)[－짜]	밀장03(密葬)[－짱]	발졸(撥卒)[－쫄]
말작(末作)[－짝]	밀장04(密藏)[－짱]	발종(發蹤)[－쫑]
말제01(末弟)[－쩨]	밀－재배(密栽培)	발주01(發走)[－쭈]
말제02(末劑)[－쩨]	밀적(密迹)[－쩍]	발주02(發注)[－쭈]
말조02(末造)[－쪼]	밀전01(密栓)[－쩐]	발지01(髮指)[－찌]
말좌(末座)[－쫘]	밀전02(密電)[－쩐]	발지02(髮遲)[－찌]
말증(末症)[－쯩]	밀접(密接)[－쩝]	발진01(拔進)[－찐]
말직(末職)[－찍]	밀정(密偵)[－쩡]	발진02(發振)[－찐]
말질03(末疾)[－찔]	밀제02(蜜劑)[－쩨]	발진03(發疹)[－찐]
발진04(發進)[－찐]	별제03(別提)[－쩨]	불조(佛祖)[－쪼]
발진－시(發震時)[－찐－]	별제04(別製)[－쩨]	불족－석(佛足石)[－쪽썩]
벌작(罰爵)[－짝]	별－조식(別早食)	불종02(佛種)[－쫑]
벌적(罰籍)[－쩍]	별존(別尊)[－쫀]	불종03(佛鐘)[－쫑]
벌전02(罰錢)[－쩐]	별종(別種)[－쫑]	불좌(佛座)[－쫘]
벌절라(伐折羅)[－쩔－]	별좌01(別坐)[－쫘]	불지01(佛地)[－찌]
벌점(罰點)[－쩜]	별좌02(別座)[－쫘]	불지02(佛智)[－찌]
벌제(伐祭)[－쩨]	별주01(別酒)[－쭈]	살저－제(殺蛆劑)[－쩌－]

벌제위명(伐齊爲名)[－쩨－－]
벌족(閥族)[－쪽]
벌족(閥族)[－쪽]
벌직(罰直)[－찍]
별자01(別子)[－짜]
별자02(別字)[－짜]
별작－면(別作麵)[－짱－]
별－작전(別作錢)[－－쩐]
별잔(鼈盞)[－짠]
별장01(別將)[－짱]
별장02(別張)[－짱]
별장03(別莊)[－짱]
별장04(別章)[－짱]
별재(別才)[－째]
별저01(別邸)[－쩌]
별적(別籍)[－쩍]
별전01(別奠)[－쩐]
별전02(別傳)[－쩐]
별전03(別殿)[－쩐]
별전04(別電)[－쩐]
별전05(別錢)[－쩐]
별정01(別定)[－쩡]
별정02(別情)[－쩡]
별제01(別除)[－쩨]
별제02(別第)[－쩨]
설점02(雪點)[－쩜]
설정01(泄精)[－쩡]
설정02(設定)[－쩡]
설정03(雪程)[－쩡]
설제01(泄劑)[－쩨]
설제02(設祭)[－쩨]
설제03(設題)[－쩨]
설제04(雪堤)[－쩨]
설조(雪朝)[－쪼]
설종01(舌腫)[－쫑]
설종02(舌縱)[－쫑]
설주02(說主)[－쭈]
별주02(別株)[－쭈]
별주부－전(鼈主簿傳)[－쭈－－]
별중－승(別衆僧)[－쭝－]
별증(別症)[－쯩]
별지01(別指)[－찌]
별지02(別紙)[－찌]
별－지장(別支障)
별－진상(別進上)
별집(別集)[－찝]
불자01(不字)[－짜]
불자02(佛子)[－짜]
불자03(佛者)[－짜]
불자04(拂子)[－짜]
불장01(佛葬)[－짱]
불장02(佛藏)[－짱]
불장03(佛藏)[－짱]
불저(祓除)[－쩌]
불적01(佛跡/佛蹟)[－쩍]
불적02(佛敵)[－쩍]
불전02(佛典)[－쩐]
불전03(佛前)[－쩐]
불전04(佛殿)[－쩐]
불전05(佛錢)[－쩐]
불정(佛頂)[－쩡]
불제(祓除)[－쩨]
실장(室長)[－짱]
실－장정(實壯丁)
실재01(實才)[－째]
실재02(實在)[－째]
실적01(失跡)[－쩍]
실적02(實的)[－쩍]
실적03(實跡)[－쩍]
실적04(實積)[－쩍]
실적05(實績)[－쩍]
실전01(失傳)[－쩐]
실전03(實傳)[－쩐]
실전04(實戰)[－쩐]
살적(殺賊)[－쩍]
살점－제(殺粘劑)[－쩜－]
살정－제(殺精劑)[－쩡－]
살조－제(殺藻劑)[－쪼－]
살종(撒種)[－쫑]
살주－마(殺主馬)[－쭈－]
살지무석(殺之無惜)[－찌－－]
살－진균제(殺眞菌劑)
설자01(舌者)[－짜]
설자02(楔子)[－짜]
설자03(說者)[－짜]
설자－비(舌自痺)[－짜－]
설장02(設莊)[－짱]
설장－증(舌長症)[－짱쯩]
설재01(設齋)[－째]
설재02(雪災)[－째]
설저(舌疽)[－쩌]
설저유부(舌底有斧)[－쩌－－]
설적(薛炙)[－쩍]
설전01(舌戰)[－쩐]
설전02(舌顫)[－쩐]
설전03(雪田)[－쩐]
설전04(雪戰)[－쩐]
설점01(設店)[－쩜]
실지02(失地)[－찌]
실지03(失志)[－찌]
실지04(悉地)[－찌]
실지05(實地)[－찌]
실지06(實智)[－찌]
실직02(失職)[－찍]
실직03(悉直)[－찍]
실직05(實職)[－찍]
실직－국(悉直國)[－찍꾹]
실진01(失眞)[－찐]
실진02(失盡)[－찐]
실진무은(悉陳無隱)[－찐

설죽(雪竹)[－쭉]
설중(雪中)[－쭝]
설증(泄症)[－쯩]
설진01(舌診)[－찐]
설진02(屑塵)[－찐]
설진03(設陣)[－찐]
설진04(雪震)[－찐]
설질(雪質)[－찔]
솔정(率丁)[－쩡]
솔직－하다(率直－－)[－찌카－]
술자01(述者)[－짜]
술작(述作)[－짝]
술정(戌正)[－쩡]
술좌(戌坐)[－쫘]
술중(術中)[－쭝]
술지(術智)[－찌]
술직(述職)[－찍]
실자01(實子)[－짜]
실자02(實字)[－짜]
실자03(實姊)[－짜]
실－작인(實作人)
열전03(熱戰)[－쩐]
열－전기(熱電氣)
열전－냉각(熱電冷却)[－쩐－－]
열－전능(熱電能)
열－전달(熱傳達)
열－전대(熱電對)
열－전력(熱電力)[－절－]
열－전류(熱電流)[－절－]
열전－쌍(熱電雙)[－쩐－]
열－전자(熱電子)
열－전지(熱電池)
열전－체(列傳體)[－쩐－]
열－전퇴(熱電堆)[－－퇴/－－퉤]
열절(烈節)[－쩔]
실절(失節)[－쩔]
실점(失點)[－쩜]
실정01(失政)[－쩡]
실정02(失貞)[－쩡]
실정03(實定)[－쩡]
실정04(實情)[－쩡]
실제01(實弟)[－쩨]
실제02(實際)[－쩨]
실제03(實題)[－쩨]
실조01(失措)[－쪼]
실조02(失調)[－쪼]
실족(失足)[－쪽]
실존(實存)[－쫀]
실종(失踪)[－쫑]
실주(實株)[－쭈]
실죽(實竹)[－쭉]
실중(失中)[－쭝]
실－중력(實中力)[－－녁]
실즉허(實則虛)[－쯔커]
실증01(實症)[－쯩]
실증02(實證)[－쯩]
실지01(失支)[－찌]
열지01(裂指)[－찌]
열지02(熱地)[－찌]
열지03(熱志)[－찌]
열－지수(熱指數)
열진01(列陣)[－찐]
열진02(烈震)[－찐]
올자－학(兀者學)[－짜－]
올좌(兀坐)[－쫘]
울적－하다01(鬱寂－－)[－쩌카－]
울적02(鬱積)[－쩍]
울절(鬱折)[－쩔]
울정(鬱情)[－쩡]
울주－군(蔚州郡)[－쭈－]
울증(鬱症)[－쯩]
울지－을승(尉遲乙僧)[－찌－－]
실진무휘(實陣無諱)[－찐－－]
실질(實質)[－찔]
알자02(謁者)[－짜]
알쟁(戛箏)[－쨍]
알절(遏絕)[－쩔]
알정(遏情)[－쩡]
알족(空足)[－쪽]
알주(訐嗾)[－쭈]
알지(遏止)[－찌]
얼자(孼子)[－짜]
열자01(列子)[－짜]
열－작용(熱作用)
열－잡음(熱雜音)
열－장부(烈丈夫)[－짱－]
열재(劣才)[－째]
열－저장(熱貯藏)
열적(烈蹟)[－쩍]
열－적도(熱赤道)[－－또]
열전01(列傳)[－쩐]
열전02(烈傳)[－쩐]
월조02(越調)[－쪼]
월조－평(月朝評)[－쪼－]
월족(刖足)[－쪽]
월종(月終)[－쫑]
월주(越州)[－쭈]
월중(月中)[－쭝]
월지(月氏)[－찌]
월지－국(月支國)[－찌－]
월지악－전(月池嶽典)[－찌－쩐]
월직－사자(月直使者)[－찍싸－]
월－직성(月直星)[－찍썽]
월진01(月塵)[－찐]
월진02(月震)[－찐]
월진03(越津)[－찐]

열점(熱點)[-쩜]	-씅]	율자01(栗子)[-짜]
열-접착(熱接着)	울진(蔚珍)[-찐]	율자02(栗刺)[-짜]
열정01(劣情)[-쩡]	월자01(月子)[-짜]	율자-보(律字譜)[-짜-]
열정02(熱情)[-쩡]	월자02(月滋)[-짜]	율장(律藏)[-짱]
열제(熱劑)[-쩨]	월장01(月杖)[-짱]	율절(律絕)[-쩔]
열조01(列朝)[-쪼]	월장02(月將)[-짱]	율조(律調)[-쪼]
열조02(烈祖)[-쪼]	월장03(越牆/越墻)[-짱]	율종(律宗)[-쫑]
열조-갱장록(列朝羹墻錄)[-쪼—녹]	월장-석(月長石)[-짱-]	율줄(嵂崒)[-쭐]
열종(劣種)[-쫑]	월장성구(月章星句)[-짱--]	을자-진(乙字陣)[-짜-]
열-종대(列從隊)	월전01(月前)[-쩐]	을제(乙第)[-쩨]
열좌01(列坐)[-쫘]	월전02(月殿)[-쩐]	을조(乙鳥)[-쪼]
열좌02(列座)[-쫘]	월전03(月顚)[-쩐]	을종(乙種)[-쫑]
열-좌욕(熱坐浴)	월정01(月汀)[-쩡]	을좌(乙坐)[-쫘]
열주(列柱)[-쭈]	월정02(月定)[-쩡]	을지-형(乙支型)[-찌-]
열중(熱中)[-쭝]	월정-사(月精寺)[-쩡-]	일자01(一字)[-짜]
열-중성자(熱中性子)	월정-집(月汀集)[-쩡-]	일자03(一者)[-짜]
열증(熱症)[-쯩]	월조01(越俎)[-쪼]	일자04(日子)[-짜]
일자08(逸字)[-짜]	일절지사(一節之士)[-쩔찌-]	일자06(日者)[-짜]
일작01(一作)[-짝]	일점-쇄선(一點鎖線)[-쩜--]	-횡/-쫑-휑]
일작02(一酌)[-짝]	일정01(一定)[-쩡]	일좌(一座)[-쫘]
일작03(日昨)[-짝]	일정02(日政)[-쩡]	일죄(一罪)[-쬐/-쮀]
일장01(一將)[-짱]	일정03(日程)[-쩡]	일주01(一走)[-쭈]
일장02(一場)[-짱]	일정04(日精)[-쩡]	일주02(一周)[-쭈]
일-장검(一長劍)[-짱-]	일정05(逸政)[-쩡]	일주03(一籌)[-쭈]
일장-기(日章旗)[-짱-]	일정06(逸情)[-쩡]	일주04(日酒)[-쭈]
일장월취(日將月就)[-짱--]	일정일동(一靜一動)[-쩡-똥]	일주05(逸走)[-쭈]
일장일단(一長一短)[-짱-딴]	일제01(一齊)[-쩨]	일주-권(日週圈)[-쭈꿘]
일장일이(一張一弛)[-짱--]	일제02(日帝)[-쩨]	일주-기01(一週忌)[-쭈-]
일장-지(一張紙)[-짱-]	일제03(日製)[-쩨]	일-주기02(日週期)[-쭈-]
일-장폭(一長瀑)[-짱-]	일조01(一兆)[-쪼]	일주-문(一柱門)[-쭈-]
일재(逸才)[-쩨]	일조03(一助)[-쪼]	일-주야(一晝夜)[-쭈-]
일-재복(日再服)[-쩨-]	일조04(一條)[-쪼]	일준(一遵)[-쭌]
일재일예(一才一藝)[-쩨--]	일조05(一朝)[-쪼]	일중01(一中)[-쭝]
	일조06(日照)[-쪼]	일중03(日中)[-쭝]
		일즙일채(一汁一菜)[-쯔빌-]
		일증(日增)[-쯩]
		일지01(一支)[-찌]

일적(一滴)[-쩍]	일조07(逸調)[-쪼]	일지02(一枝)[-찌]
일전01(一戰)[-쩐]	일조08(逸藻)[-쪼]	일지03(一指)[-찌]
일전02(一錢)[-쩐]	일조-부귀(一朝富貴)[-쪼--]	일지04(日至)[-찌]
일전03(一轉)[-쩐]		일지05(日誌)[-찌]
일전04(日前)[-쩐]	일조부등(日潮不等)[-쪼--]	일지06(逸志)[-찌]
일전05(逸典)[-쩐]		일지-록(日知錄)[-찌-]
일-전기(一轉機)	일족01(一族)[-쪽]	일지-반전(一紙半錢)[-찌--]
일전쌍조(一箭雙鵰)[-쩐--]	일족02(一簇)[-쪽]	
	일족03(逸足)[-쪽]	일지-반해(一知半解)[-찌--]
일전양주-제(一田兩主制)[-쩐냥--]	일종01(一宗)[-쫑]	
	일종02(一終)[-쫑]	일직01(一直)[-찍]
일전일도(一顚一倒)[-쩌닐또]	일종03(一種)[-쫑]	일직02(日直)[-찍]
	일종04(日中▽)[-쫑]	일-직선(一直線)[-찍썬]
일절01(一切)[-쩔]	일종-일횡(一縱一橫)[-쫑	일-직성(日直星)[-찍썽]
일진01(一陣)[-찐]	절정03(絕頂)[-쩡]	절진02(絕盡)[-찐]
일진02(一眞)[-찐]	절제01(切除)[-쩨]	절진04(節鎭)[-찐]
일진03(一塵)[-찐]	절제02(節制)[-쩨]	절질(折跌)[-찔]
일진04(日辰)[-찐]	절제03(節製)[-쩨]	졸자01(卒者)[-짜]
일진05(日進)[-찐]	절조01(絕調)[-쪼]	졸자03(拙者)[-짜]
일진06(日盡)[-찐]	절조02(節操)[-쪼]	졸작(拙作)[-짝]
일진일신(一進一新)	절족01(絕足)[-쪽]	졸장(拙匠)[-짱]
일-진작(一眞勺)[-찐-]	절족02(節足)[-쪽]	졸-장부(拙丈夫)[-짱-]
일질01(一秩)[-찔]	절족03(節族)[-쪽]	졸저(拙著)[-쩌]
일질02(日昳)[-찔]	절종(絕種)[-쫑]	졸전(拙戰)[-쩐]
일질03(逸帙)[-찔]	절좌-배상(折剉賠償)[-쫘---]	졸졸-요당(猝猝了當)[--료-]
일질일문(一質一文)[-찌럴-]	절주01(節奏)[-쭈]	졸종(顓腫)[-쫑]
	절주02(節酒)[-쭈]	졸중01(卒中)[-쭝]
절자-옥(切子玉)[-짜-]	절중-하다01(切中--)[-쭝--]	졸중-하다(猝重--)[-쭝---]
절장01(折杖)[-짱]		
절장02(截腸)[-짱]	절중-하다02(折中--)[-쭝--]	졸지-하다(拙遲--)[-찌---]
절장보단(絕長補短/截長補短)[-짱--]		
	절중-하다03(節中--)[-쭝--]	졸지02(猝地)[-찌]
절재(絕才)[-째]		졸직-이(拙直-)[-찌기]
절재-봉(切裁峯)[-째-]	절증(癤症)[-쯩]	줄장(茁長)[-짱]
절적01(絕跡/絕迹)[-쩍]	절증지-하다(切憎之--)[-쯩---]	질-적(質的)[-쩍]
절적-하다02(節適--)[-쩌카-]		질자01(姪子)[-짜]
절전01(折錢)[-쩐]	절증지원(切憎之怨)[-쯩	질자02(質子)[-짜]

절전02(絕巔)[－쩐]	－－]	질재(軼材)[－째]
절전03(節電)[－쩐]	절지01(切至)[－찌]	질저－귀신(質諸鬼神)[－쩌
절절－하다02(切切－－)	절지02(折枝)[－찌]	－－]
절절06(折節)[－쩔]	절지03(絕地)[－찌]	질－전정(膣前庭)
절절－하다04(截截－－)	절지04(節肢)[－찌]	질점(質點)[－쩜]
절점01(切點)[－쩜]	절지05(窴脂)[－찌]	질정01(叱正)[－쩡]
절점02(節點)[－쩜]	절지－림(截枝林)[－찌－]	질정02(質正)[－쩡]
절접(切椄)[－쩝]	절직－하다(切直－－)[－찌카	질정03(質定)[－쩡]
절정01(切釘)[－쩡]	－]	질정04(膣錠)[－쩡]
절정02(切情)[－쩡]	절진01(切診)[－찐]	질제01(姪娣)[－쩨]
질제02(質劑)[－쩨]	철적02(鐵笛)[－쩍]	－－]
질족(疾足)[－쪽]	철전01(撤廛)[－쩐]	철직01(撤直)[－찍]
질주(疾走)[－쭈]	철전02(鐵箭)[－쩐]	철질02(鐵質)[－찔]
질중－하다(質重－－)[－쭝	철전03(鐵錢)[－쩐]	철－질려(鐵蒺藜)[－찔－]
－－]	철점(鐵店)[－쩜]	철집02(綴輯)[－쩝]
질증02(疾憎)[－쯩]	철정01(鐵釘)[－쩡]	철－집합(凸集合)[－지팝]
질지여수(疾之如讐)[－찌	철정02(鐵梃)[－쩡]	출자(出資)[－짜]
－－]	철정03(鐵鼎)[－쩡]	출장01(出張)[－짱]
질직－하다(質直－－)[－찌카	철정04(鐵錠)[－쩡]	출장02(出場)[－짱]
－]	철제01(撤除)[－쩨]	출장－입상(出將入相)[－짱
찰제(擦劑)[－쩨]	철제02(鐵製)[－쩨]	－쌍]
찰제리(刹帝利)[－쩨－]	철제03(鐵劑)[－쩨]	출장－화(黜墻花)[－짱－]
찰조02(察照)[－쪼]	철제04(鐵蹄)[－쩨]	출재01(出宰)[－째]
찰주01(札駐)[－쭈]	철조01(凸彫)[－쪼]	출재02(黜齋)[－째]
찰주02(刹柱)[－쭈]	철조02(撤朝)[－쪼]	출재－업(出材業)[－째－]
찰주03(擦柱)[－쭈]	철조03(輟朝)[－쪼]	출전01(出典)[－쩐]
찰주－악기(擦奏樂器)[－쭈	철조04(鐵條)[－쪼]	출전02(出戰)[－쩐]
－끼]	철조05(鐵造)[－쪼]	출전03(出纏)[－쩐]
찰중(察衆)[－쭝]	철조－법(徹照法)[－쪼뻡]	출－전병02(秫煎餠)
찰지(察知)[－찌]	철종(哲宗)[－쫑]	출전－피(出箭皮)[－쩐－]
찰직(察職)[－찍]	철주01(掣肘)[－쭈]	출점(出店)[－쩜]
철자03(綴字)[－짜]	철주02(撤酒)[－쭈]	출정01(出廷)[－쩡]
철장01(哲匠)[－짱]	철주03(鐵朱)[－쭈]	출정02(出定)[－쩡]
철장02(綴裝)[－짱]	철주04(鐵舟)[－쭈]	출정03(出征)[－쩡]
철장03(鐵匠)[－짱]	철주05(鐵冑)[－쭈]	출제(出題)[－쩨]
철장04(鐵杖)[－짱]	철주06(鐵柱)[－쭈]	출조(出調)[－쪼]
철장05(鐵場)[－짱]	철주07(鐵酒)[－쭈]	출좌(出座)[－쫘]
철장06(鐵腸)[－짱]	철－주자(鐵鑄字)[－쭈－]	출주01(出主)[－쭈]

철장07(鐵漿)[-짱]
철장-석심(鐵腸石心)[-짱-씸]
철재(鐵材)[-째]
철저(徹底)[-쩌]
철적01(轍迹)[-쩍]
출진02(出陳)[-찐]
출진03(出塵)[-찐]
칠자01(七子)[-짜]
칠자02(七字)[-짜]
칠장01(漆匠)
칠장02(漆欌)
칠재01(七材)[-째]
칠재02(七齋)[-째]
칠-재자(七才子)[-째-]
칠적01(七赤)[-쩍]
칠적02(七賊)[-쩍]
칠전01(漆田)[-쩐]
칠전02(漆廛)[-쩐]
칠전팔기(七顚八起)[-쩐--]
칠전팔도(七顚八倒)[-쩐-또]
칠절(七絕)[-쩔]
칠절-봉(七節峯)[-쩔-]
칠정01(七井)[-쩡]
칠정02(七政)[-쩡]
칠정03(七情)[-쩡]
칠조(七調)[-쪼]
칠-조각(漆彫刻)
칠-조약(七條約)[-쪼-]
칠족(七族)[-쪽]
칠종(七宗)[-쫑]
칠종칠금(七縱七擒)[-쫑--]
칠좌-성(七座星)[-쫘-]
칠-죄종(七罪宗)[-쬐-/-쮀-]
철-중석(鐵重石)
철중-쟁쟁(鐵中錚錚)[-쭝--]
철증(鐵症)[-쯩]
철지(掣摯)[-찌]
철지지원(徹地之冤)[-찌--]
칠-중주(七重奏)[-쭝-]
칠즙(漆汁)
칠증(七證)[-쯩]
칠지01(七支)[-찌]
칠지02(七指)[-찌]
칠지03(漆紙)[-찌]
칠진01(七珍)[-찐]
칠진02(七診)[-찐]
칠진-수(七進數)[-찐-]
칠질01(七秩)[-찔]
칠질02(七耋)[-찔]
탈자01(脫字)[-짜]
탈자02(脫磁)[-짜]
탈장(脫腸)[-짱]
탈재(奪財)[-째]
탈저(脫疽)[-쩌]
탈적01(脫籍)[-쩍]
탈적02(奪嫡)[-쩍]
탈전자-제(脫電子劑)
탈절(奪節)[-쩔]
탈점(奪占)[-쩜]
탈정(奪情)[-쩡]
탈조(脫調)[-쪼]
탈종(奪宗)[-쫑]
탈죄(脫罪)[-쬐/-쮀]
탈주(脫走)[-쭈]
탈주-범(脫走犯)[-쭈-]
탈증(脫症)[-쯩]
탈지01(脫脂)[-찌]
탈지02(奪志)[-찌]
탈직(脫職)
출주02(出走)[-쭈]
출주03(出駐)[-쭈]
출중-하다(出衆--)[-쭝--]
출직(出直)[-찍]
출진01(出陣)[-찐]
탈진-기(脫進機)[-찐-]
탈질(脫窒)[-찔]
팔자01(八字)[-짜]
팔-잡가(八雜歌)[--까]
팔-장사(八壯士)[-짱-]
팔-장신(八將神)[-짱-]
팔재(八災)[-째]
팔-재계(八齋戒)[--계/--게]
팔전(八專)[-쩐]
팔전자-군(八電子群)
팔절01(八折)[-쩔]
팔절02(八節)[-쩔]
팔절-판(八切判)[-쩔-]
팔정(八定)[-쩡]
팔-정도(八正道)[-쩡-]
팔-조목(八條目)[-쪼-]
팔조-법(八條法)[-쪼뻡]
팔족-시(八足詩)[-쪽씨]
팔-종성(八終聲)[-쫑-]
팔종-시(八種施)[-쫑-]
팔좌(八座)[-쫘]
팔주(八柱)[-쭈]
팔-주령(八珠鈴)[-쭈-]
팔-주비전(八注比廛)[-쭈--]
팔준(八駿)[-쭌]
팔-준마(八駿馬)[-쭌-]
팔중-주(八重奏)[-쭝-]
팔-중창(八重唱)
팔진(八鎭)[-찐]
팔진-고(八珍糕)[-찐-]

칠중(七衆)[－쭝]	탈진01(脫盡)[－찐]	
칠중－나마(七重奈麻)[－팔	탈진02(脫塵)[－찐]	팔진－도(八陣圖)[－찐－]
진－법(八進法)[－찐뻡]		팔－진미(八珍味)[－찐－]
팔－진복(八眞福)	필진(筆陣)[－찐]	혈증(血症)[－쯩]
팔질02(八耋)[－찔]	필집(筆執)[－찝]	혈지01(血池)[－찌]혈지02
필자02(筆者)[－짜]	할접(割椄)[－쩝]	(血舐)[－찌]
필장(筆匠)[－짱]	할족(割足)[－쪽]	혈징(血癥)[－찡]
필재(筆才)[－째]	할주(割註)[－쭈]	홀저－하다(忽諸－－)[－쩌
필적01(匹敵)[－쩍]	할증(割增)[－쯩]	－－] 홀지01(忽只/忽赤
필적02(筆跡)[－쩍]	헐장(歇杖)[－짱]	▽)[－찌]
필전01(必傳)[－쩐]	혈장01(穴藏)[－짱]	홀지02(忽地)[－찌]
필전02(筆戰)[－쩐]	혈장02(血漿)[－짱]	활자01(活字)[－짜](활－자
필점(筆占)[－쩜]	혈장－탕(血臟湯)[－짱－]	이 _
필정(必定)[－쩡]	혈쟁(血爭)[－쨍]	활자02(蝌子)[－짜]
필조(匹鳥)[－쪼]	혈적01(血跡)[－쩍]	활적(猾賊)[－쩍]
필종(筆宗)[－쭝]	혈적02(血積)[－쩍]	활전(活栓)[－쩐]
필종－곡(必從谷)[－쫑－]	혈전01(血栓)[－쩐]	활제(滑劑)[－쩨]
필주01(匹儔)[－쭈]	혈전02(血戰)[－쩐]	활주02(滑走)[－쭈]
필주02(筆誅)[－쭈]	혈제(血祭)[－쩨]	활주03(滑奏)[－쭈]
필중(必中)[－쭝]	혈조01(血詔)[－쪼]	활지01(猾智)[－찌]
필지01(必至)[－찌]	혈조02(血漕)[－쪼]	활지02(闊地)[－찌]
필지02(必知)[－찌]	혈조03(血潮)[－쪼]	횰전(恤典)[－쩐]
필지03(筆地)[－찌]	혈족(血族)[－쪽]	힐조(詰朝)[－쪼]
필지04(筆紙)[－찌]	혈종(血腫)[－쫑]	힐주(詰誅)[－쭈]
필지어서(筆之於書)[－찌	혈주(血珠)[－쭈]	힐지(纈支)[－찌]
－－]	혈중(血中)[－쭝]	힐지－항지(詰之詰之)[－찌
		－－]

□□ㄹ － ㄷ□□

갈도01(喝道/喝導)[－또]	갈등(葛藤)[－뜽]	결당(結黨)[－땅]
갈도02(葛島)[－또]	걸대02(傑大)[－때]	결－대전(結代錢)[－때－]
갈동(褐銅)[－똥]	결단01(決斷)[－딴]	결동(結冬)[－똥]
갈두01(楬豆)[－뚜]	결단02(結團)[－딴]	결두－전(結頭錢)[－뚜－]
갈두02(碣斗)[－뚜]	결답(決答)[－땁]	결득(決得)[－뜩]
결등(決等)[－뜽]	멸도01(滅度)[－또]	별동(別棟)[－똥]
골다공－증(骨多孔症)[－－－	멸도02(滅道)[－또]	별동－대(別動隊)[－똥－]

쯩]	멸등(滅燈)[－뜽]	별두01(別頭)[－뚜]
골단(骨端)[－딴]	몰두(沒頭)[－뚜]	별두02(鼈頭)[－뚜]
골당(骨堂)[－땅]	물동－량(物動量)[－똥냥]	불단(佛壇)[－딴]
골독어(骨獨魚)[－또거]	밀담(密談)[－땀]	불당(佛堂)[－땅]
골독－하다(汨篤－－)[－또카－]	밀도01(密度)[－또]	불덕(佛德)[－떡]
	밀도02(密屠)[－또]	불도01(佛徒)[－또]
골돌(冓橖)[－똘]	밀도03(蜜刀)[－또]	불도02(佛道)[－또]
골동01(骨疼)[－똥]	밀－도살(密屠殺)[－또－]	불－도량(佛道場)
골동02(骨董)[－똥]	발다라(鉢多羅)	불도징(佛圖澄)
괄대(恝待)[－때]	발단(發端)[－딴]	불두(佛頭)[－뚜]
궐덕－산(蕨德山)[－떡싼]	발단심장(髮短心長)[－딴－－]	불등(佛燈)[－뜽]
궐－두통(厥頭痛)		살달타(薩怛陀)
글단(契丹)[－딴]	발달(發達)[－딸]	설단02(舌端)[－딴]
눌도(訥島)[－또]	발담마(鉢曇摩)[－땀－]	설단－증(舌短症)[－딴쯩]
달단(韃靼)[－딴]	발당(發黨)[－땅]	설당01(雪堂)[－땅]
달달－가무(達達歌舞)	발대02(發隊)[－때]	설대03(舌代)[－때]
달덕(達德)[－떡]	발도01(拔刀)[－또]	설대04(楔隊)[－때]
달도01(達島)[－또]	발도02(拔都)[－또]	설－대형(楔隊形)[－때－]
달도02(達徒)[－또]	발도03(發途)[－또]	설도01(舌刀)[－또]
달도03(達道)[－또]	발동(發動)[－똥]	설도02(說道)[－또]
달도－가(怛忉歌)[－또－]	발두(發頭)[－뚜]	설－도03(薛濤)
달두－가한(達頭可汗)[－뚜－－]	발두마(鉢頭摩)[－뚜－]	설도－사문(說道沙門)[－또－－]
돌단02(突端)	벌대－총(伐大驄)[－때－]	설독(褻瀆)[－똑]
돌대－문(突帶文)	벌도(伐倒)[－또]	설동(雪洞)[－똥]
돌독(突禿)	별－다례(別茶禮)	설두01(舌頭)[－뚜]
돌돌03(咄咄)	별단01(別段)[－딴]	설두02(設頭)[－뚜]
말다04(末茶)[－따]	별단02(別單)[－딴]	설득(說得)[－뜩]
말단(末端)[－딴]	별당(別堂)[－땅]	솔대－도피(率隊逃避)[－때－－]
말대02(末代)[－때]	별대(別隊)[－때]	
말도(末徒)[－또]	별－대왕(別大王)[－때－]	솔도파(率堵婆/窣堵婆)
멸대02(蔑待)[－때]	별도01(別途)[－또]	실단(悉檀)[－딴]
실달(悉達)[－딸]	별－도리(別道理)	일대05(一對)[－때]
실달다(悉達多)[－딸따]	월단(月旦)[－딴]	일－대겁(一大劫)[－때－]
실담01(失談)[－땀]	월당(月當)[－땅]	일대－식(日帶蝕)[－때－]
실담02(悉曇)[－땀]	월－대식(月帶蝕)[－때－]	일－대전(一大轉)[－때－]
실담03(實談)[－땀]	월도01(月刀)[－또]	일덕01(一德)[－떡]
실당(失當)[－땅]	월도02(月桃)[－또]	일덕02(逸德)[－떡]
	월도03(越桃)[－또]	

실－대승(實大乘)
실덕01(失德)[－떡]
실덕02(實德)[－떡]
실독－증(失讀症)[－똑쯩]
실동(實動)[－똥]
실득01(失得)[－뜩]
실득02(實得)[－뜩]
열다한소(熱多寒少)[－따－－]
열담(熱痰)[－땀]
열대03(列代)[－때]
열대04(熱帶)[－때]
열－대류(熱對流)
열도01(列島)[－또]
열도02(熱度)[－또]
열도04(熱禱)[－또]
열독01(熱毒)[－똑]
열독02(熱讀)[－똑]
열독03(閱讀)[－똑]
열두조충－과(裂頭條蟲科)[－뚜—꽈]
열등(劣等)[－뜽]
올돌－하다(兀突－－)[－똘－－]
올두(兀頭)[－뚜]
울담02(鬱痰)[－땀]
울도－하다(鬱陶－－)[－또－－]
절덕(節德)[－떡]
절도01(絕倒)[－또]
절도02(絕島)[－또]
절도03(節度)[－또]
절도04(竊盜)[－또]
절두(截頭)[－뚜]
절등－하다(絕等－－)[－뜽－－]
졸도01(卒倒)[－또]
졸도02(卒徒)[－또]
월도－관새(越度關塞)[－또－－]
월동(越冬)[－똥]
월두(月頭)[－뚜]
월등01(越等)[－뜽]
율당01(栗糖)[－땅]
율도(栗島)[－또]
율동(律動)[－똥]
일다－경(一茶頃)[－따－]
일단01(一旦)[－딴]
일단02(一段)[－딴]
일단03(一簞)[－딴]
일단04(一團)[－딴]
일단05(一端)[－딴]
일－단락(一段落)[－딸－]
일단사－일두갱(一簞食一豆羹)[－딴—뚜－]
일－단음(一短音)[－따늠]
일단－일장(一短一長)[－따닐짱]
일당01(一堂)[－땅]
일당02(一黨)[－땅]
일당03(日當)[－땅]
일당백(一當百)[－땅－]
일대01(一大)[－때]
일대02(一代)[－때]
일대03(一帶)[－때]
일대04(一隊)[－때]
출도(秫稻)[－또]
출동(出動)[－똥]
출두01(出痘)[－뚜]
출두02(出頭)[－뚜]
출등－하다(出等－－)[－뜽－－]
칠당(七堂)[－땅]
칠대(七大)[－때]
일도01(一刀)[－또]
일도02(一到)[－또]
일도03(一度)[－또]
일도04(一途)[－또]
일도05(一道)[－또]
일독01(一讀)[－똑]
일－독회(一讀會)[－또쾨/－또퀘]
일동01(一同)[－똥]
일동02(一洞)[－똥]
일동일정(一動一靜)[－똥－쩡]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똥－－－]
일득－록(日得錄)[－뜽녹]
일득일실(一得一失)[－뜨길씰]
일등(一等)[－뜽]
절단01(切斷/截斷)[－딴]
절단02(折斷)[－딴]
절단03(絕斷)[－딴]
절담(絕談)[－땀]
절당－하다(切當－－)[－땅－－]
절대－하다(絕大－－)[－때－－]
절대04(絕代)[－때]
절대05(絕對)[－때]
필답(筆答)[－땁]
필대(匹對)[－때]도01(弼導)[－또]
필도02(筆道)[－또]
필독01(必讀)[－똑]
필독02(畢讀)[－똑]
필두(筆頭)[－뚜]
필득01(必得)[－뜩]
할단01(割斷)[－딴]
할단02(鶡鴠)[－딴]　할당

졸독(卒讀)[－똑]	칠－대복(七大福)[－때－] 칠대－실록(七代實錄)[－때－－]	(割當)[－땅]
질대02(迭代)[－때]	칠－대양(七大洋)[－때－]	혈담(血痰)[－땀]
질도(躓倒)[－또]	칠덕(七德)[－떡]	혈당01(血糖)[－땅]
질둔－하다(質鈍－－)[－뚠－－]	칠독(漆毒)[－똑]	혈당02(血黨)[－땅]
철－다각형(凸多角形)[－－가켱]	탈당(脫黨)[－땅]	혈도01(穴道)[－또]
철단(鐵丹)[－딴]	탈－대중화(脫大衆化)	혈도02(血途)[－또]
철－단백질(鐵蛋白質)[－－－찔]	탈도(脫刀)[－또]	홀대(忽待)[－때]
철대02(鐵臺)[－때]	탈동(脫銅)[－똥]	홀동－석(忽洞石)[－똥－]
철－대사(鐵代謝)	팔달(八達)[－딸]	활－단층(活斷層)
철도(鐵道)[－또]	팔대02(八代)[－때]	활달－하다(豁達－－)[－딸－－]
철독(鐵毒)[－똑]	팔－대가(八大家)[－때－]	활담(豁痰)[－땀]
철두－철미(徹頭徹尾)[－뚜－－]	팔－대문(八大門)[－때－]	활대－하다(闊大－－)[－때－－]
출당(黜黨)[－땅]	팔대어(八帶魚)[－때－]	활동01(活東)[－똥]
출대01(出代)[－때]	팔덕(八德)[－떡]	활동02(活動)[－똥]
출대02(出隊)[－때]	팔도(八道)[－또]	활동03(滑動)[－똥]
	팔－등신(八等身)[－뜽－]	활두(滑頭)[－뚜]
	필단01(疋緞)[－딴]	힐단(詰旦)[－딴]
	필단02(筆端)[－딴]	
	필필담(筆談)[－땀]	

□□ㄹ - ㅅ□□

갈사(暍死)[－싸]	결성(結成)[－썽]	골신02(骨身)[－씬]
갈사－국(曷思國)[－싸－]	결세(結稅)[－쎄]	괄선(括線)[－썬]
갈－사초(褐莎草)	결속(結束)[－쏙]	괄시(恝視)[－씨]
갈삭(葛索)[－쌕]	결손(缺損)[－쏜]	굴삭(掘削)[－쌕]
갈삼(葛衫)[－쌈]	결송(決訟)[－쏭]	굴산－사(崛山寺)[－싼－]
갈상정장(葛上亭長)[－쌍－－]	결수01(決水)[－쑤]	굴상－성(屈傷性)[－쌍썽]
갈색(褐色)[－쌕]	결수02(結手)[－쑤]	굴설(掘設)[－썰]
갈수(渴水)[－쑤]	결수03(結數)[－쑤]	굴성(屈性)[－썽]
갈식(喝食)[－씩]	결순(缺脣)[－쑨]	굴수－구(掘水溝)[－쑤－]
걸사01(乞士)[－싸]	결승01(決勝)[－씅]	굴수－성(屈水性)[－쑤썽]
걸사02(傑士)[－싸]	결승02(結繩)[－씅]	굴슬(屈膝)[－쓸]
	결시(缺試)[－씨]	굴습－성(屈濕性)[－씁썽]

걸사03(傑舍)[－싸]	결식(缺食)[－씩]	굴식(窟式)[굴:씩]
걸승01(乞僧)[－씅]	결신(潔身)[－씬]	굴신01(屈伸)[－씬]
걸승02(傑僧)[－씅]	결신－자(決信者)[－씬－]	굴신02(屈身)[－씬]
걸식(乞食)[－씩]	결실01(缺失)[－씰]	굴실(窟室)[굴:씰]
걸신01(乞身)[－씬]	결실02(結實)[－씰]	굴심(屈心)[－씸]
걸신02(乞神)[－씬]	결심01(決心)[－씸]	궐사01(闕仕)[－싸]
결사01(決死)[－싸]	결심02(結審)[－씸]	궐사02(闕祀)[－싸]
결사02(訣辭)[－싸]	결심육력－하다(結心戮力－－)[－씸뉵녀카－]	궐석(闕席)[－썩]
결사03(結使)[－싸]		궐수－문(蕨手文)[－쑤－]
결사04(結社)[－싸]	골산(骨山)[－싼]	궐식(闕食)[－씩]
결사05(結辭)[－싸]	골상(骨相)[－쌍]	궐실(闕失)[－씰]
결사－비(決事比)[－싸－]	골－세포(骨細胞)	궐－심통(厥心痛)[－씸－]
결삭(結索)[－싹]	골소01(骨蘇)[－쏘]	귤색(橘色)[－쌕]
결산(決算)[－싼]	골소02(骨素)[－쏘]	길사01(吉士)[－싸]
결상(結像)[－쌍]	골－소강(骨小腔)[－쏘－]	길사03(吉事)[－싸]
결생(潔生)[－쌩]	골소다(骨蘇多)[－쏘－]	길상－하다(吉上－－)[－쌍－－]
결석01(缺席)[－썩]	골－소체(骨小體)[－쏘－]	
결석02(結石)[－썩]	골쇄－관(骨鎖觀)[－쐐－]	길상02(吉相)[－쌍]
결선01(決選)[－썬]	골－쇄보(骨碎補)[－쐐－]	길상03(吉祥)[－쌍]
결선02(結船)[－썬]	골수(骨髓)[－쑤]	길상04(吉象)[－쌍]
결선03(結線)[－썬]	골습(骨濕)[－씁]	길서(吉瑞)[－써]
길석(吉席)[－썩]	멸사(滅私)[－싸]	물시(勿施)[－씨]
길－선주(吉善宙)	멸살(滅殺)[－쌀]	물신(物神)[－씬]
길성(吉星)[－썽]	멸상(滅相)[－쌍]	물심(物心)[－씸]
길시01(吉時)[－씨]	멸성(滅性)[－썽]	물심－양면(物心兩面)[－씸냥－]
길신(吉辰)[－씬]	멸성제(滅聖諦)[－썽－]	
날수02(辣手)[－쑤]	멸시(蔑視)[－씨]	밀사01(密事)[－싸]
눌삽－하다(訥澁－－)[－사파－]	멸실(滅失)[－씰]	밀사02(密使)[－싸]
	몰사(沒死)[－싸]	밀사03(密査)[－싸]
달사01(達士)[－싸]	몰살(沒殺)[－쌀]	밀－사탕(蜜沙糖▽)
달사02(達師)[－싸]	몰－상식(沒常識)[－쌍－]	밀살(密殺)[－쌀]
달사03(達辭)[－싸]	몰서(沒書)[－써]	밀삼(密蔘)[－쌈]
달상－하다(怛傷－－)[－쌍－－]	몰선－묘법(沒線描法)[－썬－뻡]	밀상(密商)[－쌍]
		밀생(密生)[－쌩]
달상02(達相)[－쌍]	몰세(歿世/沒世)[－쎄]	밀서(密書)[－써]
달생(達生)[－쌩]	몰소(沒燒)[－쏘]	밀선01(密船)[－썬]
달서(達曙)[－써]	몰속(沒屬)[－쏙]	밀선02(蜜腺)[－썬]
달선(達善)[－썬]	몰송(沒誦)[－쏭]	밀소01(密召)[－쏘]

달성(達成)[－썽]	몰수01(沒收)[－쑤]	밀소02(密疏)[－쏘]
달성－군(達城郡)[－썽－]	몰수02(沒數)[－쑤]	밀소03(密訴)[－쏘]
달소(達宵)[－쏘]	몰수－금(沒收金)[－쑤－]	밀속(密束)[－쏙]
달솔(達率)[－쏠]	몰식(沒食)[－씩]	밀송(密送)[－쏭]
달식(達識)[－씩]	몰실－하다(沒實－－)[－씰－－]	밀수02(密輸)[－쑤]
돌산－도(突山島)[－싼－]	물산(物産)[－싼]	밀수03(密穗)[－쑤]
돌송(突誦)[－쏭]	물상01(物象)[－쌍]	밀수04(蜜水)[－쑤]
말사(末寺)[－싸]	물상02(物像)[－쌍]	밀－수입(密輸入)[－쑤－]
말삭01(抹削)[－싹]	물상－객주(物商客主)[－쌍－쭈]	밀식(密植)[－씩]
말살(抹殺/抹撒)[－쌀]	물색02(物色)[－쌕]	밀신(密贐)[－씬]
말석(末席)[－썩]	물선(物膳)[－썬]	밀실(密室)[－씰]
말세03(末世)[－쎄]	물성(物性)[－썽]	발사01(發射)[－싸]
말－세기(末世紀)[－쎄－]	물세03(物稅)[－쎄]	발사02(跋辭)[－싸]
말소02(抹消)[－쏘]	물소02(物素)[－쏘]	발산01(拔山)[－싼]
말속03(末俗)[－쏙]	물소03(物騷)[－쏘]	발산02(發散)[－싼]
말손(末孫)[－쏜]	별－사건(別事件)[－－껀]	발상01(發祥)[－쌍]
말시(末試)[－씨]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발상02(發喪)[－쌍]
발상03(發想)[－쌍]	별사－배달(別使配達)[－싸－－]	별－순검(別巡檢)
발색(發色)[－쌕]	별－사옹(別司饔)	별－승호(別陞戶)
발색－형(拔塞型)[－쌔켱]	별사－이(別仕二)[－싸－]	별시01(別時)[－씨]
발생(發生)[－쌩]	별사－전(別賜田)[－싸－]	별시02(別試)[－씨]
발석(襏襫)[－썩]	별－산대(別山臺)	별－시위(別侍衛)
발선(發船)[－썬]	별산－제(別産制)[－싼－]	별식01(別式)[－씩]
발설(發說)[－썰]	별상02(別狀)[－쌍]	별식02(別食)[－씩]
발설－지옥(拔舌地獄)[－썰－－]	별상03(別相)[－쌍]	별신02(別神)[－씬]
발섭(跋涉)[－썹]	별상－무가(別上巫歌)[－쌍－－]	별실(別室)[－씰]
발성(發聲)[－썽]	별서(別墅)[－써]	불사01(不仕)[－싸]
발소(撥所)[－쏘]	별석(別席)[－썩]	불사02(不死)[－싸]
발속(拔俗)[－쏙]	별선01(別扇)[－썬]	불사－하다03(不似－－)[－싸－－]
발송(發送)[－쏭]	별선02(別選)[－썬]	불사04(不俟/不竢)[－싸]
발수02(拔穗)[－쑤]	별선03(別膳)[－썬]	불사05(不辭)[－싸]
발수03(拔髓)[－쑤]	별설01(別設)[－썰]	불사06(佛寺)[－싸]
발수04(發售)[－쑤]	별설03(蹩躠)[－썰]	불사07(佛事)[－싸]
발수05(發穗)[－쑤]	별성(別星)[－썽]	불사08(佛舍)[－싸]
발수－성(撥水性)[－쑤썽]		불사09(佛師)[－싸]
발식(髮飾)[－씩]		불사－가(不俟駕)[－싸－]
발신01(發身)[－씬]		불－사리(佛舍利)

발신02(發信)[-씬]	별세01(別世)[-쎄]	불사-문(不死門)[-싸-]
발심(發心)[-씸]	별세02(別歲)[-쎄]	불사이군(不事二君)[-싸--]
벌상(伐喪)[-쌍]	별-세계(別世界)[--계/--게]	불사이자사(不思而自思)[-싸---]
벌석(伐石)[-썩]	별-세상(別世上)	불살04(不殺)[-쌀]
벌선(伐善)[-썬]	별-세초(別歲抄)	불삽(黻翣)[-쌉]
벌성지부(伐性之斧)[-썽--]	별송(別送)[-쏭]	불상-하다01(不祥--)[-쌍--]
벌수(罰水)[-쑤]	별쇄(別刷)[-쐐]	불상03(佛相)[-쌍]
별사01(別仕)[-싸]	별쇄-본(別刷本)[-쐐-]	불-상견(不相見)[-쌍-]
별사02(別事)[-싸]	별수02(別受)[-쑤]	불-상능(不相能)[-쌍-]
별사03(別使)[-싸]	별수03(別數)[-쑤]	불-상당(不相當)[-쌍--]
별사04(別賜)[-싸]	별-수단(別手段)	불-수리(不受理)[-쑤-]
별사05(別辭)[-싸]	별순(別巡)[-쑨]	불수만(不須滿)[-쑤-]
불-상동(不相同)[-쌍-]	불성도-일(佛成道日)[-썽--]	불수빈(不須嚬)[-쑤-]
불-상득(不相得)[-쌍-]	불-성립(不成立)[-썽닙]	불수일(不數日)[-쑤-]
불-상용(不相容)[-쌍-]	불-성문(不成文)[-썽-]	불숙(不熟)[-쑥]
불-상응(不相應)[-쌍-]	불-성설(不成說)[-썽-]	불순01(不純)[-쑨]
불-상정(不上程)[-쌍-]	불-성실(不誠實)[-썽-]	불순02(不順)[-쑨]
불-상합(不相合)[-쌍-]	불성인사(不省人事)[-썽--]	불-순종(不順從)[-쑨-]
불-상화01(不相和)[-쌍-]	불성취-일(不成就日)[-썽--]	불승01(不勝)[-쓩]
불상-화02(佛桑花)[-쌍-]	불세(佛世)	불승02(佛乘)[-쓩]
불생01(不生)[-쌩]	불-세존(佛世尊)	불승03(佛僧)[-쓩]
불생02(佛生)[-쌩]	불세지공(不世之功)[-쎄--]	불-승인(不承認)[-쓩-]
불-생일(佛生日)[-쌩-]	불-세출(不世出)[-쎄-]	불시(不時)[-씨]
불생-회(佛生會)[-쌩회/-쌩훼]	불소-하다(不少--)[-쏘--]	불식01(不食)[-씩]
불서01(佛書)[-써]	불소02(弗素)[-쏘]	불식02(不息)[-씩]
불서03(拂曙)[-써]	불소03(佛所)[-쏘]	불식03(佛式)[-씩]
불석01(不惜)[-썩]	불-소급(不遡及)[-쏘-]	불식04(拂拭)[-씩]
불석02(沸石)[-썩]	불소-제(弗素劑)[-쏘-]	불식-간(不識間)[-씩깐]
불선01(不宣)[-썬]	불-소화01(不消化)	불신01(不臣)[-씬]
불선02(不善)[-썬]	불속-하다(不俗--)[-쏘카-]	불신02(不信)[-씬]
불선-하다02(不鮮--)[-썬--]	불속지객(不速之客)[-쏙찌	불신03(不愼)[-씬]
불-선명(不鮮明)[-썬-]		불신04(佛身)[-씬]
불선불후(不先不後)[-썬--]		
불설01(不屑)[-썰]		

불설02(佛說)[－썰]	－]	불신05(佛神)[－씬]
불섬－하다(不贍－－)[－썸－－]	불손(不遜)[－쏜]	불－신실(不信實)[－씬－]
불－섭생(不攝生)[－－쌩]	불수01(不隨/不遂)[－쑤]	불－신심(不信心)[－씬－]
불성01(不成)[－썽]	불수02(佛手)[－쑤]	불－신앙(不信仰)[－씨낭]
불성02(不誠)[－썽]	불수03(佛樹)[－쑤]	불－신용(不信用)[－씨뇽]
불성02(不誠)[－썽]	불수04(沸水)[－쑤]	불－신임(不信任)[－씨님]
불성03(佛性)[－썽]	불수－강(不銹鋼)[－쑤－]	불실01(不失)[－씰]
불성04(佛聖)[－썽]	불－수년(不數年)[－쑤－]	불실02(不悉)[－씰]
불－성공(不成功)[－썽－]	불수다언(不須多言)[－쑤	불심01(不審)[－씸]
불심02(佛心)[－씸]	설선02(雪線)[－썬]	실사04(實査)[－싸]
불심상관(不甚相關)[－씸－－]	설－선03(薛宣)	실사05(實寫)[－싸]
불－십호(佛十號)[－시포]	설설06(舌舌)	실사06(實辭)[－싸]
살사01(撒沙/撒砂)[－싸]	설설07(齧舌)	실－사회(實社會)[－싸회/－싸훼]
살산(撒散)[－싼]	설성01(舌聲)[－썽]	실산(失散)[－싼]
살상(殺傷)[－쌍]	설성－도(雪性度)[－썽－]	실산－하다(失散－－)[－싼－－]
살생(殺生)[－쌩]	설－소대(舌素帶)[－쏘－]	실상01(實狀)[－쌍]
살서(殺鼠)[－써]	설소－차(雪掻車)[－쏘－]	실상02(實相)[－쌍]
살성02(殺星)[－썽]	설송(雪松)[－쏭]	실상03(實像)[－쌍]
살성03(殺聲)[－썽]	설수(雪水)[－쑤]	실상－곡(實想曲)[－쌍－]
살세균－소(殺細菌素)	설－순(偰循)	실색(失色)[－쌕]
살－세포(殺細胞)	설술02(說述)[－쑬]	실생(實生)[－쌩]
살수01(殺手)[－쑤]	설시01(設市)[－씨]	실－생활(實生活)[－쌩－]
살수02(撒水)[－쑤]	설시02(設始)[－씨]	실서－증(失書症)[－써쯩]
살수03(薩水)[－쑤]	설시03(設施)[－씨]	실선02(實線)[－썬]
살신성인(殺身成仁)[－씬－－]	설시04(說示)[－씨]	실설(實說)[－썰]
	설식01(舌識)[－씩]	실섭(失攝)[－썹]
살심(殺心)[－씸]	설식02(雪蝕)[－씩]	실성01(失性)[－썽]
설사01(泄瀉)[－싸]	설－신경(舌神經)[－씬－]	실성02(室星)[－썽]
설사02(設使)[－싸]	설심주의(設心做意)[－씸－의/－씸－이]	실성03(實性)[－썽]
설산01(設産)[－싼]	솔서(率壻)	실성－왕(實聖王)[－썽－]
설산02(雪山)[－싼]	솔선(率先)[－썬]	실성－통곡(失性痛哭)[－썽－－]
설상01(舌狀)[－쌍]	솔성(率性)[－썽]	실세01(失勢)[－쎄]
설상04(楔狀)[－쌍]	솔성(率性)[－썽]	실세02(實勢)[－쎄]
설상－가상(雪上加霜)[－쌍－－]	술생(戌生)[－쌩]	실－세간(實世間)
설상－골(楔狀骨)[－쌍－]	술서(術書)[－써]	실－세계(實世界)[－－계
설상－형(舌狀形)[－쌍－]	술수(術數)[－쑤]	

설상-화02(雪上靴)[-쌍-]
설색01(設色)[-쌕]
설색02(雪色)[-쌕]
설서(說書)[-써]
설선01(舌腺)[-썬]
실속03(實速)[-쏙]
실-속도(實速度)[--또]
실솔(蟋蟀)[-쏠]
실수01(失手)[-쑤]
실수02(室宿)[-쑤]
실수03(實收)[-쑤]
실수04(實需)[-쑤]
실수05(實數)[-쑤]
실수-금(實受金)[-쑤-]
실-수요(實需要)
실-수입(實收入)[-쑤-]
실습(實習)[-씁]
실시01(失恃)[-씨]
실시02(失時)[-씨]
실시03(實施)[-씨]
실-시간(實時間)[-씨-]
실신01(失身)[-씬]
실신02(失信)[-씬]
실신03(失神)[-씬]
실심01(失心)[-씸]
실심02(悉心)[-씸]
실심03(實心)[-씸]
알사(謁奢)[-싸]
알삽-하다(戛澀--)[-싸파-]
알선(斡旋)[-썬]
알성(謁聖)[-썽]
알소(訐訴)[-쏘]
얼산(孼産)[-싼]
얼-삼촌(孼三寸)
얼속(孼屬)[-쏙]
얼손(孼孫)[-쏜]
열사01(烈士)[-싸]
술시(戌時)[-씨]
슬상(膝上)[-쌍]
슬슬-하다(瑟瑟--)
실사02(實仕)[-싸]
실사03(實事)[-싸]
열사03(熱沙/熱砂)[-싸]
열사-병02(熱射病)[-싸뼝]
열-산란(熱散亂)[-살-]
열상01(裂傷)[-쌍]
열상01(裂傷)[-쌍]
열색01(悅色)[-쌕]
열색02(噎塞)[-쌕]
열서01(列書)[-써]
열서02(列敍)[-써]
열서03(烈暑)[-써]
열석01(列石)[-썩]
열석02(列席)[-썩]
열석03(熱石)[-썩]
열선01(列線)[-썬]
열선02(熱線)[-썬]
열설(熱泄)[-썰]
열섭(閱涉)[-썹]
열성01(列星)[-썽]
열성02(列聖)[-썽]
열성03(劣性)[-썽]
열성04(熱性)[-썽]
열성05(熱誠)[-썽]
열세01(列世)[-쎄]
열세02(劣勢)[-쎄]
열세03(熱洗)[-쎄]
열세04(閱世)[-쎄]
열세05(閱歲)[-쎄]
열소(熱素)[-쏘]
열-소독(熱消毒)
열-속도(熱速度)[--또]
열손(熱損)[-쏜]
열쇄(熱殺)[-쐐]
열수01(列宿)[-쑤]
/--게]
실소02(失笑)[-쏘]
실-소득(實所得)
실-소유주(實所有主)
실속02(失速)[-쏙]
열수03(列樹)[-쑤]
열수04(洌水)[-쑤]
열수05(熱水)[-쑤]
열수06(熱嗽)[-쑤]
열-수지(熱收支)
열습(熱濕)[-씁]
열시(閱視)[-씨]
열실(閱實)[-씰]
열심(熱心)[-씸]
왈시왈비(曰是曰非)[-씨--]
울사01(鬱死)[-싸]
울사02(鬱思)[-싸]
울산01(蔚山)[-싼]
울산02(鬱散)[-싼]
울삼-하다(鬱森--)[-쌈--]
울색(鬱塞)[-쌕]
울성-하다(鬱盛--)[-썽--]
울수(鬱嗽)[-쑤]
월사01(月沙)[-싸]
월사02(月事)[-싸]
월사03(月榭)[-싸]
월삭01(月朔)[-쌕]
월삭02(越朔)[-쌕]
월산(月産)[-싼]
월-삼경(月三更)[-쌈-]
월삼도(越三道)[-쌈-]
월상01(月相)[-쌍]
월상02(月像)[-쌍]
월상계택(月象谿澤)[-쌍계-/-쌍게-]

열사02(熱邪)[-싸]	열수02(列數)[-쑤]	월색(月色)[-쌕]
월서(越署)[-써]	율수(聿修)[-쑤]	일-삼복(日三服)[-쌈-]
월석01(月夕)[-썩]	율승(律僧)[-씅]	일-삽시(一霎時)[-쌉씨]
월석02(月石)[-썩]	율시(律詩)[-씨]	일-삽우(一霎雨)[-싸부]
월선(月膳)[-썬]	율신(律身)[-씬]	일상01(一相)[-쌍]
월섭(越涉)[-썹]	을사01(乙巳)[-싸]	일상03(日商)[-쌍]
월성01(月星)[-썽]	을사02(乙奢)[-싸]	일상04(日常)[-쌍]
월성02(月城)[-썽]	을숙-도(乙淑島)[-쑥또]	일상-관(日想觀)[-쌍-]
월성04(粵省)[-썽]	을시01(乙時)[-씨]	일상군-악(日上郡樂)[-쌍--]
월성05(越城)[-썽]	일사02(一死)[-싸]	
월성일(月星日)[-썽-]	일사03(一事)[-싸]	일상일영(一觴一詠)[-쌍--]
월세(月貰)[-쎄]	일사04(一舍)[-싸]	
월-세계(月世界)[-쎄계/-쎄게]	일사05(一絲)[-싸]	일상일하(一上一下)[-쌍--]
	일사06(一簑)[-싸]	
월소01(月梳)[-쏘]	일사07(日射)[-싸]	일-상한(一象限)[-쌍-]
월소02(越所)[-쏘]	일사08(逸士)[-싸]	일색01(一色)[-쌕]
월소03(越訴)[-쏘]	일사09(逸史)[-싸]	일색02(日色)[-쌕]
월송-정(越松亭)[-쏭-]	일사10(逸死)[-싸]	일색03(日塞)[-쌕]
월수01(月水)[-쑤]	일사11(逸事/軼事)[-싸]	일생01(一生)[-쌩]
월수02(月收)[-쑤]	일-사반기(一四半期)[-싸--]	일생02(一眚)[-쌩]
월수03(月數)[-쑤]		일서01(一書)[-써]
월수04(越數)[-쑤]	일-사인(一私人)	일서02(日書)[-써]
월-수입(月收入)[-쑤-]	일사-천리(一瀉千里)[-싸철-]	일서03(逸書)[-써]
월승-하다(越勝--)[-씅--]		일석01(一夕)[-썩]
	일사칠궁(一司七宮)[-싸--]	일석02(一石)[-썩]
월시(月始)[-씨]		일석03(一昔)[-썩]
월시진척(越視秦瘠)[-씨--]	일삭01(一朔)[-싹]	일석04(一席)[-썩]
	일삭02(日朔)[-싹]	일석05(日夕)[-썩]
월식(月蝕/月食)[-씩]	일산01(一山)[-싼]	일석06(逸石)[-썩]
월신-천(月神天)[-씬-]	일산03(日産)[-싼]	일선01(一線)[-썬]
율사01(律士)[-싸]	일산04(日傘)[-싼]	일선02(一禪)[-썬]
율서01(律書)[-써]	일산05(日算)[-싼]	일설(一說)[-썰]
율서02(栗鼠)[-써]	일산06(逸散)[-싼]	일설지임(一舌之任)[-썰찌-]
율석(栗石)[-썩]	일살다생(一殺多生)[-쌀--]	
율선(律旋)[-썬]		일섬(一閃)[-썸]
일성01(一城)[-썽]	일수-하다02(逸秀--)[-쑤--]	일신일축(一伸一縮)[-씨닐-]
일성02(一醒)[-썽]		
일성03(一聲)[-썽]	일수11(溢水)[-쑤]	일실01(一室)[-쎌]

일성04(日星)[－썽]
일성05(日省)[－썽]
일성－론(一性論)[－썽논]
일성분－계(一成分系)[－썽－계/－썽－게]
일성분－계(一成分系)[－썽－계/－썽－게]
일성일쇠(一盛一衰)[－썽－쐬/－썽－쒜]
일세02(一世)[－쎄]
일세03(一洗)[－쎄]
일－세계(一世界)[－쎄계/－쎄게]
일소02(一所)[－쏘]
일소03(一宵)[－쏘]
일소04(一消)[－쏘]
일소05(一笑)[－쏘]
일소06(一掃)[－쏘]
일소07(日少)[－쏘]
일소08(日梳)[－쏘]
일소09(馹召)[－쏘]
일속02(一束)[－쏙]
일속03(一粟)[－쏙]
일수01(一手)[－쑤]
일수02(一水)[－쑤]
일수04(一數)[－쑤]
일수05(一穗)[－쑤]
일수06(日守)[－쑤]
일수07(日收)[－쑤]
일수08(日數)[－쑤]
일수09(日瘦)[－쑤]
절세01(折稅)[－쎄]
절세02(絕世)[－쎄]
절세04(節稅)[－쎄]
절소01(絕所)[－쏘]
절소02(絕笑)[－쏘]
절소－하다02(竊笑－－)[－쏘－－]
일－수유(一須臾)[－쑤－]
일수－일족(一手一足)[－쑤－쪽]
일－수입(日收入)[－쑤－]
일숙(一宿)[－쑥]
일－숙박(一宿泊)[－쑥빡]
일－숙직(日宿直)[－쑥찍]
일순01(一旬)[－쑨]
일순02(一巡)[－쑨]
일순03(一瞬)[－쑨]
일슬지공(一膝之工)[－쓸찌－]
일습(一襲)[－씁]
일승(一乘)[－씅]
일승일부(一勝一負)[－씅－－]
일시01(一時)[－씨]
일시02(一匙)[－씨]
일시03(日時)[－씨]
일시04(昵侍)[－씨]
일시05(逸詩/軼詩)[－씨]
일시동인(一視同仁)[－씨－－]
일식01(一式)[－씩]
일식02(一食)[－씩]
일식03(一息)[－씩]
일식04(日食)[－씩]
일신01(一身)[－씬]
일신02(一新)[－씬]
일신03(日新)[－씬]
일신－교(一神敎)[－씬－]
졸세(卒歲)[－쎄]
졸소－하다(拙小－－)[－쏘－－]
졸속(拙速)[－쏙]
졸수01(拙手)[－쑤]
졸수02(拙守)[－쑤]
졸－수단(拙手段)[－쑤－]
일실02(一實)[－씰]
일실03(逸失)[－씰]
일심02(一心)[－씸]
일심03(一審)[－씸]
일심04(日心)[－씸]
일심－하다02(日甚－－)[－씸－－]
일심06(日深)[－씸]
절사01(切捨)[－싸]
절사02(折死)[－싸]
절사03(茁鯊)[－싸]
절사04(絕嗣)[－싸]
절사05(節士)[－싸]
절사06(節死)[－싸]
절사07(節祀)[－싸]
절삭(切削)[－싹]
절산(折算)[－싼]
절상01(切上)[－쌍]
절상03(折傷)[－쌍]
절새(絕塞)[－쌔]
절색01(折色)[－쌕]
절색02(絕色)[－쌕]
절색－하다(節嗇－－)[－쌔카－]
절생(節省)[－쌩]
절서(節序)[－써]
절선01(切線)[－썬]
절선02(折線)[－썬]
절선03(節宣)[－썬]
절선04(節扇)[－썬]
절선05(節線)[－썬]
철삭(鐵索)[-싹]
철산01(鐵山)[-싼]
철산03(鐵傘)[-싼]
철산-염(鐵酸鹽)[-싼념]
철상01(凸狀)[-쌍]
철상02(撤床)[-쌍]
철상03(鐵像)[-쌍]

절속01(絕俗)[－쏙]	졸습(猝襲)[－씁]	철상철하-하다(徹上徹下--)[-쌍----]
절손(絕孫)[－쏜]	졸승01(卒乘)[－씅]	
절송(折訟)[－쏭]	졸승02(拙僧)[－씅]	철색02(鐵色)[-쌕]
절수01(切手)[－쑤]	졸－실음(卒失音)[－씨름]	철석(鐵石)[-썩]
절수03(折水)[－쑤]	졸－심통(卒心痛)[－씸－]	철선01(撤膳)[-썬]
절수04(折收)[－쑤]	질사(窒死)[－싸]	철선02(鐵船)[-썬]
절수05(折受)[－쑤]	질산(窒酸)[－싼]	철선03(鐵線)[-썬]
절수－하다04(絕秀－－)[－쑤－－]	질서01(姪壻)[-써]	철설01(鐵屑)[-썰]
	질서02(疾徐)[-써]	철설02(鐵蕝)[-썰]
절수07(節水)[－쑤]	질서03(秩序)[-써]	철성01(鐵城)[-썽]
절승(絕勝)[－씅]	질석(蛭石)[-썩]	철성02(鐵聲)[-썽]
절식01(絕食)[－씩]	질소02(窒素)[-쏘]	철소01(徹宵)[-쏘]
절식02(絕息)[－씩]	질속(疾速)[-쏙]	철소02(鐵所)[-쏘]
절식03(節食)[－씩]	질손(姪孫)[-쏜]	철소03(鐵梢)[-쏘]
절식05(竊食)[－씩]	질수(疾首)[-쑤]	철손(鐵損)[-쏜]
절신(絕信)[－씬]	질시01(疾視)[-씨]	철쇄(鐵鎖)[-쐐]
절실－하다(切實－－)[－씰－－]	질시02(嫉視)[-씨]	철수02(撤收)[-쑤]
	질식(窒息)[-씩]	철수03(鐵水)[-쑤]
절심02(絕心)[－씸]	찰상(擦傷)[-쌍]	철수04(鐵銹/鐵鏽)[-쑤]
절심－하다01(切深－－/絕深－－)[－씸－－]	찰색(察色)[-쌕]	철순(鐵楯)[-쑨]
	찰소(札所)[-쏘]	철술(綴術)[-쑬]
졸사(猝死)[－싸]	찰시-하다(察視--)	철습(掇拾)[-씁]
졸사－간(猝乍間)[－싸－]	철사01(哲士)[-싸]	철승(鐵繩)[-씅]
졸색(拙色)[－쌕]	철사02(撤事)[-싸]	철시02(撤市)[-씨]
졸생(拙生)[－쌩]	철사03(撤祀)[-싸]	철-신포(鐵信砲)[-씬-]
졸서(卒逝)[－써]	철사04(鐵沙/鐵砂)[-싸]	철심01(鐵心)[-씸]
졸성(拙誠)[－썽]	철사05(鐵絲)[-싸]	촬상-관(撮像管)[-쌍-]
출사01(出仕)[-싸]	칠사-강(七事講)[-싸-]	탈세(脫稅)[-쎄]
출사02(出使)[-싸]	칠-사립(漆紗笠)	탈속(脫俗)[-쏙]
출사03(出社)[-싸]	칠-사맥(七死脈)[-싸-]	탈속-반(脫粟飯)[-쏙빤]
출사04(出師)[-싸]	칠사-실적(七事實績)[-싸-쩍]	탈쇄-하다(脫灑--)[-쐐--]
출사05(出寫)[-싸]	칠삭-둥이(七朔--)[-싹뚱-]	탈수(脫水)[-쑤]
출사06(出謝)[-싸]	칠산(七疝)[-싼]	탈수-모(脫收毛)[-쑤-]
출산01(出山)[-싼]	칠삼-황동(七三黃銅)[-쌈--]	탈습01(脫習)[-씁]
출산02(出産)[-싼]	칠상01(七傷)[-쌍]	탈습02(脫濕)[-씁]
출살(出煞)[-쌀]	칠색01(七色)[-쌕]	탈신(脫身)[-씬]
출상01(出喪)[-쌍]	칠색02(漆色)[-쌕]	탈실(脫失)[-씰]
출상02(出象)[-쌍]	칠생(七生)[-쌩]	팔사(八絲)[-싸]

출새(出塞)[-쌔]
출색-하다(出色--)[-쌔카-]
출생(出生)[-쌩]
출석(出席)[-썩]
출선01(出船)[-썬]
출선02(出銑)[-썬]
출성(出城)[-썽]
출세01(出世)[-쎄]
출세02(出稅)[-쎄]
출-세간(出世間)[-쎄-]
출소01(出所)[-쏘]
출소03(出訴)[-쏘]
출속(出俗)[-쏙]
출송01(出送)[-쏭]
출송02(黜送)[-쏭]
출수02(出售)[-쑤]
출수03(出穗)[-쑤]
출수-관(出水管)[-쑤-]
출순(出巡)[-쑨]
출시(出市)[-씨]
출신(出身)[-씬]
칠사01(七史)[-싸]
칠사02(七祀)[-싸]
필사02(筆師)[-싸]
필사03(筆寫)[-싸]
필사내이(必死乃已)[-싸--]
필삭(筆削)[-싹]
필산01(筆山)[-싼]
필살(必殺)[-쌀]
필상(筆商)[-쌍]
필상-학(筆相學)[-쌍-]
필생01(畢生)[-쌩]
필생02(筆生)[-쌩]
필석(筆石)[-썩]
필선(弼善)[-썬]
필설(筆舌)[-썰]
필성01(畢星)[-썽]
필성02(弼成)[-썽]
칠서01(七書)[-써]
칠서02(漆書)[-써]
칠석(七夕)[-썩]
칠선(漆扇)[-썬]
칠성01(七成)[-썽]
칠성02(七星)[-썽]
칠성03(七聲)[-썽]
칠-소반(漆小盤)[-쏘-]
칠수-유고(七修類稿)[-쑤--]
칠순01(七旬)[-쑨]
칠순02(七順)[-쑨]
칠순-채(漆筍菜)[-쑨-]
칠실지우(漆室之憂)[-씰찌-]
칠십(七十)[-씹]
탈사(脫屜)[-싸]
탈산01(脫酸)[-싼]
탈삽(脫澁)[-쌉]
탈상(脫喪)[-쌍]
탈색01(脫色)[-쌕]
탈색02(奪色)[-쌕]
탈-석유(脫石油)
탈선01(脫船)[-썬]
탈선02(脫線)[-썬]
할석(割席)[-썩]
할선(割線)[-썬]
할손-례(割損禮)[-쏜녜]
헐소-청(歇所廳)[-쏘-]
헐숙(歇宿)[-쑥]
헐식(歇息)[-씩]
혈사02(血沙)[-싸]
혈사03(血嗣)[-싸]
혈사-경(血寫經)[-싸-]
혈산(血疝)[-싼]
혈상(血相)[-쌍]
혈색(血色)[-쌕]
혈생-근(血生根)[-쌩-]
혈서(血書)[-써]
혈석(血石)[-썩]
팔삭(八朔)[-싹]
팔상01(八相)[-쌍]
팔상02(八象)[-쌍]
팔상-전02(捌相殿)[-쌍-]
팔색-조(八色鳥)[-쌕쪼]
팔서01(八書)[-써]
팔선(八仙)[-썬]
팔-선녀(八仙女)[-썬-]
팔-선인(八仙人)[-써닌]
팔성01(八成)[-썽]
팔성03(八姓)[-썽]
팔성-당(八聖堂)[-썽-]
팔-성도(八聖道)[-썽-]
팔세02(八世)[-쎄]
팔세-아(八歲兒)[-쎄-]
팔세포-기(八細胞期)
팔송-사(八送使)[-쏭-]
팔수-무(八手舞)[-쑤-]
팔순(八旬)[-쑨]
팔시(八施)[-씨]
팔식(八識)[-씩]
팔십(八十)[-씹]
필사01(必死)[-싸]
혈심02(血心)[-씸]
혈심03(血沁)[-씸]
홀시(忽視)[-씨]
활사01(活師)[-싸]
활사02(活寫)[-싸]
활-산도(活酸度)[-싼-]
활살02(活殺)[-쌀]
활상(滑翔)[-쌍]
활색(活塞)[-쌕]
활석01(滑石)[-썩]
활석02(滑席)[-썩]
활선(活線)[-썬]
활-선어(活鮮魚)[-써너]
활설(滑泄)[-썰]
활성(活性)[-썽]

필세01(畢世)[-쎄] 필세02(筆洗)[-쎄] 필세03(筆勢)[-쎄] 필쇄(畢刷)[-쐐] 필수01(必修)[-쑤] 필수02(必須)[-쑤] 필수03(必需)[-쑤] 필수04(畢宿)[-쑤] 필수05(筆受)[-쑤] 필순(筆順)[-쑨] 필술(筆述)[-쑬] 필승(必勝)[-씅] 필시(必是)[-씨] 할삼-혼(割衫婚)[-쌈-] 할생(割牲)[-쌩]	혈성01(血性)[-썽] 혈성02(血腥)[-썽] 혈성03(血誠)[-썽] 혈세01(血洗)[-쎄] 혈세02(血稅)[-쎄] 혈소판(血小板)[-쏘-] 혈속(血屬)[-쏙] 혈손(血孫)[-쏜] 혈송(血松)[-쏭] 혈수01(血嗽)[-쑤] 혈수02(血讐)[-쑤] 혈수03(血髓)[-쑤] 혈식(血食)[-씩] 혈실(穴室)[-씰] 혈심01(穴深)[-씸]	활-세포(闊細布) 활소(闊疏)[-쏘] 활수01(活水)[-쑤] 활수02(滑手)[-쑤] 활수03(滑水)[-쑤] 활수04(闊袖)[-쑤] 활승-무(滑昇霧)[-씅-] 활-신덕(活信德)[-씬-] 휼사(譎詐)[-싸] 휼수(恤囚)[-쑤] 흘수(吃水)[-쑤] 흘승골-성(紇升骨城)[-씅--] 힐신(詰晨)[-씬]

<中文摘要>

汉字词音韵现象研究

刘天祺

本文的目的是从共时的角度探讨韩语的音韵现象是否在固有词或汉字词里出现以及音韵现象发生的面貌有何不同。另外，集中分析在汉字词里出现的特殊音韵现象，以此来说明汉字词的一些特征。

本文的第二张首先将音韵现象分类为在固有词与汉字词里面都出现的音韵现象，只在固有词里面出现的音韵现象和只在汉字词里面出现的音韵现象。在固有词与汉字词里面都出现的音韵现象有鼻音同化，逆行流音化，平破裂音后的紧音化，因中间ㅅ产生的紧音化，逆行有气音化，位置同化和喉音脱落（1）。因为汉字词作为借用语的特征以及固有词和汉字词之间音节构造的差异，其中的一些音韵现象在固有词和汉字词里面发生的面貌上有所不同。因为音节构造的差异，平破裂音化，顺行有气音化，喉音脱落（2）和子音群单纯化现象不在汉字词里出现，只在固有词里出现。此外，口盖音化在汉字词里出现时，发生了单词的再构造化，因此作为共时音韵现象的口盖音化只在固有词里出现。而且，因为作为借用语，汉字词的一些特征使得用言语干鼻音后面的紧音化也只在固有词里面出现。冠形詞形'-을'后面无法自然的连接汉字词依存名词，所以冠形詞形'-을'后面的紧音化也只在固有词里面出现。固有词里面没有可以成为齿槽鼻音化和逆行流音化现象输入的音韵连接，所以以上两种音韵现象不在固有词里面出现，而在汉字词里面出现。此外，虽然原因还不明确，'ㄹ' 后面的紧音化也只在汉字词里出现。

在第3章里面集中探讨了在固有词里面不出现而在汉字词里面出现的音韵现象－齿槽鼻音化和逆行流音化，特定汉字形态素的紧音化以及'ㄹ'后面的紧音化。收集字典资料，通过标准发音来推测音韵现象发生的原理。此外，还收集了国立国语院近年来进行的《标准发音法影响评价》(2012)와和《韩国语发音现状调查》(2016)的结果，收集整理了现实发音资料。通过现实发音资料来检

验前面总结的音韵现象的发生原理，并且提出在现实发音里面出现的特殊的部分并尝试对其进行说明。在汉字词里面音韵现象的发生与汉字词的形态构造有很大的关系。逆行流音化通常在2字词里发生，齿槽鼻音化则在3字词里发生。在现实发音中，因为话者之间汉文知识的差异或是特定单词的一些特征，会发生与原理相反的音韵现象，因此会出现两种发音共存的现象。通过标准发音可以发现，有特定意义的汉字形态素在作为接尾要素使用时发为紧音。‘ㄹ’后面的紧音化并不是在所有的汉字词中出现，一些3字词里面‘ㄹ’后面才会发生紧音化。所以这些在汉字词里面出现的音韵现象并不能单纯从音韵论的角度来解释，因为它们与汉字词的形态构造和话者的汉文知识有密切的关联。

最后，第四章结论部分总结了本文所分析的音韵现象，并提出本文所遗留的一些问题。

关键词：汉字词，音韵现象，齿槽鼻音化，逆行流音化，特定汉字形态素的紧音化，'ㄹ'后面的紧音化

学号：2016-22944